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체육학 석사학위 논문

한국 전통춤 춤사위 용어의
특성 및 표준화 탐색

-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춤을 중심으로 -

Explor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 Dance Movement Terminology
and Its Standardization Method

- Focused on Traditional Dance as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정인호

국문 초록

한국 전통춤 춤사위 용어의 특성 및 표준화 탐색

-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춤을 중심으로 -

정 인 호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본 연구는 한국 전통춤 춤사위 용어의 사용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데에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춤사위 용어 자료들을 문헌연구의 방법을 통해 분석 정리하여 표준화 방안을 탐색하였다.

먼저 용어 표준화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용어학과 음악학, 체육학 분야의 용어 연구 방법과 내용 및 특성 등을 살펴보았으며, 춤사위 용어 연구의 역사를 춤사위 해설 연구와 분석 연구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더불어 춤사위 용어의 개념을 규명하기 위하여 그 분석틀을 춤사위 표기법과 춤사위 분석법의 형태로 나누어 보았으며, 계통 분석과 조어론 분석을 통해 춤사위의 형태를 정리하고 이들을 바탕으로 춤사위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춤사위 용어의 특성은 연구자별 특성과 춤사위 계열을 기준으로 자료별 특성, 해석 기준, 범주화 특성, 서술상의 특성으로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춤사위 용어 자료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 발전의 사료가 되고 해석의 기준을 근거로 무용계의 연구환경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춤사위 용어의 범주화 분석을 통해 계열별 춤사위의 특성과 표기 형태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춤사위 서술상의 특성을 고찰하여 춤사위 용어의 해설 형태를 살펴볼 수 있었다.

춤사위 용어의 표준화는 앞서 춤사위의 특성에서 제시되었던 범위, 표기, 해설

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 기준을 정하여 표준화 방안을 도출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춤사위 용어의 범위 분류 방안에서는 기존의 춤사위 용어 체계를 구전된 춤사위 용어와 임의상 춤사위 용어, 춤의 구성용어와 춤사위 용어로 분류하였으며, 표기 체계 방안에서는 춤사위 표기 형태를 바탕으로 ‘춤사위 용어 + 사위(술어)’ 방안을 제안하였다. 해설 체계 방안에서는 춤사위 해설 형태를 바탕으로 춤사위 용어의 의미 설명, 형태 설명, 과정 설명, 부연 설명 등의 체계로 그 표준화 방안을 고안하였다.

따라서 표준화된 춤사위 용어를 위해서는 춤사위 용어를 사용할 때 정확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하며, 그 범위를 구전된 춤사위 용어와 임의상 춤사위 용어, 춤의 구성용어와 춤사위 용어로 구분하여야 한다. 또한, 표기에서는 ‘춤사위 용어 + 사위(술어)’ 형태를 근간으로 하고 해설은 춤사위의 의미, 동작의 형상과 춤의 과정, 마지막으로 부연 설명의 체계에 따라 기술하여야 한다.

더불어 연구를 통해 발견된 같은 계열 혹은 다른 계열의 반복된 춤사위 용어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밝히고 각 춤 종목마다 구체적으로 연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 연구로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표준화된 ‘춤사위 용어사전’을 만들어야 하며, 나아가 남북한의 교류활동 작업으로써 ‘춤사위 용어 통일안’을 만들어 국가적인 차원의 연구 형태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4
3. 선행연구 고찰	4
4. 연구의 방법 및 범위	6
5. 용어의 정의	7
II. 이론적 배경	10
1. 용어의 표준화 연구	10
1) 용어학 분야의 연구	10
2) 음악학 분야의 연구	12
3) 체육학 분야의 연구	13
2. 한국 전통춤 춤사위 용어 연구의 역사	15
1) 춤사위 용어 해설 연구	16
2) 춤사위 용어 분석 연구	22
3. 춤사위 용어의 개념	25
1) 춤사위의 분석틀	25
2) 춤사위 용어의 형태	34
3) 춤사위 용어의 의미	38
III. 춤사위 용어의 특성	39
1. 춤사위 용어의 자료별 특성	39
1) 춤사위 연구자별 특성 분석	39
2)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의 연관성	42
2. 춤사위 용어의 해석 기준	46
1) 춤사위 계열별 해석 기준 분석	46
2) 무용계의 연구 실태	51

3. 춤사위 용어의 범주화 특성	52
1) 춤사위 계열별 범주화 특성 분석	56
2) 춤사위 용어의 표기 형태	63
4. 춤사위 용어의 서술상 특성	66
1) 춤사위 계열별 서술 특성 분석	66
2) 춤사위 용어의 해설 형태	70
IV. 춤사위 용어의 표준화	72
1. 춤사위 용어의 문제점	72
1) 춤사위 용어의 범위	72
2) 춤사위 용어의 표기	74
3) 춤사위 용어의 해설	76
2. 춤사위 용어의 기준 설정	77
1) 춤사위 용어의 범위 기준	77
2) 춤사위 용어의 표기 기준	78
3) 춤사위 용어의 해설 기준	78
3. 춤사위 용어의 표준화 탐색	79
1) 춤사위 용어의 범위 분류	79
2) 춤사위 용어의 표기 체계	82
3) 춤사위 용어의 해설 체계	86
V. 결론 및 제언	90
1. 결론	90
2. 제언	91
참고문헌	93
부록. 춤사위 용어의 분석	97
Abstract	108

표 목 차

〈표 1〉 채희완의 동작언어학	29
〈표 2〉 춤사위 범주화 분석	30
〈표 3〉 정병호의 한국춤 동작소	32
〈표 4〉 춤사위 용어의 계통별 특성	34
〈표 5〉 춤사위 용어의 조어론적 특성	36
〈표 6〉 춤사위 용어의 개수(계열을 중심으로)	40
〈표 7〉 춤사위 자료의 구성(중요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43
〈표 8〉 춤사위 용어 범주화 분석(자료별)	53
〈표 9〉 춤사위 용어 범주화 분석(계열별)	56
〈표 10〉 춤사위 용어의 표기 형태와 특징	64
〈표 11〉 춤사위 용어의 서술상의 특징	71
〈표 12〉 춤사위 용어의 표기문제	74
〈표 13〉 춤사위 용어의 해설문제	76
〈표 14〉 춤사위 용어의 표기 표준화 사례	82
〈표 15〉 춤사위 용어의 표기 체계 표준화 방안	84
〈표 16〉 춤사위 용어의 해설 표준화 사례	86
〈표 17〉 춤사위 용어의 해설 체계 표준화 방안	88
〈표 18〉 춤사위 용어의 표준화 내용 정리	89

그 립 목 차

〈그림 1〉 이은주의 춤사위 동작군에 의한 분류방법	33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언어에는 인간 삶의 역사가 묻어 있다. 즉 언어는 국가의 문화와 민족성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으며, 그 안에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사회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다.

학문이란 발전과 동시에 체계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 언어는 학문 자체를 표상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등 그 체계를 정립하는데 기여한다(백아리, 1986). 따라서 하루가 다르게 정보화 지식화 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내용과 개념을 담고 있는 언어의 특성과 표현을 정리하여(황지영 외, 2010), 그 기준을 제시하고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해야만 한다(조남호, 2005).

춤은 비언어적 몸짓들 즉 춤사위의 결합이고 이 동작들이 바로 춤에서 기호이자 언어라고 할 수 있다(이은주, 1996). 춤에 있어서 용어란 춤사위의 명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춤의 역사와 분포, 유형, 기능과 특징 등을 담고 있는 훌륭한 교과서이다(배정혜, 2004). 특히 한국 전통춤은 구전으로 전승되는 특성상 유형별로 춤사위의 명칭이 있으며 그 춤사위는 문화유산으로써 한국인의 정서와 사상, 철학이 반영된 고유체계라고 할 수 있다(이유진, 2009). 다시 말하자면 춤사위는 그 자체로서 문화적 의미와 가치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춤사위 용어는 춤의 움직이는 기술과 방법, 동작의 원리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이은주, 1997), 한국 전통춤 구조의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다(김경숙, 2006). 즉 춤사위 용어의 내용만 잘 전달된다면 그 동작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춤사위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배정혜, 2004). 따라서 한국 전통춤을 춤사위 용어로 익힌다면 전통의 해석을 왜곡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며 춤의 전수에 있어 길잡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춤사위 용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춤사위 용어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극히 미진함을 자료조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춤의 전달 수단으로써의 춤사위 용어 사용이 지도자의 개인적인 경향에 따라 새롭게 명명되기도 하고 학맥과 유파에 의해 크게 의존되어 있으며(허순선, 2004), 외래어 및 의성어나 의태어에 가까운 용어가 부르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다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이은주, 1997).

그리고 교육내용에서도 무용은 지극히 제한적인 민속무용의 춤사위만을 다루고 있어 다양한 춤을 포용하지 못하고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이유진, 2009). 더불어 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의 무용 교육 역시 대부분의 춤이 춤사위 용어의 사용 없이 교수 학습되고 있으며, 같은 춤사위를 여러 다양한 용어로 명명하여 그 난해함이 가중되고 있다(이은주, 1997).

춤사위 용어에 대한 초기적 관심은 1974년 문예중흥 5개년 계획에 의해 발족된 무용개발위원회 산하 무용용어 심의 위원회였으며¹⁾, 이애주(1976)의 「춤사위 어휘고」와 심우성(1982)의 『전통무용 용어의 연구』, 박금슬(1982)의 『춤동작』, 장사훈(1984)의 『한국무용개론』, 정병호(1984)의 「춤사위 고」, 허연희(1986)의 「궁중무용의 춤사위 연구 및 전승 문제」, 유경희(1992)의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에 관한 연구」, 이은주(1996)의 「한국무용 용어에 관한 연구」와 (1997)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의 표준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병호(2002)의 『한국의 전통춤』, 서희주(2003)의 『한국무용 호흡법과 용어 해설』, 허순선(2005)의 『한국의 춤사위와 무보틀』 등이 있다. 그리고 한국학술진흥재단(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루어진 대한무용학회의 무용학 분야 용어 정리 사업이 있고 손선숙(2008)의 「궁중정재 용어연구」, 이유진(2009)의 「한국무용교육을 위한 디딤 용어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의 지원으로 아시아춤연구소가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1) 경향신문(1974년 4월 4일 5면) 개발위원회 등 구성 올 무용예술 진흥 계획. 무용개발위원회(조택원, 조동화, 안제승, 임성남, 김천홍, 이두현, 조성길)는 무용 기법과 무용 이론 무용 용어 등을 통일하여 연구토록 하고 여기에서 개발된 것을 무용 강습과 무용 전문지 등을 통해 보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춤사위 용어 총람을 제작하기 위해 이루어진 연구 용역이 있으며, 같은 연구의 일환으로 국립부산국악원에서 출판한 『영남 춤사위 용어 편람』이 있고, 최근에는 이순지(2014)의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 체계화 방안」의 연구 등이 있다.

춤사위에 대한 연구들의 경우 연구자의 개인적인 견해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일관되게 대표적인 춤사위와 해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춤사위를 정리하였으며(손선숙, 2003), 일부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춤사위 용어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관점을 피력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춤사위를 단순히 궁중춤과 민속춤으로 나눈다면 궁중춤의 경우 대체로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몇 개의 용어에서 표기와 해설이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민속춤의 경우 춤마다 매우 다양한 형태의 용어와 해설을 사용하여 춤사위의 범위문제와 표기의 문제, 해설의 문제를 야기하고 일부의 연구에서는 춤사위를 보존하기 위해 임의상 명명한 용어가 존재하여 춤사위의 가치 문제를 드러내는 등 그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춤사위 용어의 표준화는 춤사위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통합적인 이해, 즉 춤사위의 종합적 체계를 바탕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며(허순선, 1997), 지식의 전달과 교육, 국내·외적인 교류의 매개체로서 용어의 소통성과 경제성, 그리고 안정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김한샘, 2008).

이러한 표준화된 춤사위 용어의 활용은 그동안 학맥과 유파에 의해 단절되어 온 무용가들 사이의 소통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 저술, 나아가 학제간의 교류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무용학의 발전과 남북한의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여 남북의 춤사위 용어 통일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조남호, 2005).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발표되었던 춤사위 용어 연구 자료를 분석하여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국 전통춤의 춤사위 용어 표준화 방안을 탐색하여 관련 용어를 표준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오늘날 한국춤의 춤사위는 내용 면에서 다양성이 매우 크기에 단순히 개별 춤사위에 대한 용어를 나열하고 해설하는 것만으로는 체계적인 용어 표준화 작업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본 연구에서는 춤사위 이론 체계 속에서 그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였으며, 그동안의 춤사위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춤사위 용어의 특성을 밝히고 춤사위 용어의 표준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즉 춤사위 용어에 관한 실제적인 문제점을 살핌으로써 춤사위 용어의 혼란을 해소하고 춤사위 용어의 교육적 측면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무용 전문교육과 학교교육, 나아가 사회교육 등의 건전한 발전에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전통춤 춤사위 용어의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한국 전통춤 춤사위 용어의 표준화 방안은 무엇인가?

3. 선행연구 고찰

한국 전통춤 춤사위 용어 중 춤사위 용어를 제시하고 해설한 자료로 개인에 의한 춤사위 정립이 아닌 구전된 춤사위 용어에 관한 연구로는 이애주(1976)의 「춤사위 어휘고」, 심우성(1982)의 『전통무용 용어의 연구』, 장사훈(1984)의 『한국무용개론』, 유경희(1992)의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에 관한 연구」, 정병호(2002)의 『한국의 전통춤』의 연구 등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춤사위 어휘고」 - 이애주(1976)

「춤사위 어휘고」는 중요무형문화재 14종목(1호 종묘제례악, 2호 양주별산대 놀이, 6호 통영오광대 놀이, 7호 고성오광대 놀이, 12호 진주검무, 17호 봉산탈춤, 18호 동래야유, 21호 승전무, 27호 승무, 34호 강령탈춤, 39호 처용무, 40호 학무, 43호 수영야유, 49호 송파산대놀이)을 대상으로 문헌조사와 각 지방의 전수단체를 찾아가 연구자가 직접 전수받으며 예능보유자와의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 춤사위 어휘들을 수집 채록하여 정리하였다.

2) 『전통무용 용어의 연구』 - 심우성(1982)

『전통무용 용어의 연구』는 1975년도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던 보고서를 다시 펴낸 자료로, 현장답사를 통하여 예능보유자들로부터 구술받은 것을 2, 3차에 걸쳐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전통무용의 용어를 채록하였다. 중요무형문화재 14종목(1호 종묘제례악, 2호 양주별산대 놀이, 6호 통영오광대 놀이, 7호 고성오광대 놀이, 12호 진주검무, 17호 봉산탈춤, 18호 동래야유, 21호 승전무, 27호 승무, 34호 강령탈춤, 39호 처용무, 40호 학무, 43호 수영야유, 49호 송파산대놀이)을 대상으로 춤사위 용어를 정리하고 춤사위 연구를 위한 종별해석의 내용으로 춤의 개관과 내용, 전승 현황 등을 기록하였다.

3) 『한국무용개론』 - 장사훈(1984)

『한국무용개론』은 한국춤의 이론과 국악의 이해, 한국춤의 역사적 변천, 정재 의물·관복 및 복식 그리고 춤사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무용에 대한 전반적인 개론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춤사위 용어는 책의 마지막 장인 춤사위 부분에 나타나 있고 그 내용은 정재의 춤사위와 일무의 춤사위, 민속춤·탈춤 등의 춤사위로 정리되어 있다.

4)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에 관한 연구」 - 유경희(1992)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에 관한 연구」는 안제승 교수의 한국무용 분류법에 의하여(산대, 농악, 무속, 승무, 기방무의 다섯 가지 계열) 춤사위의 용어와 설명을 해설하였으며, 춤사위를 특징별로 본 춤사위, 상·하체 춤사위, 공통되는 춤사위 순으로 도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5) 『한국의 전통춤』 - 정병호(2002)

『한국의 전통춤』은 저자가 1960년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약 30년간 전국 각지를 다니며 채록한 자료로 이론편, 실제편, 참고자료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춤사위 용어와 관련된 부분은 참고자료편의 춤사위 해설에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은 무속춤과 불교춤, 유교춤, 농악, 탈춤, 교방춤, 궁중 정재의 춤사위를 해설하고 있다.

4.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이애주(1976)의 「춤사위 어휘고」와 심우성(1982)의 『전통무용 용어의 연구』, 장사훈(1984)의 『한국무용개론』, 유경희(1992)의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에 관한 연구」, 정병호(2002)의 『한국의 전통춤』에 수록된 춤사위 용어와 해설을 대상으로 문헌고찰의 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과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II장인 이론적 배경에서는 용어 표준화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용어학과 음악학, 체육학 분야 연구들의 방법과 내용, 특성 등을 살펴보았으며, 선행연구로서 춤사위 용어연구의 역사를 해설 연구와 분석 연구로 정리하였다. 또한, 춤사위 용어의 개념을 규명하기 위해 그 분석틀을 살펴보았으며 춤사위의 형태와 의미를 고찰하였다.

Ⅲ장에서는 연구의 대상인 춤사위 용어를 분석하여 특성을 밝히기 위해 연구자별 특성을 근거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으며 춤사위 계열을 기준으로 춤사위 용어 자료의 해석 기준과 범주화 특성 그리고 서술상의 특성을 규명해 보았다.

Ⅳ장에서는 춤사위 용어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춤사위 용어의 범위, 표기, 해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그 기준을 설정하고 각각의 문제에 근거하여 춤사위 용어의 범위 분류, 표기 체계, 해설 체계의 표준화 방안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 전통춤의 춤사위 용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중 개인에 의한 춤사위 용어정립이 아닌 구전으로 전승되어온 춤사위 용어 즉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5. 용어의 정의

1) 한국 전통춤 춤사위

한국 전통춤 춤사위란 한국 전통춤의 춤사위를 가리키며 한국춤, 한국무용, 민속춤, 민속무용, 전통무용 등으로 불리는 춤의 동작을 뜻한다.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여 민족 기층문화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춤으로써 개인에 의한 정립이 아닌 민속의 특수성과 향토성을 갖추고 있는 춤사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정병호, 1991).

2) 용어의 표준화

용어의 표준화란 용어를 사용하는 구성원들의 개념적 상상력과 시대성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역량과 전문성을 표준화 작업에 반영하고(황지영 외, 2010), 일정한 원리를 기준으로 흐트러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용어를 정리하여 질서 있는 상태가 되게 함을 의미한다(표준국어대사전,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춤사위 용어의 표준화를 위하여 용어의 특성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일정한 기준을 근거로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란 무용·음악·연희·놀이·의식 등과 같이 무형의 문화적 소산 가운데 역사상·학술상·예술상 가치가 큰 것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문화재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4). 우리 민족의 귀중한 전통문화로서 현대화가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으며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민들의 활발한 참여와 관심으로 굳건하게 계승 발전시켜야 할 대상(브리태니커, 2002)으로 본 연구에서는 구전으로 전승되어온 중요무형문화재 전통춤의 춤사위 용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4) 춤사위 용어 자료

본 연구에서 춤사위 용어 자료란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해주(1976)의 「춤사위 어휘고」와 심우성(1982)의 『전통무용 용어의 연구』, 장사훈(1984)의 『한국무용개론』, 유경희(1992)의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에 관한 연구」, 정병호(2002)의 『한국의 전통춤』의 연구를 가리키고 한국 전통춤 춤사위 용어를 수집 채록하여 해설한 연구 자료를 일컫는다.

5) 춤사위의 계열

춤사위 계열이란 춤의 특성상 비슷한 춤을 계열로 표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그 계열을 6개로 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정재(종묘제례악(보태평지무, 정대업지무), 학무, 처용무, 정재의 일반 춤사위(궁중 정재))

- ② 탈춤(양주별산대, 송파산대놀이, 봉산탈춤, 강령탈춤,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동래야유, 수영야유, 북청 사자놀이, 남사당 덧뵈기)
- ③ 민속춤(승무, 승전무, 진주검무, 살풀이, 태평무)
- ④ 농악춤(쇠꾼춤, 장구춤, 북춤, 소고춤, 무동춤)
- ⑤ 무속춤(수원 무속춤, 서울 무속춤, 웅진 무속춤, 함흥 무속춤, 강릉 무속춤, 평양 무속춤, 영덕 무속춤, 통영 무속춤, 부안 무속춤, 진도 무속춤, 부산 무속춤, 제주 무속춤)
- ⑥ 불교춤(나비춤, 바라춤, 범고춤)

6) 춤사위의 범주화

춤사위 범주화란 이애주(1976)가 「춤사위 어휘고」에서 춤사위 용어를 유형화한 것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명명한 용어로, 춤사위 특성을 8가지 형태로 범주화한 것을 의미한다.

- ① 인간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
- ② 신체 부위를 사용한 춤사위
- ③ 동작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
- ④ 감정을 형용하여 사용한 춤사위
- ⑤ 동물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
- ⑥ 의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춤사위
- ⑦ 소도구와 의상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
- ⑧ 춤의 대형을 사용한 춤사위

Ⅱ.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배경에서는 우선 용어 표준화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용어학과 음악학, 체육학 분야 연구들의 방법과 내용, 특성 등을 살피고 선행연구로서 춤사위 용어연구의 역사를 해설 연구와 분석 연구로 정리하였다. 또한, 춤사위 용어의 개념을 규명하기 위하여 그 분석틀을 살펴보았으며, 춤사위의 형태와 의미를 고찰하였다.

1. 용어의 표준화 연구

용어 표준화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용어학, 음악학, 체육학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표준화의 연구방법과 내용 등을 살펴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1) 용어학 분야의 연구

용어학 분야에서는 학술 전문용어를 학문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지식의 단위가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도구로 인식하고 각 학문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수집, 표준화하였다(이현주 외, 2011).

용어학의 분야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 혹은 국가 전문용어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대표적인 연구로는 조은경(2000)의 「전문용어의 어휘 형태적 특성 연구」와 김한샘(2008)의 「전문용어 표준화의 현황과 과제」 등이 있으며 연구방법과 내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용어학의 연구방법과 내용

조은경(2000)은 「전문용어의 어휘 형태적 특성 연구」에서 표준국어대사전 전문어 목록의 53개 분야를 대상으로 형성의 방법과 특성, 형태변화 방식, 외래어와 한자어의 양상, 분야별 어휘적 자원과 특성, 일상용어와 전문용어의 관

계 구분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 결과 전문용어는 일반어의 하위 범주를 이루며 그 형성된 형태는 일반용어와 동일하나 특수성을 드러내기 위해 복합어의 형태를 보인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고유어보다는 한자어에 의존하고 과학과 기술, 경제분야에서 외래어를 차용한 용어가 많이 존재하였으며, 사회과학 분야는 서술성 명사가 조어 단위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기술하였다.

김한샘(2008)은 「전문용어 표준화의 현황과 과제」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용어학 분야의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산업규격(KS)의 용어관리는 1963년 한국산업 규격 표시 허가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16개 부문(기본, 기계, 전기, 금속, 광산, 토건, 일용품, 식료품, 섬유, 요업, 화학, 의료, 수송기계, 조선, 항공, 정보산업)에서 12만여 항목을 표준화하였으며, 최근에는 장례용어 표준화(2004), 색깔 명칭(2005), 골프용어(2006), 이러닝 관련 용어(2006)를 표준화하였다. 21세기 세종계획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에 걸쳐 계획된 연구였으나 2003년부터 진행된 전문용어 표준화 사업과 비슷한 특성을 고려하여 2006년에 조기 종료되었으며, 15개 분야에서 18만 항목의 전문용어를 수집 정리하여 650만 어절의 전문분야 말뭉치를 구축하여, 전문용어의 표준안 작성에 기여하였다. 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사업은 2003년 11월부터 한국학술진흥재단(교육과학기술부)으로부터 기금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차 사업으로 18개 분야의 24만 용어를 수집 및 정비하여 6만여 개의 용어가 중복으로 사용됨을 밝혔으며 2차 연구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1개 분야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40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용어를 수집 및 정리하여 전문용어를 표준화하였다.

(2) 용어학 연구의 특성

용어학은 전문용어를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표준화하였으며(김한샘, 2008), 특정 분야의 전문용어를 단순히 살펴보는 수준에서 나아가 각 용어 간에 공유되는 어휘요소와 어휘 형태론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축적된 정보의

활용성을 이해하는데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조은경, 2000). 즉 이러한 전문용어의 분석은 그 어휘적 자원과 언어적 형태와 표현상의 특징을 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방법은 언어적 정보를 축적하는 방법을 살펴보는 것으로 ‘일반어휘와 달리 어떤 어휘적 특징을 가졌는지’, ‘어떤 어휘적 자원을 생산적으로 이용하는지’, ‘인접한 분야의 용어 간에는 어떠한 어휘 형태적 특성이 공유되고 있는지’ 등을 규명하는 작업이었다(조은경, 2000).

그러나 용어학 분야의 연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각 학문의 영역을 바라보는 것이기에 개별 분야의 내부적 특성까지는 살펴보지 못하고 있으며 개괄적인 수준에서 용어의 특성을 분석 정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음악학 분야의 연구

음악학의 분야에서는 대체로 교과서와 음악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용어의 표준화와 관련된 대표적 연구는 백아리(1986)의 「음악용어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와 신순애(2006)의 「제7차 고등학교에서의 국악용어 고찰」 등이 있으며 그 연구방법과 내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음악학의 연구방법과 내용

백아리(1986)는 「음악용어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에서 중·고등학교 검인정 교과서와 대학 이상의 학생이나 일반 애호가들이 읽을 수 있는 음악문헌을 대상으로 일반 용어와 전문용어로 구분하여 그 사용실태를 조사하였고, 외래어 표기법의 연혁과 표기상의 문제점, 음악용어의 사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전문용어 사용상의 한계와 지식용어 활용 상의 문제점에 관해서 고찰하였다.

특히 서양음악 용어의 문제점을 다른 나라를 거쳐 용어가 차용되어 유입되는 경우로 보았으며, 그 원인을 개화기의 불안정한 사회원인, 전문 연구기관의 부재, 전달 매체로서의 방송기관, 출판계, 교육기관의 인식 부재 등을 제시하며 음악 용어의 통일을 위한 인식 제고와 전문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신순애(2006)는 「제7차 고등학교에서의 국악용어 고찰」에서 국악의 구조적 이해에 필요한 장단, 시김새, 음계, 음악사적 구분 용어를 고찰하여 교과서마다 표현이 다르고 내용이 편중되어 있음을 기술하였다. 또한, 그 용어의 정의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음악의 역사적 이해를 돕는 용어의 명칭과 연도 역시 표기의 차이가 있으며, 용어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혼용되는 용어가 많고 한자 표기에서도 그 표기 기준이 무엇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 음악학 연구의 특성

음악학에서 용어의 표준화는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용어 사용의 문제점을 제시한 내용으로 각각의 음악 특성에 맞게 그 문제점과 원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황과악 위주의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해결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3) 체육학 분야의 연구

체육학에서는 태권도의 용어 표준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사용되는 용어를 기준으로 태권도 교본과 연구물 등을 분석하여 용어를 체계화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연구로는 곽택용(2007)의 「태권도 경기기술 용어 변천과 사용 실태」와 국기원(2010)의 『태권도 기술용어집』 등이 있고 그 연구방법과 내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체육학의 연구방법과 내용

곽택용(2007)은 「태권도 경기기술 용어 변천과 사용 실태」에서 경기기술에 대한 전통적 인식에서 나아가 독자적인 영역으로 경기기술을 이해하고 용어 정립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전통적 경기기술의 용어와 교본의 기술용어를 살피고 경기기술에 대한 연구물을 분석하였으며, 범위와 분류 문제를 구교본의 발

차기 용어, 공식 교본의 발차기 용어, 경기기술 분석 논문에 나타난 발차기 용어, 현장에서 사용되어 온 발차기 용어, 발놀림에 대한 용어 분석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구교본과 공식 교본에서는 경기기술 용어의 정의가 없었으며, 기본 발차기 용어는 통일되어 있지만,, 발놀림의 경우 다양한 용례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것을 연구한 논문에서 의태어와 의성어에 가까운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기술하였다. 따라서 기술용어에 대한 인식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분류가 일정한 원칙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서술하였다.

국기원(2010)은 『태권도 기술용어집』에서 용어의 표준화를 위해 2009년부터 2년여간 도장 및 경기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용어를 수집하고 검토하여 표준용어 138개를 선정하고 각 기술에 대한 해설을 바탕으로 용어집을 발간하였다. 용어의 일관성, 통일성, 간결성을 실현하기 위해 기술의 방법과 방향, 누락된 기술 등을 확충하고 5음절 이내로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그리고 태권도의 기술을 분화하였을 때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동작의 최소 단위를 태권도의 기본이라 정의하였으며, 그 기본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기술 및 전술을 기술용어라 칭하였다. 또한, 모든 기술 용어는 ‘-기’로 끝나는 동사의 명사형을 기본으로 삼았으며, 표제어와 로마자 표기를 함께 쓰고, 이어 간추린 뜻풀이와 자세한 뜻풀이를 병기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용어 활용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하위 기술용어와 동의어를 함께 수록하였다. 더불어 명확하게 뜻풀이를 하고자 활용을 두었고, 널리 사용되는 것부터 기술하였으며,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국립국어원에서 감수하여 용어정립 기준안을 서술하였다. 용어의 구성은 ‘사용부위 + 방법 + 기술’의 순으로 정하였으며, 꺾기, 넘기기, 던기, 뛰기, 막기, 밀기, 빼기, 서기, 잡기, 준비자세, 지르기, 찌르기, 찌기, 차기, 치기, 피하기, 특수품의 순서로 기록하였고 사용부위와 격파를 부록으로 서술하였다.

(2) 체육학 연구의 특성

곽택용(2007)은 경기기술을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식하고 용어 정립을 시도 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관점에서 나아간 연구이나 구체적 대안이 없는 문제점 지적이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국기원(2010)의 용어집은 그 특성상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며, 무조건적인 표준화 방안이 아니라 활용을 두어 기존에 사용됐던 용어를 살펴볼 수 있는 점이 의미가 있다. 또한, 용례를 통해 새로운 기술 용어를 만들 수 있으며 표준화된 용어의 사용으로 태권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 전통춤 춤사위 용어 연구의 역사

춤사위 용어에 대한 초기적 관심은 1974년 문예중흥 5개년 계획에 의해 발족된 무용개발위원회 산하 무용용어 심의 위원회였으며, 이애주(1976)의 「춤사위 어휘고」와 심우성(1982)의 『전통무용 용어의 연구』, 박금슬(1982)의 『춤동작』, 장사훈(1984)의 『한국무용개론』, 정병호(1984)의 「춤사위 고」, 허연희(1986)의 「궁중무용의 춤사위 연구 및 전승 문제」, 유경희(1992)의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에 관한 연구」, 이은주(1996)의 「한국무용 용어에 관한 연구」와 (1997)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의 표준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병호(2002)의 『한국의 전통춤』, 서희주(2003)의 『한국무용 호흡법과 용어 해설』, 허순선(2005)의 『한국의 춤사위와 무보틀』 등이 있다. 그리고 한국학술진흥재단(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루어진 대한무용학회의 무용학 분야 용어 정리 사업과 손선숙(2008)의 「궁중정재 용어연구」, 이유진(2009)의 「한국무용교육을 위한 디딤 용어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의 지원으로 아시아춤연구소가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춤사위 용어 총람을 제작하기 위해 이루어진 연구 용역이 있으며, 같은 연구의 일환으로 국립부산국악원에서 출판한 『영남 춤사위 용어 편람』이 있고, 최근에는 이순지

(2014)의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 체계화 방안」의 연구 등이 있다.

춤사위 용어 연구의 역사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대를 중심으로 연구형태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그 연구 형태가 춤사위를 제시하고 해설한 자료들과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을 피력한 연구들로 구분되기에 전자를 ‘춤사위 용어 해설 연구’라 칭하고 후자를 ‘춤사위 용어 분석 연구’로 명명하여 정리해 보았다.

1) 춤사위 용어 해설 연구

춤사위 용어 해설 연구로는 춤사위를 용어로 제시하고 해설한 자료로 이애주(1976)의 「춤사위 어휘고」와 심우성(1982)의 『전통무용 용어의 연구』, 박금슬(1982)의 『춤동작』, 장사훈(1984)의 『한국무용개론』, 유경희(1992)의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에 관한 연구」, 정병호(2002)의 『한국의 전통춤』, 서희주(2003)의 『한국무용 호흡법과 용어 해설』, 허순선(2005)의 『한국의 춤사위와 무보틀』 등이 있으며, 한국학술진흥재단(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루어진 대한무용학회의 무용학 분야 용어 정리 사업 등이 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의 지원으로 아시아춤연구소가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춤사위 용어 총람을 제작하기 위해 이루어진 연구 용역이 있으며, 같은 연구의 일환으로 국립부산국악원에서 출판한 『영남 춤사위 용어 편람』 등이 있다.

(1) 「춤사위 어휘고」 - 이애주(1976)

「춤사위 어휘고」는 중요무형문화재 14종목(1호 종묘제례악, 2호 양주별산대놀이, 6호 통영오광대놀이, 7호 고성오광대놀이, 12호 진주검무, 17호 봉산탈춤, 18호 동래야유, 21호 승전무, 27호 승무, 34호 강령탈춤, 39호 처용무, 40호 학무, 43호 수영야유, 49호 송파산대놀이)을 대상으로 문헌조사와 각 지방의 전수단체를 찾아가 연구자가 직접 전수받으며 예능보유자와의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 춤사위 어휘들을 수집하여 채록·정리하였다.

춤사위 어휘를 ① 인간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칭한 말(단어), ② 신체 부위를 사용하여 지칭한 말, ③ 동작의 움직임을 사용하여 지칭한 말, ④ 감정을 형용하여 사용한 말, ⑤ 동물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칭한 말, ⑥ 의태, 비유적인 표현으로 지칭한 말, ⑦ 소도구와 의상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칭한 말, ⑧ 춤의 대형을 나타낸 말로 분석하여 범주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춤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춤사위 어휘고의 경우 대부분의 춤사위 용어 연구가 춤사위 용어를 해설하는 데에만 머물러 있는 양상에서 나아가 어휘적 특성을 분석하여 춤사위를 범주화시켰다는 데에 특징이 있으며 연구자가 직접 전수받으며 체계적으로 용어를 정리하였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전통무용 용어의 연구』 - 심우성(1982)

『전통무용 용어의 연구』는 1975년도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던 보고서를 다시 펴낸 자료로, 현장답사를 통하여 예능보유자들로부터 구술받은 것을 2, 3차에 걸쳐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전통무용의 용어를 채록하였다. 중요무형문화재 14종목(1호 종묘제례악, 2호 양주별산대놀이, 6호 통영오광대놀이, 7호 고성오광대놀이, 12호 진주검무, 17호 봉산탈춤, 18호 동래야유, 21호 승전무, 27호 승무, 34호 강령탈춤, 39호 처용무, 40호 학무, 43호 수영야유, 49호 송파산대놀이)을 대상으로 춤사위 용어를 정리하고 춤사위 연구를 위한 종별해석의 내용으로 춤의 개관과 내용, 전승 현황 등을 기록하였다.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들의 구술 자료를 토대로 구성되어 있어 그 중요성과 가치가 매우 크며, 당시의 전승 현황을 살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3) 『춤동작』 - 박금슬(1982)

『춤동작』은 박금슬이 춤을 추어 오면서 정리한 연구로 동작의 기본과 특수명칭의 호, 예법을 서술하고 춤동작을 사위법, 둘체법, 상·중·하체 동작, 전체 동작, 굿거리춤, 입춤, 전체동작 허튼타령, 살풀이로 체계화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춤사위 용어를 정립하여 체계화시킨 것으로 후대의 연구자들(서희주(2003), 허순선(2005))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춤의 귀중한 역사적 자료이자 연구 거리라고 할 수 있다.

(4) 『한국무용개론』 - 장사훈(1984)

『한국무용개론』은 한국춤의 이론과 국악의 이해, 한국춤의 역사적 변천, 정재 의물·관복 및 복식 그리고 춤사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무용에 대한 전반적인 개론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춤사위 용어는 책의 마지막 장인 춤사위 부분에 나타나 있고 그 내용은 정재의 춤사위와 일무의 춤사위, 민속춤·탈춤 등의 춤사위로 정리되어 있다.

정재의 춤사위 용어 설명은 자세한데에 반해 민속무용과 탈춤의 경우 대표적 춤사위 30개를 기술하여 춤사위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연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5)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에 관한 연구」 - 유경희(1992)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에 관한 연구」는 안제승 교수의 한국무용 분류법에 의하여(산대, 농악, 무속, 승무, 기방무의 다섯 가지 계열) 춤사위의 용어와 설명을 해설하였으며, 춤사위를 특징별로 본 춤사위, 상·하체 춤사위, 공통되는 춤사위 순으로 도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춤사위 용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어떠한 참고자료나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으며 통계에 의한 분석 역시 시각적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그대로 분석하고 있어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드러난다.

(6) 『한국의 전통춤』 - 정병호(2002)

『한국의 전통춤』은 저자가 1960년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약 30년간 전국 각지를 다니며 채록한 자료로 이론편, 실제편, 참고자료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춤사위 용어와 관련된 부분은 참고자료편의 춤사위 해설에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은 무속춤과 불교춤, 유교춤, 농악, 탈춤, 교방춤, 궁중 정재의 춤사위를 해설하고 있다.

여타 다른 연구들에 비해 여러 다양한 춤을 채록하였으며, 그 춤사위 용어가 방대하고 다채로운 방법, 예를 들자면 다양한 구전설화와 속설 속에서 그 춤사위의 의미를 발견하고 장단에 따른 춤사위 진행절차가 정리되어 있는 등 한국 전통춤의 개론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만,, 춤사위의 보존상 임의대로 명명한 춤사위 용어가 존재한다.

(7) 『한국무용 호흡법과 용어 해설』 - 서희주(2003)

『한국무용 호흡법과 용어 해설』은 박금슬(1982)의 춤사위 용어를 발전시킨 연구로 그 내용을 다시 하체, 상체, 전체동작으로 재구성하여 서술하였으며 하체에는 준비 자세와 발 딛는 법, 발 옮겨 놓는 법, 발 드는 법, 뛰는 법, 굽히는 법, 도는 법, 발 치는 법 등으로 서술하였고, 상체는 팔을 몸에 붙인 자세인 인체와 팔을 드는 자세, 팔을 앞으로 들고 있는 자세, 팔을 옆으로 들고 있는 자세, 팔수(팔을 위로 들고 있는 자세), 팔을 접는 자세, 팔을 내리는 자세, 팔을 열어주는 자세, 팔을 흔드는 자세, 팔로 어르는 법, 팔을 사용해서 머리 위로 휘감는 법(머리 사위), 팔을 교차시키는 법, 팔을 꺾는 법, 손목 꺾는 법, 손목 돌리는 법 등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전체동작은 구분 없이 기술하고 있다.

박금슬의 춤사위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그 체계를 하체와 상체, 전체동작으로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8) 『한국의 춤사위와 무보틀』 - 허순선(2005)

『한국의 춤사위와 무보틀』은 박금슬(1982)의 춤사위 연구를 분석하여 춤사위를 다른 동작과 연결하지 않고 독립된 동작에 용어를 한정시켜 그 형태를 명확히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횡격막을 중심으로 아랫(밑)몸사위, 윗몸사위 그리고 온몸 사위로 체계화하였다. 온몸 사위는 아랫몸에서 윗몸 사위 순서로 용어를 붙였으며, 말단부위 용어를 함께 기록하였다.

원래 한자로 된 용어를 한글로 순화하였고 2명사로 구전되어 온 용어를 1명사로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순서 나열은 양·홀·겹→머리·몸·손·팔·발·다리 등→앞·옆(오른쪽, 왼쪽)·뒤·엇·빋·위·아래·밖·안→큰·세·잔→사위용어→툭·툭·뿔·뿔·뿔·뿔·뿔·두루 거리·연풍대·앉음·누움·엎드림·섬·뿔·올림·내림 등→사위 또는 체 등의 순으로 배열하였다.

또한, 박금슬의 춤동작 연구를 바탕으로 춤사위 명칭과 함께 장단틀과 감정틀, 춤사위 틀로 눈길, 몸길 팔·다리 길, 춤길, 골반의 모양새, 머리·몸통·팔·다리·손·발 등의 춤사위 방향, 춤사위의 크기, 몸 부위 및 중심까지 기호를 만들어 표기하고 숨새틀(요소와 모양새), 춤길틀, 덧붙임틀을 제시하여 새로운 무보틀을 제안하여 체계화시킨 연구이다.

(9) 무용학 분야 용어 정비 - 대한무용학회

한국학술진흥재단(교육과학기술부)으로부터 기금을 받아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이루어진 연구로 대한무용학회가 그 용어의 구성 및 체계화를 담당하였다.

용어의 개수는 총 9434개로 많은 용어가 수록되어 있지만, 무용학의 용어 이전에 안무자의 이름과 협회의 명칭 등을 과도하게 수록하고 용어 선정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설명이 단편적이다. 또한, 중요무형문화재와 같은 한국 전통춤사위 용어가 누락되어 있으며 그 기준이 없어 체계성이 의심된다.

(10) 춤사위 용어 총람 - 아시아춤연구소(2013)

춤사위 용어 총람은 아시아춤연구소가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2012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작성된 연구용역으로 동래한량무(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4호), 동래고무(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0호), 동래학춤(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3호), 진주교방굿거리춤(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1호), 진주한량무(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3호), 진주포구락(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2호), 진주검무(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 승전무(중요무형문화재 제21호)를 지금까지 발표되어온 각 춤의 연구 자료 들을 근거로 서로 비교하며 춤사위를 논의하였다.

(11) 『영남 춤사위 용어 편람』 - 국립부산국악원(2013)

『영남 춤사위 용어 편람』은 2011년 9월에서 12월 사이 아시아 춤 연구소에서 수행한 국립부산국악원 연구 용역 ‘영남춤 춤사위 용어조사’ 보고서를 재구성한 것으로 영남지방의 무형문화재인 진주검무(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 승전무(중요무형문화재 제21호), 동래학춤(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3호), 동래고무(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0호), 동래한량춤(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4호), 진주한량무(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3호), 진주포구락(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2호), 진주교방굿거리춤(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1호), 날피북춤(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호), 살풀이(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9호)로 구성되어 있다.

춤사위 용어집의 내용 구성은 각 문화재에 관한 개관(연혁, 성립배경, 전승계보, 구성 및 내용, 장단 및 악기, 복식, 특징, 현재 문화재 전승 현황 및 가치)과 춤사위 용어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춤사위란 명칭은 현행 무보 상에 지칭하는 일련의 춤동작의 연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춤사위를 설명할 때에는 장단 속에서 순서상의 움직임을 먼저 설명하고, 머리, 몸통, 상체, 하체의 순으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각 춤의 춤사위는 표로 정리하였으며, 현재 전승되는 춤사위를 기준으로 하였고 한 종목에 특징적인 춤사위를 기준으로 수록하되, 반복되는 춤사위는 한

번만 기재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춤사위 설명과 함께 특징적 소도구, 의미, 내용 그리고 분위기 등 필요한 요소를 부연 설명하였다.

2) 춤사위 용어 분석 연구

춤사위 용어 분석 연구는 춤사위 용어 해설 연구를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을 피력한 연구로 정병호(1984)의 「춤사위 고」, 허연희(1986)의 「궁중무용의 춤사위 연구 및 전승 문제」, 이은주의 「한국무용 용어에 관한 연구」(1996)와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의 표준화 방안에 관한 연구」(1997), 손선숙(2008)의 「궁중정재 용어연구」, 이유진(2009)의 「한국무용교육을 위한 디딤 용어에 관한 연구」 등이 있으며 최근의 연구로는 이순지(2014)의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 체계화 방안」 등이 있다.

(1) 「춤사위 고」 - 정병호(1984)

「춤사위 고」는 한국춤의 맥락과 유형 그리고 춤사위의 생성요인과 구조, 상징성과 특징 등을 연구한 논문으로 춤사위 생성요인을 사물과 노동의 모방적 요인과 지역적 환경에 따른 요인, 춤의 기능에 따른 요인으로 서술하였으며, 춤사위의 구조를 춤사위적 요소의 동작소와 조직 체계, 춤사위의 변화 등을 설명하였다.

한국춤의 생성요인과 구조를 분석하여 한국춤의 상징성과 유형, 특징을 분석하고 춤의 맥락을 읽어낸 것은 연구자의 30년이 넘는 채록 작업의 산물이나, 춤사위의 동작소와 그 변화 양상 등을 분석하여 체계화한 내용은 자칫 춤의 독자적 특성을 분절화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2) 「궁중무용의 춤사위 연구 및 전승 문제」 - 허연희(1986)

「궁중무용의 춤사위 연구 및 전승 문제」는 고문헌과 전문서적 그리고 정재관련 논문 및 시청각 자료 등을 바탕으로 연구자의 경험을 통해 정재의 춤

사위 용어를 춤의 구성용어와 기본 춤사위, 현존하고 있는 춤사위와 전승되지 않는 춤사위로 설명하였으며, 정재의 춤사위를 구조적, 의미적, 미학적으로 분석하여 민속춤과의 비교를 통해 원형보존과 전승 문제를 다루었다.

궁중무용 즉 정재를 춤의 구성용어와 기본 춤사위, 현존하고 있는 춤사위와 전승되지 않는 춤사위로 나누어 설명한 것은 정재의 구조를 반영한 체계적인 서술지만, 민속춤과의 비교 연구가 다른 부분의 연구에 비해 체계적이지 못하며 원형보존과 전승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루지 못하였다.

(3) 「한국무용 용어에 관한 연구」 - 이은주(1996)

「한국무용 용어에 관한 연구」는 용어의 현황 즉, 무용과 춤 용어의 일반적 사용 실태를 분석 조사하였고, 한국무용의 유형별 춤사위를 살펴보았으며, 이강노의 분류법(한자어와 우리말, 그리고 섞임 말 등으로 춤사위를 분석)과 춤사위 대별 분류법(신체부위별 분류(머리, 팔, 발, 다리, 응용) 계열별 분류(궁중, 민속, 의식, 창작))를 차용하여 동작군에 의한 춤사위 분류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극히 일부의 춤사위만 표준화할 수 있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4)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의 표준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은주(1997)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의 표준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춤사위 용어의 사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된 질적 연구로 대학생, 대학원생, 직업무용단 각각 30명씩 90명을 대상으로 4차에 걸쳐 설문조사와 VTR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춤사위 용어 인지도는 무용경력에 관계없이 매우 낮은 반면 필요성과 관심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춤사위를 보고 답하는 문제에서는 일관성이 없고 매우 산발적인 반응이 나타났다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춤사위 용어의 구성을 한자어, 국한문 혼용, 외래어, 우리말 등으로 분석하고 있었으며 한국무용임에도 외래어로 명명되는 춤사위 용어를 발견하였다.

한국무용 용어의 표준화를 위한 선행연구로 질문지와 VTR 등의 자료를 활용한 것은 참신한 연구방법이나 구체적으로 표준화 할 방안에 관한 연구가 존재하지 않으며 연구에 사용한 춤사위 용어 역시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5) 「궁중정재 용어연구」 - 손선숙(2008)

「궁중정재 용어연구」는 동일 정재용어의 해석 차이가 나는 이유와 정재용어가 동작, 공간이동, 대형변화, 방향, 진행 설명, 비유적인 내용, 무원 및 무구에 대한 내용임을 밝히며, 여러 연구자가 정재 용어를 춤사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문제를, 춘앵전과 교선무 그리고 정재에 나타난 인무의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재 용어라는 특성상 정재무도홀기라는 문헌에 대한 해석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용어 자체의 특성을 단순히 춤사위를 해석한 것에서 나아가 정재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정리한 내용이 매우 체계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6) 「한국무용교육을 위한 디딤 용어에 관한 연구」 - 이유진(2009)

「한국무용교육을 위한 디딤 용어에 관한 연구」는 춤사위 용어의 교육적 의미를 밝히고 한국무용 용어인 디딤의 특성과 종류, 분류 등을 통하여 ‘한국무용 교육용 기본 디딤 용어’를 제시하고 있다.

디딤이라는 기초적인 발디딤의 의미를 고찰하고 현행의 디딤 용어를 표준화하였다는 점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7)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 체계화 방안」 - 이순지(2014)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 체계화 방안」은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의 체계화를 위해 한국무용 기본 춤사위를 추출하고 춤사위의 특성과 범위를 함축하는 용어를 정리한 후 춤사위 용어 사용의 확장체계의 기초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춤사위 용어를 인간의 기본적인 움직임에 기초해서 아랫몸 사위(기본자세, 디딤 사위, 굽힘 사위, 걸음 사위, 꿇음 사위, 땀 사위, 땀 사위, 앉음 사위)와 윗몸 사위(모음 사위, 감는 사위, 내림 사위, 올림 사위, 굽힘 사위, 메는 사위, 젓힘 사위, 옆음 사위)로 구분하여 기본 춤사위 용어를 정리하고 춤사위의 특성과 범위를 함축하는 용어를 동작성(걸음, 땀, 땀, 앉음, 굽힘, 펴, 옆음, 젓힘) 시간성(속도) 그리고 공간성(신체부위, 공간이동, 방향)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춤사위 용어를 동작성에 해당하는 기본 춤사위 용어와 공간성과 시간성에 해당하는 용어를 결합하여 확대할 수 있는 기본구조를 확립하였다.

춤사위 용어 사용의 확장체계 기초를 구축하는데 의미가 있으나 구체적인 체계화 방안이 없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3. 춤사위 용어의 개념

춤사위 용어의 개념을 규명하기에 앞서 우선 춤사위의 분석틀을 표기법과 분석법의 관점에서 살펴보았고 그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용어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계통별 분석과 조어론적 분석을 사용하여 그 특징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춤사위 용어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1) 춤사위 분석틀

춤사위 분석틀을 살펴보는 이유는 춤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춤사위 용어가 표상하는 내용과 가치를 밝히고자 하는 데에 있으며, 분석틀 속에서 춤사위 용어의 사용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춤을 분석하고 기록하여 후대에 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첫째로는 춤사위 표기 즉 무보화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춤사위 즉 춤동작을 대상으로 한 분석 방법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춤사위 표기법

춤사위 표기법이란 춤사위를 기록하기 위해 만들어 낸 기보법의 총칭으로 우선 무보(舞譜)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개발한 특정 표기법이 존재한다.

한국의 무보로는 정재를 기록하고 있는 고려사 악지, 악학궤범, 조선 말기의 각 정재무도홀기와 시용무보 등이 있으며 북한에는 자모식 표기법이 있고 서양에는 라반이 개발한 라바노테이션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는 한국춤을 대상으로 한 임학선(1998)의 호홉표기법과 김지원(2006)의 화쟁론적 표기법, 채희완(2010)의 동작언어학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① 한국의 정재 무보²⁾

고려사 악지에는 당악정재 5종, 향악정재 3종의 무보가 있으며, 권 71에 수록된 무보에서는 춤추는 데에 쓰인 의관을 비롯하여 무구, 무원의 수, 연주된 곡, 춤사위, 춤의 진행과정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무보보다는 춤추는 과정을 설명한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악학궤범에는 고려사의 8가지 정재 무보와 당악정재 9종, 향악정재 10종의 무보가 존재한다. 권 4에는 시용당악정재도가 있으며, 권 5에는 시용향악정재도가 수록되어 있다. 그림으로써 의장대가 서는 위치, 죽간자가 서는 자리, 춤추는 사람의 배치 방법 등을 알 수 있으며, 춤사위가 설명되어 있다.

각 정재무도홀기에는 고려 이후 전하는 정재와 순조 이후의 정재 무보가 전한다. 무보 작성법은 악학궤범과 비슷하나 곡조 이름에 따라 수시로 이름을 새로 지어 쓰는 아명을 앞에 내세우고, 할주³⁾에서 원이름을 밝히며, 격박 대신 박의 용어로 구분하고, 악학궤범의 창사를 수악절 창사로 바꾸어 쓰고 있다.

2) 정병호(2002). 『한국의 전통춤』 무보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3) 서적에서 본문에 삽입하여 다는 주를 의미한다.

시용무보는 종묘제례 때의 일무인 보태평지무와 정대업지무를 보태평과 정대업의 악보에 맞추어 그린 그림으로 무보화되어 있는 단 하나의 귀중한 책이다.

② 자모식 표기법⁴⁾

북한의 자모식 표기법은 춤의 동작을 언어학에서의 자모법과 같이 설정하고,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한 단어를 이루듯 춤문자를 결합해 다양한 기호로 동작을 표기하고 있다. 이 자모식 표기법에는 형태 문자와 놀림 문자를 모음으로 놓고, 자리 문자와 방향 문자를 자음으로 표기하여 이 둘을 섞어 하나의 동작을 표기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라바노테이션⁵⁾

라바노테이션은 1920년대에 루돌프 폰 라반이 만든 움직임에 대한 기록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을 통해 무용을 기록하고 안무 보존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며 안무를 재현하는 데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라바노테이션은 공간, 시간, 에너지, 관련 신체 부위 등을 다루고 있으며 모티브 기록법과 에포트 웨입 기록법, 구조 기록법의 세 가지 양식으로 되어 있다.

우선 모티브 기록법은 어떤 움직임의 주제나 가장 두드러진 특색에 대해 설명하는 양식으로 움직임에서 나타나는 동기, 사상, 목적, 의도 등을 기술한다. 에포트 웨입 기록법은 힘의 강약(에포트)과 움직임의 형식 속에 내장된 표현성(웨입)을 언급하는 것으로 어떤 제스처의 경로나 무용수와의 관계, 공간상의 방향성 들과의 관계에 주목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조 기록법은 신체, 공간, 시간, 역동성을 표현하는 기록법으로써 움직임을 만드는 신체 부위를 바탕으로 방향, 높낮이, 거리를 표현하며, 공간, 박자, 지속시간 그리고 움직임의 질감, 즉 강함 무거움, 탄력 있음 강조됨 등을 묘사하여 기록한다.

4) 채희완(2012). 「영남예술의 미적세계 탐구를 위한 방법론의 모색」의 자모식표기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5) 앤허친슨(2004). 신상미·전유오 역. 『라바노테이션·키네토그래피 라반』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이 기록 양식들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춤의 구조적 측면, 특히 춤이 가진 안무구조를 나타내게 된다.

④ 호흡표기법 - 임학선(1998)⁶⁾

호흡표기법은 선표기법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점·선·원’을 이용한 그래프식의 표기법이다. 인체 내부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들숨과 날숨 호흡의 흐름은 부호의 모양으로 표기되며, 호흡의 흐름은 세 개의 수직선을 이용하여 표기된다.

호흡 표기법에는 공간과 시간 그리고 힘이 표기된다. 이는 들숨과 날숨의 변화와 크기, 시간과 리듬, 에너지의 흐름, 산소량 등이 다양한 부호로 표기되는 것이다. 즉 호흡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모양의 크기로 크거나 작게(공간), 또는 길거나 짧게(시간), 넓거나 좁게(산소량) 표기되며, 또한, 이는 기교에 의해 강하거나 약하게(힘) 표기되는 차이를 보인다.

⑤ 화쟁론적 표기법 - 김지원(2006)⁷⁾

화쟁론적 표기법은 한국춤 텍스트에서 숨겨진 구조를 찾고 이를 유형화 하여 의미체계를 정립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춤동작의 현상을 눈길, 호흡, 신체 부위별 움직임, 춤길로 나누어 한국 춤 동작의 이면에 숨겨진 구조와 의미를 코드화하고 각 코드를 한 도상에 종합하여 동작에 담긴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키네그라프를 만들었다. 그리고 각 동작에 담긴 의미를 체·용·상 체계(화쟁론적 관점)와 인접성과 유사성의 원리에 따라 춤사위를 체계적으로 해석하였다.

6) 임학선(1998). 「춤표기법에 관한 연구 1」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7) 김지원(2006). 「한국민속춤의 동작 코드와 의미체계에 관한 연구」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⑥ 동작언어학 - 채희완(2012)⁸⁾

동작언어학이란 일상언어를 음운론, 의미론 구문론 등으로 접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작을 그것에 비유하여 접근하는 형식을 일컫는다. 말하자면 언어학의 방식을 동작학으로 원용한 것으로 언어학에서 음소와 음절, 형태소, 단어, 구, 월, 단락을 춤사위 체계로 해석하여 움직임소, 움직임절, 동작단어, 동작구, 동작월, 동작단락으로 인식하고 있는 방식이다. 그 내용은 다음의 <표 1> 과 같다.

<표 1> 채희완의 동작언어학

언어의 범주와 체계	전통춤의 범주와 체계
음소 : 최소 소리음 단위	움직임소 : 박 단위의 움직임
음절 : 발화의 최소 단위	움직임절 : 기법상의 맺고, 어르고, 풀
형태소 : 어휘적 문법적 의미를 지니는 최소 단위	동작형태소 : (5가지) 맺는 형태소, 푸는 형태소, 어르는 형태소, 맺고 푸는 형태소, 연결 형태소
단어 : 어휘의 자립성을 가지고 문장구성의 기본 단위	동작단어 : 춤사위 명칭
구 : 단어의 결합	동작구 : 동작단어의 결합
월 : 종결어미를 갖고 의미의 완결성을 갖고 있는 단위	동작월 : 소마루
단락 : 의미의 유기성이 존재하는 문장 결합체	동작단락 : 한 마루

자료출처 : 송성아(2010), 「전통춤 기술의 논리와 체계적 범주」

8) 채희완(2012). 「영남예술의 미적세계 탐구를 위한 방법론의 모색」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2) 춤사위 분석법

춤사위 분석법이란 춤사위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방법의 총칭으로 이애주(1976)의 춤사위 범주화 분석과 박금슬(1982)의 춤동작 분석법, 정병호(1985)의 동작소 분석법, 이은주(1996)의 춤사위 동작군에 의한 분류 방법 등이 있다.

① 춤사위 범주화 분석 - 이애주(1976)⁹⁾

춤사위의 범주화란 이애주(1976)가 「춤사위 어휘고」에서 춤사위 용어를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체계화시킨 것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명명한 용어로 춤사위를 수집 채록하여 각 용어의 특성을 8가지 형태로 범주화한 것을 의미한다.

〈표 2〉 춤사위 범주화 분석

춤사위 범주화 분석	
① 인간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	
② 신체 부위를 사용한 춤사위	
③ 동작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	ㄱ. 몸을 굽히거나 숙임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
	ㄴ. 고개(목)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
	ㄷ. 팔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
	ㄹ. 발의 움직임과 걸음걸이를 사용한 춤사위
④ 감정을 형용하여 사용한 춤사위	
⑤ 동물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	ㄱ. 짐승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
	ㄴ. 조류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
	ㄷ. 기타(영물)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

→ 뒤에 계속

9) 이애주(1976). 「춤사위 어휘고」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⑥ 의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춤사위	ㄱ. 의태적인 표현을 사용한 춤사위
	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춤사위
⑦ 소도구와 의상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	ㄱ. 소도구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
	ㄴ. 의상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
⑧ 춤의 대형을 사용한 춤사위	

② 춤동작 분석법 - 박금슬(1982), 서희주(2003), 허순선(2005)¹⁰⁾

춤동작 분석법은 박금슬(1982)의 『춤동작』을 바탕으로 서희주(2003), 허순선(2005)이 정리한 내용을 춤사위 분석법의 한 예로 소개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명명한 용어이다. 한평생 춤을 추어 온 박금슬이 직접 춤사위 용어를 정립하고 체계화시켰다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후학들이 이어받아 재구성하여 독자적인 형식으로 발전시켰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박금슬은 춤동작을 동작의 기본과 특수명칭의 호, 예법을 서술하고 춤동작을 사위법, 돌체법, 상·중·하체 동작, 전체동작, 굽거리춤, 입춤, 전체동작 허튼타령, 살풀이로 체계화하였고 서희주는 박금슬의 춤동작 연구를 다시 하체, 상체, 전체동작으로 재구성하여 기존의 체계를 간소화하였으며, 춤동작의 용어는 박금슬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허순선의 경우 춤동작의 용어를 다른 동작과 연결하지 않고 독립된 동작에 용어를 한정시켜 순 한글로 순화하여 동작 형태를 명확히 표현하였으며, 춤동작을 횡격막을 중심으로 아랫(밑)몸사위, 윗몸 사위로 나누고 온몸 사위로 체계화하였다. 또한, 춤사위 명칭과 함께 장단틀과 감정틀, 춤사위 틀로 눈길, 몸길 팔·다리 길, 춤길, 골반의 모양새, 머리·몸통·팔·다리·손·발 등의 춤사위 방

10) 박금슬(1982). 『춤동작』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서희주(2003). 『한국무용호흡법과 용어해설』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허순선(2004). 『한국춤의 새로운 무보틀 연구』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향, 춤사위의 크기, 몸 부위 및 중심까지 기호를 만들어 표기하고 숨새틀(요소와 모양새), 춤길들, 덧붙임들을 제시하여 새로운 무보법을 제안하였다.

③ 동작소 분석법 - 정병호(1985)¹¹⁾

동작소 분석법은 정병호(1985)가 한국춤의 동작소를 평(平), 사(斜), 거(擧), 굴(屈), 합(合), 확(擴), 원(圓), 파(波), 연(連), 회(回), 도(跳)의 11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의 <표 3> 과 같다.

<표 3> 정병호의 한국춤 동작소

춤사위 유형	동작소 설명
평(平)	팔을 평행으로 유지하는 동작
사(斜)	두 팔을 사선으로 펴 올리는 동작
거(擧)	두 팔이나 한 팔을 위로 올리는 동작
굴(屈)	팔을 굽히는 동작
합(合)	움직임이 한 곳으로 모아지는 동작
확(擴)	동작을 사방으로 뿌려 확산시키는 동작
원(圓)	팔을 휘둘러 동그란 원선을 만드는 동작
파(波)	물결치듯이 팔을 휘젓는 동작
연(連)	장단과 장단 사이에서 동작을 이어주는 걸음걸이
회(回)	발을 기점으로 몸을 회전시키는 동작
도(跳)	경쾌하게 또는 무겁게 뛰는 동작

자료출처 : 정병호(1985), 『한국춤』

그리고 위의 동작소를 활용하여 동작구조체를 단일 동작소와 복합 동작소로 보고 유단소동작과 무단소동작, 동작맥과 동작군, 팔과 발의 유기적 관계, 동작소의 기본적 짜임새 등 다섯 가지 구조로 분석하고 있는 것을 일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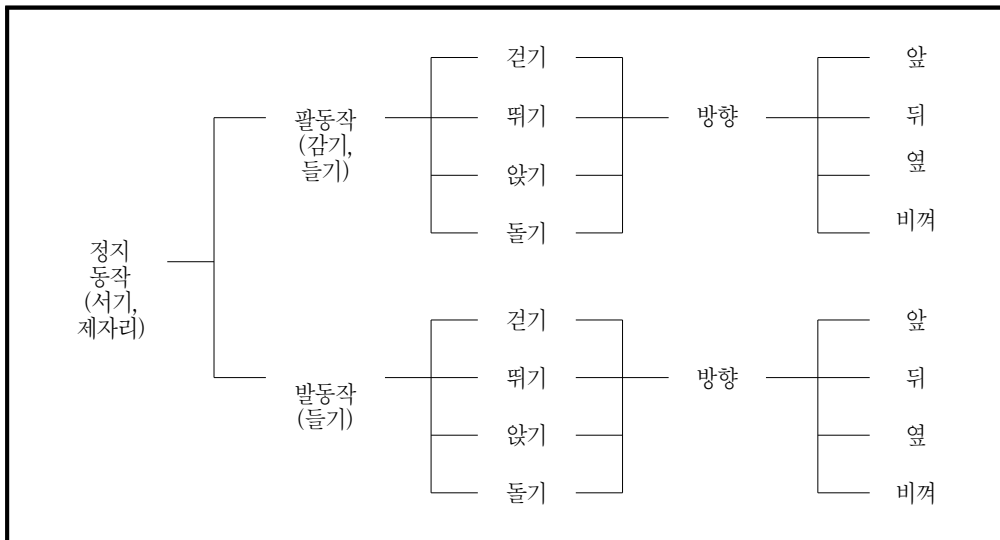
11) 정병호(1985). 『한국춤』의 동작소 분석법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정병호(2004). 『한국무용의 미학』의 동작소 분석법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단일 동작소는 어떠한 의미나 예술성을 가진 동작이 아니라 하나의 동작을 반복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복합 동작소는 동작소의 복합체이다. 유단소 동작과 무단소 동작은 동작구조의 측면에서 하나의 춤사위로 시작하여 그 시작과 끝의 분명성 여부를 가리키는 것이다.

동작맥은 표현하고자 한 정서를 가진 여러 춤사위를 결합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동작맥이 결합하여 동작군이 형성되는 것이다. 팔과 발의 유기적 관계는 팔과 발동작의 결합형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춤마다 그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동작소는 기본적으로 맺는형과 어르는 형, 그리고 푸는 형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술하였다.

④ 춤사위 동작군에 의한 분류 방법 - 이은주(1996)¹²⁾

춤사위 동작군에 의한 분류 방법은 신체부위별(머리, 팔, 발, 다리, 응용) 분류와 계열(궁중, 민속, 의식, 창작)별 분류를 사용하여 춤사위 용어를 분석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의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이은주의 춤사위 동작군에 의한 분류방법
 자료출처 : 이은주(1996), 「한국무용 용어에 관한연구」

12) 이은주(1996). 「한국무용 용어에 관한 연구」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2) 춤사위 용어의 형태

춤사위 용어의 형태상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용어학 연구방법인 계통 분석(한자어, 혼합어, 고유어, 외래어)과 조어론 분석(단일어, 파생어, 합성어)을 활용하여 그 형태를 살펴보았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춤사위 용어의 계통 분석

춤사위 용어의 계통 분석이란 용어학 연구방법인 계통 분석을 춤사위 용어 연구 형태에 차용한 것으로 춤사위의 한자어와 고유어, 혼합어, 외래어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춤사위 용어 자료들에 기록되어 있는 춤사위 용어 전체를 대상으로 계통별 특성을 분석해 보면 다음의 <표 4> 와 같다.

<표 4> 춤사위 용어의 계통별 특성¹³⁾ () 합계

형태	이애주(1976) 춤사위 어휘고	심우성(1982) 전통무용 용어의 연구	장사훈(1984) 한국무용개론	유경희(1992)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에 관한 연구	정병호(2002) 한국의 전통춤	합계
한자어	정재 67 탈춤 4 민속 6 (77)	정재 78 탈춤 13 민속 3 (94)	정재 117	탈춤 3 민속 5 농악 4 (12)	정재 163 탈춤 10 민속 11 농악 12 무속 5 불교 39 (240)	정재 425 탈춤 30 민속 25 농악 16 무속 5 불교 39 (540)
고유어	탈춤 60 민속 7 (67)	탈춤 114 민속 9 (123)	탈춤 25	탈춤 75 민속 59 농악 37 무속 35 (206)	정재 2 탈춤 94 민속 166 농악 78 무속 96 불교 20 (458)	정재 2 탈춤 368 민속 241 농악 115 무속 131 불교 20 (879)
혼합어	탈춤 8 민속 2 (10)	정재 5 탈춤 53 민속 5 (63)	정재 2 탈춤 5 (7)	탈춤 23 민속 18 농악 20 무속 18 (78)	정재 2 탈춤 13 민속 19 농악 46 무속 42 불교 16 (136)	정재 9 탈춤 102 민속 44 농악 66 무속 60 불교 16 (294)
외래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합계	154	280	149	296	834	1713

13) 구체적 춤사위 용어는 부록. 춤사위 용어의 분석 참고.

전체 1713개 춤사위 용어 중 한자어는 540개였으며, 고유어는 879개, 혼합어는 294개, 외래어는 없었다. 이는 한국 전통춤 춤사위 용어가 지니는 형태상의 특징으로 고유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한자어 역시 외래어라기보다는 선조들이 사용해온 문자로서 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혼합어 역시 외래어 혼합어가 아닌 고유어와 한자어의 결합으로써 우리 전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춤사위 용어의 계통별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계열별로 한자어와 고유어, 혼합어, 외래어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재의 춤사위 용어는 한자어가 425개였으며 고유어는 2개 혼합어는 9개, 외래어는 없었다. 한자어가 많은 이유는 정재라는 춤이 갖는 특성 때문이며 이는 궁중에서 연행 되어오던 춤이기에 그 춤사위 용어가 대부분 한자어로 기록되어 문헌으로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탈춤의 춤사위 용어는 한자어가 30개였으며, 고유어가 368개, 혼합어가 102개, 외래어는 없었다. 탈춤은 다른 계통의 언어보다 고유어가 많은 것이 특징인데, 이는 궁중의 정재와 달리 탈춤의 근원적 발생 배경이 민간의 탈놀음이었고 민중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춤사위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민속춤의 춤사위 용어는 한자어가 25개, 고유어가 241개, 혼합어가 44개, 외래어는 없었다. 민속춤 역시 탈춤과 마찬가지로 고유어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이는 앞서 설명한 내용처럼 민중들의 몸짓이 춤사위 용어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농악춤의 춤사위 용어는 한자어가 16개, 고유어가 115개, 혼합어가 66개로 고유어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이는 농경문화 양식을 그대로 춤사위 용어에 투영시킨 것이기에 고유어의 개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무속춤의 춤사위 용어는 한자어가 5개, 고유어가 131개, 혼합어가 60개, 외래어는 없었다. 무속춤 역시 다른 춤과 마찬가지로 고유어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그 근원적 배경이 민중들의 수복강녕을 기원한 주술적 춤으로 이러한 용어의 사용이 무속춤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불교춤의 춤사위 용어는 한자어가 39개, 고유어가 20개, 혼합어가 16개, 외래어는 없었다. 불교춤에서 한자어가 많은 것은 불교용어가 한자 용어로 되어있기 때문이며 춤사위 용어에 그 내용이 반영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정재와 불교춤에서 한자어의 사용이 두드러졌으며, 그 외의 다른 계열의 춤 즉 탈춤, 민속춤, 농악춤, 무속춤에서 고유어의 사용이 많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이러한 춤이 만들어지고 전승되었을 당시의 상황과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무엇보다 춤과 춤사위 용어의 생성원인과 관계가 깊은 춤사위 형태라 생각된다.

(2) 춤사위 용어의 조어론 분석

춤사위 용어의 조어론 분석이란 용어학 연구 방법인 조어론 분석을 춤사위 용어 형태 연구에 차용한 것으로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춤사위 용어 자료들에 기록되어 있는 춤사위 용어 전체를 대상으로 조어론적 특성을 분석해 보면 다음의 <표 5> 와 같다.

<표 5> 춤사위 용어의 조어론적 특성¹⁴⁾ () 합계

형태	이애주(1976) 춤사위 어휘고	심우성(1982) 전통무용 용어의 연구	장사훈(1984) 한국무용개론	유경희(1992)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에 관한 연구	정병호(2002) 한국의 전통춤	합계
단일어	없음	탈춤 7	탈춤 2	탈춤 2 민속 6 농악 4 (12)	탈춤 9 민속 8 농악 9 무속 3 (29)	탈춤 20 민속 14 농악 13 무속 3 (50)
파생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0
합성어	명사형 ()	정재 83 (5) 탈춤 173(160) 민속 17 (14) (273)	정재 119(2) 탈춤 28(28) (147)	탈춤 99(96) 민속 76(71) 농악 57(53) 무속 52(52) (284)	정재 167 (4) 탈춤 108 (98) 민속 188(177) 농악 127(115) 무속 140(135) 불교 75 (36) (805)	정재436 탈춤480 민속296 농악184 무속192 불교 75 (1663)
합계	154	280	149	296	834	1713

14) 구체적 춤사위 용어는 부록. 춤사위 용어의 분석 참고.

전체 1713개의 춤사위 용어 중 단일어는 50개이고 파생어는 없으며, 합성어가 1663개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열별로 단일어와 파생어, 합성어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재의 춤사위 용어는 436개 용어를 단일어 없이 합성어인 한자형 425개, 합성어 명사형 11개로 설명하고 있으며, 탈춤의 춤사위 용어는 단일어 20개 용어를 제외한 480개 용어를 합성어인 한자형 30개, 합성어 명사형 450개로 설명하고 있다. 민속춤의 춤사위 용어는 단일어 14개 용어를 제외한 296개 용어를 합성어인 한자형 25개, 합성어 명사형 271개로 설명하고 있으며, 농악의 춤사위 용어는 단일어 13개 용어를 제외하고 184개 용어 모두를 합성어인 한자형 16개, 합성어 명사형 168개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무속춤의 춤사위 용어는 단일어 3개 용어를 제외하고 192개 용어를 합성어인 한자형 5개, 합성어 명사형 187개로 설명하고 있으며, 불교춤의 춤사위 용어는 단일어 없이 75개의 용어를 합성어인 한자형 39개, 합성어 명사형 36개로 모든 춤사위를 설명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정재와 불교춤은 단일어 없이 합성어인 한자형과 합성어 명사형으로 춤사위 용어 모두를 설명하고 있으며, 다른 계열의 춤 즉 탈춤과 민속춤, 농악춤, 무속춤은 일부 단일어를 제외하고 모두 합성어인 한자형과, 합성어 명사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한국 전통춤 춤사위 용어가 지니는 형태상의 특성으로 단일어 보다는 합성어의 형식으로 춤사위 용어를 표현하였으며, 합성어에서도 한자어를 제외한 모든 합성어가 명사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전문 용어의 형태적 특징임과 동시에 동사형으로 춤사위를 표현하기보다는 명사적 구용어를 활용한 것으로 ‘~춤’, ‘~사위’ 등으로 대표되는 춤사위 용어 술어 사용의 특징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춤사위 용어가 표준화될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 용어의 발전과 관계가 깊은 춤사위 형태라 생각된다.

3) 춤사위 용어의 의미

한국 전통춤은 구전으로 전승되는 특성상 유형별로 춤사위의 명칭이 있으며, 춤의 움직임은 기술과 방법, 동작의 명칭을 전달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이은주, 1997). 이러한 춤사위 용어는 동작의 원리를 표상하고 있어 춤의 역사와 분포, 유형, 기능과 특징 등을 담고 있으며(배정혜, 2004), 문화유산으로써 한국인의 정서와 사상, 철학이 반영된 고유체계라고 할 수 있다(이유진, 2009). 즉 춤사위는 그 자체로서 문화적 의미와 가치가 함축된 것이다(이유진, 2009).

앞서 춤사위의 분석틀과 춤사위의 형태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춤사위 용어는 그 분석의 기준이 되며 근간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춤의 순간성으로 인해 움직임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정확하게 기록할 수 없는 문제에(신상미, 1998) 실마리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시적 형체가 남지 않는 춤을 어떻게 기록하여 학문의 연구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으로 이는 비문자 언어 또는 비발성 언어를 어떻게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채희완, 2012).

또한, 단지 춤사위 용어가 춤동작과 춤사위만을 표상하는 것에서 나아가 새로운 의미체계를 형상화하는 것으로써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존의 이론적 체계를 바탕으로 춤사위 용어를 재정립하고 표준화해야 하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Ⅲ. 춤사위 용어의 특성

춤사위 용어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춤사위 용어 자료를 대상으로 자료별 특성과 해석 기준, 범주화 특성, 서술상의 특성을 살펴 각각 중요무형문화재와의 연계성, 무용계의 연구실태, 춤사위 용어의 표기 형태, 해설 형태 등을 규명해 보았다.

1. 춤사위 용어의 자료별 특성

춤사위 용어의 자료별 특성을 살피기 위해 춤사위 용어 자료들의 연구자별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요무형문화재와의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1) 춤사위 연구자별 특성 분석

춤사위 용어 자료가 연구되었을 당시의 연구자별 환경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이애주(1976)의 「춤사위 어휘고」는 저자가 서울대 국문학과 학생으로 춤사위 용어를 정리하고 분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춤사위 용어라는 명칭 대신 어휘라는 단어로 춤사위를 명명하며 나아가 그 유형을 분석하고 계통분석(한자어, 고유어)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우성(1982)의 『전통무용 용어의 연구』는 1975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 자료를 재편집한 것으로 이애주(1976)의 논문과 같은 시기에 진행된 연구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결과 연구의 성과물인 춤사위 용어와 해설을 공유하고 있었다.

장사훈(1984)의 『한국무용개론』의 특성은 정재의 춤사위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저자인 장사훈이 국악 학자로서 고 문헌을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이며, 민속춤의 분야에서 그 대표적 춤사위만을 정리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경희(1992)의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을 당시 저자는 경희대 석사과정 학생으로 안제승 박사의 계열별 춤 분류에 따라 춤사위 용어를 서술하고 있지만, 그 용어의 명칭과 해설은 기존의 정병호 연구들에 나타난 춤사위 용어와 해설을 참고하고 있어 그 내용이 정병호의 연구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병호(2002)의 『한국의 전통춤』의 경우 저자가 다양한 춤과 방대한 춤사위 용어를 수집·채록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1세대 무용학자 이자 문화재위원으로서의 활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그의 이러한 연구 결과가 한국춤의 역사이자 이론적 토대가 되었음을 생각해 볼 때 가능한 작업이었다. 그러나 춤사위 보존을 위해 임의상 사용한 용어가 존재하여 춤사위 연구의 가치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자별 특성을 바탕으로 춤사위 자료의 용어 개수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6> 과 같으며, 그 내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표 6> 춤사위 용어의 개수(계열을 중심으로)

	이애주(1976) 춤사위 어휘고	심우성(1982) 전통무용 용어의 연구	장사훈(1984) 한국무용개론	유경희(1992)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에 관한 연구	정병호(2002) 한국의 전통춤	합계
정재	67	83	119	X	167	436
탈춤	72	180	30	101	117	500
민속춤	15	17	X	82	196	310
농악춤	X	X	X	61	136	197
무속춤	X	X	X	52	143	195
불교춤	X	X	X	X	75	75
합계	154	280	149	296	834	1713

우선 어휘의 총수는 1713개로 춤사위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료는 『한국의 전통춤』(834개)이었으며,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에 관한 연구」(296개), 『전통무용 용어의 연구』(280개), 「춤사위 어휘고」(154개), 『한국무용개론』(149개)의 순이었다.

또한, 계열별로 춤사위 용어의 개수를 살펴보면 탈춤 500개, 정재 436개, 민속춤 310개, 농악춤 197개, 무속춤 195개, 불교춤 75개의 순이었다. 탈춤의 경우 모든 자료에서 연구됐으며, 정재와 민속춤은 각각 4개의 자료에서 연구되었고 농악춤과 무속춤은 2개의 자료에서, 불교춤의 경우 1개의 자료에서만 연구되었다.

정재의 경우 이해주(1976)의 「춤사위 어휘고」(67개), 심우성(1982)의 『전통무용 용어의 연구』(83개), 장사훈(1984)의 『한국무용개론』(119개), 정병호(2002)의 『한국의 전통춤』(167개)에서 연구되었으며 춤사위 용어는 전체 436개였다.

탈춤의 경우 이해주(1976)의 「춤사위 어휘고」(72개), 심우성(1982)의 『전통무용 용어의 연구』(180개), 장사훈(1984)의 『한국무용개론』(30개), 유경희(1992)의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에 관한 연구」(101개), 정병호(2002)의 『한국의 전통춤』(117개)에서 연구되었으며 춤사위 용어는 전체 500개였다.

민속춤의 경우 이해주(1976)의 「춤사위 어휘고」(15개), 심우성(1982)의 『전통무용 용어의 연구』(17개), 유경희(1992)의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에 관한 연구」(82개), 정병호(2002)의 『한국의 전통춤』(196개)에서 연구되었으며 춤사위 용어는 전체 310개였다.

농악춤의 경우 유경희(1992)의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에 관한 연구」(61개), 정병호(2002)의 『한국의 전통춤』(136개)에서 연구되었으며 춤사위 용어는 전체 197개였다.

무속춤의 경우 유경희(1992)의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에 관한 연구」(52개), 정병호(2002)의 『한국의 전통춤』(143개)에서 연구되었으며 춤사위 용어는 전체 195개였다.

불교춤의 경우 정병호(2002)의 『한국의 전통춤』에서 연구되었으며 춤사위 용어는 전체 75개였다.

춤사위 용어 연구는 연구의 깊이와 진행 정도에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이렇듯 시간의 경과에 따라 춤사위 용어의 개수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종목별로도 더 다채로워지고 있다. 이는 일면 중요무형문화재 제도의 정착과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의 연관성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 춤사위 용어자료의 연관성을 살피기에 앞서 중요무형문화재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요무형문화재는 현재(2014년 3월 기준) 127개 종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순수 춤 종목¹⁵⁾은 7개이며(제12호 진주검무, 제21호 승전무, 제27호 승무, 제39호 처용무, 제40호 학연화대합설무, 제92호 태평무, 제97호 살풀이춤), 음악에 포함된 것은 2개 종목(제1호 종묘제례악, 제11호 농악), 연희는 14개 종목(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제3호 남사당놀이, 제6호 통영오광대, 제7호 고성오광대, 제15호 북청사자놀음, 제17호 봉산탈춤, 제18호 동래야유, 제34호 강령탈춤, 제43호 수영야유, 제49호 송파산대놀이, 제61호 은율탈춤, 제69호 하회 별신굿, 제73호 가산오광대, 제79호 발탈), 놀이 1개 종목(제8호 강강술래), 의식 10개 종목(제9호 은산별신제, 제13호 강릉단오제, 제50호 영산제, 제70호 양주소놀이굿, 제71호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제72호 진도씻김굿, 제82-1호 동해안 별신굿, 제82-2호 서해안 별신굿, 제82-4호 남해안 별신굿, 제90호 황해도 평산 소놀이굿, 제98호 경기도도당굿, 제04호 서울새남굿)으로 총 34개 종목에 분포하고 있다.

춤사위 용어 자료들은 이 중 연희 4개 종목(제61호 은율탈춤, 제69호 하회 별신굿, 제73호 가산오광대, 제79호 발탈), 놀이 1개 종목(제8호 강강술래), 의식 3개 종목(제9호 은산별신제, 제13호 강릉단오제, 제70호 양주소놀이굿)을 제외하고 26개 종목의 28개 춤을 연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의 <표 7> 과 같다.

15)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의 유형분류(문화유산정보)를 근거로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을 구분하였음.

〈표 7〉 춤사위 자료의 구성(중요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중요무형 문화재	이애주(1976) 춤위 어휘고	심우성(1982) 전통무용 용어의 연구	장사훈(1984) 한국무용개론	유경희(1992)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에 관한 연구	정병호(2002) 한국의 전통춤
제1호 종묘제례악 (1964.12.7)★	종묘제례악 (보태평지무, 정대업지무)	종묘제례악 (보태평지무, 정대업지무)	일무		유교춤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1964.12.7)◆	양주별산대놀이	양주별산대	민속춤·탈춤	산대계열	양주산대
제3호 남사당놀이 (1964.12.7)◆				산대계열	탈춤
제6호 통영오광대 (1964.12.24)◆	통영오광대	통영오광대 놀이	민속춤·탈춤	산대계열	탈춤
제7호 고성오광대 (1964.12.24)◆	고성오광대	고성오광대	민속춤·탈춤	산대계열	탈춤
제11호 농악 (1966.6.29)●				농악계열	농악
제12호 진주검무 (1967.1.16)■	진주검무	진주검무		기방계열	교방춤
제15호 북청사자놀음 (1967.3.31)◆				산대계열	탈춤
제17호 봉산탈춤 (1967.6.16)◆	봉산탈춤	봉산탈춤	민속춤·탈춤	산대계열	탈춤
제18호 동래야유 (1967.12.21)◆	동래야유	동래 들놀음	민속춤·탈춤	산대계열	탈춤
제21호 승전무 (1968.12.21)■	승전무	승전무		기방계열	
제27호 승무 (1969.7.4)■	승무	승무		승무계열	교방춤
제34호 강령탈춤 (1970.7.22)◆	강령탈춤	강령탈춤	민속춤·탈춤	산대계열	탈춤
제39호 처용무 (1971.1.8)★	처용무	처용무			궁중 정재
제40호 학연화대합설무 (1971.1.8)★	학무	학무			궁중 정재
제43호 수영야유 (1971.2.24)◆	수영야유	수영 들놀음	민속춤·탈춤	산대계열	탈춤
제49호 송파산대놀이 (1973.11.11)◆	송파산대놀이	송파산대놀이	민속춤·탈춤	산대계열	탈춤
제50호 영산재 (1973.11.5)▲					불교춤
제71호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1980.11.17)▼				무속계열	무속춤
제72호 진도씻김굿 (1980.11.17)▼			민속춤·탈춤	무속계열	무속춤
제82-1호 동해안 별신굿 (1985.2.1)▼				무속계열	무속춤

→ 뒤에 계속

제82-2호 서해안 별신굿 (1985.2.1)▼				무속계열	무속춤
제82-4호 남해안 별신굿 (1987.7.1)▼					무속춤
제90호 황해도 평산 소놀이굿 (1988.8.1)▼					무속춤
제92호 태평무 (1988.12.1)■					교방춤
제97호 살풀이춤 (1990.10.10)■				기방계열	교방춤
제98호 경기도 도당굿 (1990.10.10)▼				무속계열	무속춤
제104호 서울새남굿 (1996.5.1)▼					무속춤
그 외			정재		궁중 정재

※ 범례의 구성

★정재(3) ◆탈춤(9) ■민속춤(5)
●농악춤(1) ▼무속춤(8) ▲불교춤(1)

===== 자료의 연구 종료시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애주(1976)와 심우성(1982)의 경우 정재로 종묘제례악(보태평지무, 정대업지무), 처용무, 학무 등의 춤사위 용어를 소개하였고, 탈춤으로 양주별산대,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봉산탈춤, 동래야유, 강령탈춤, 수영야유, 송파산대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민속춤으로 승무와 진주검무, 승전무를 설명하였다.

장사훈(1984)은 정재로 종묘제례악(보태평지무, 정대업지무), 정재의 일반 춤사위로 설명하였고 탈춤으로 양주별산대, 봉산탈춤, 송파산대, 동래야유의 대표적인 춤사위를 모아 설명하였으며, 무속춤으로 진도씻김굿의 춤사위 용어를 설명하였다.

유경희(1992)는 탈춤을 산대계열로 명명하고 봉산탈춤, 양주별산대, 강령탈춤, 야유와 오광대, 북청사자놀이, 남사당놀이, 송파산대놀이를 모아서 설명하였다. 민속춤을 승무계열로 한영숙 승무와 이매방 승무를 설명하였고, 기방계열로 한영숙 살풀이, 이매방 살풀이, 김숙자 살풀이, 진주검무, 승전무의 춤사

위를 모아 설명하였다. 농악춤은 농악계열로 발림춤, 부포놀이, 장구춤, 쌍북채로 추는 춤, 외북채로 추는 춤, 채상모 소고춤, 농악 무동춤 등의 춤사위 용어를 모아 설명하였으며, 무속춤은 무속계열로 진오귀굿과 도당굿, 동해안 무무, 제주도 무무, 서해안 무무, 부산무무를 춤사위 용어로 모아 설명하였다.

정병호(2002)는 정재로 유교춤(문무, 무무)과 처용무, 학춤, 정재의 일반 춤사위를 설명하였고 탈춤으로 양주별산대와 송파산대, 봉산탈춤, 강령탈춤, 야유오광대, 북청 사자놀이, 남사당 덧뵈기의 춤을 설명하고 있다. 민속춤으로는 김숙자류 살풀이와 한영숙류 살풀이, 이매방류 살풀이, 한영숙류 승무, 이매방류 승무, 강선영류 태평무와 진주검무의 춤사위를 설명하고 있으며, 농악춤은 쇠꾼춤의 춤사위(발림춤, 부포놀이), 장구춤 춤사위, 북춤 춤사위(외북채로 추는 춤, 쌍북채로 추는 춤), 소고춤 춤사위(채상모 소고춤, 고깔 소고춤), 무동춤 춤사위(평택농악의 무동춤, 이천농악의 무동춤, 강릉농악의 무동춤, 부여농악의 무동춤, 진도농악의 무동춤, 보편화된 무동춤)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무속춤은 지역에 따라 세부적으로 수원 무속춤, 서울 무속춤, 용진 무속춤, 함흥 무속춤, 강릉 무속춤, 평양 무속춤, 영덕 무속춤, 통영 무속춤, 부안 무속춤, 진도 무속춤, 부산 무속춤, 제주 무속춤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불교춤은 나비춤(기본 춤사위, 향화계 사방요신, 도량계), 바라춤, 범고춤으로 설명하였다.

앞의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연구 자료들은 다양한 춤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연구 종료 시점이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시점과 동일함을 발견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애주(1976)의 「춤사위 어휘고」와 심우성(1982)의 『전통무용 용어의 연구』의 최종 연구 대상인 송파산대놀이의 중요무형문화재(제49호) 지정시기가 1973년인 점과 장사훈(1984)의 『한국무용개론』의 진도씻김굿(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 1980년 지정) 춤사위 용어 연구, 유경희(1992)의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에 관한 연구」의 경기도 도당굿(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 1990년 지정)의 춤사위 용어 연구, 정병호(2002)의 『한국의 전통춤』의 서울 새남굿(중요무형문화재 제104호 1996년 지정)의 춤사위 용어 연구 등을 통해 연구 대상인 춤사

위 용어 자료가 중요무형문화재 제도의 지정과 발전에 관계가 깊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전통춤의 용어 연구가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전·후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탈춤이 가장 많이 연구되어온 이유 역시 중요문화재 종목으로 가장 많은 종목이 지정되었기 때문이고(28종목 중 9종목으로 가장 많음) 그 인정을 받은 시기가 가장 오래되었기에(1973년 이전에 탈춤 9종목 모두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인정됨) 대부분의 연구에서 탈춤의 용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춤사위 용어는 중요무형문화재 제도의 정착과 성장을 증명하는 사료로서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꾸준한 학술 활동으로 다양한 분야의 춤사위 용어를 수집·채록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2. 춤사위 용어의 해석 기준

춤사위 용어 자료의 해석 기준은 춤사위 계열을 바탕으로 하여 각 자료가 서술하고 있는 해석의 기준을 살펴보았으며, 그 특성을 정리하여 춤사위 연구의 해석 기준을 밝혀 무용계의 연구 실태를 분석해 보았다.

1) 춤사위 계열별 해석 기준 분석

춤사위 용어의 해석 기준을 춤사위 계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재

정재의 해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애주(1976)의 경우 종묘제례악은 1974.3~1974.10동안 김천홍에게 전수받았으며, 이주환(1956)의 『시용무보해제』와, 『악학궤범』, 『시용무보』에 기록된 것을 수집하였다. 학무는 1972.1~1974.9까지 한영숙에게 전수를 받았으며, 처용무는 1970.3~1974.9까지 김천홍에게 전

수받고, 성경린(1947)의 『조선의 아악』을 참고 하였으며, 이해구(1957) 『한국 음악연구』을 활용하여 춤사위 용어를 서술하였다.

심우성(1982)의 경우 해석의 기준이 정확하게 어떤 저서와 논문을 근거로 해석하였다는 기록은 없으나, 본 저서를 1975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을 재편한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이에 용어 채록 작업을 함께한 사람으로 서연호, 이애주, 손진책, 주재환을 거론하며 현장답사를 통한 예능보유자의 구술 자료를 2~3차에 걸쳐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용어를 채록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장사훈(1984)의 경우 『악학궤범』 및 조선 말기의 각 『정재무도홀기』에 나오는 정재의 춤사위와 『시용무보』에 전하는 종묘제례 때 추던 일무를 가지고 춤사위 용어를 기술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정병호(2002)의 경우 유교춤은 장사훈(1977)의 『한국전통무용 연구』를, 궁중 정재는 장사훈(1984)의 『한국무용개론』을 참고하였으며, 학무와 처용무는 따로 명명한 것이 없었다.

요약하자면 정재의 경우 『악학궤범』과 『정재무도홀기』, 『시용무보』를 기준으로 그 해설서와 당시 재현된 춤사위를 기준으로 서술하고 있어 다른 춤에 비해 그 해석의 기준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2) 탈춤

탈춤의 해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애주(1976)의 경우 양주별산대는 1972.3~1973.10까지 유경성, 고영달에게 전수받았으며, 이두현(1969)의 『한국가면극』과, 심우성(1964)의 『양주별산대기초자료』, 김세중(1972)의 「한국민속극 춤사위 연구」를 참고 하였다. 통영오광대는 1974.10~1974.11까지 오정두와 문창섭에게 전수받았으며, 문창섭과의 대담(1974.10)을 통해 용어를 정리하였다. 통영오광대는 통영오광대연수회(1964) 자료를 참고로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고성오광대는 1974.10~1974.11까지 조용배와 허종복에게 전수받았고, 이두현·김천홍(1964) 『오광대』를 참고 하였으며, 조용배와의 대담(1974.11)을 활용하였

다. 봉산탈춤은 1971.4~1974.10까지 김선봉과 양소운 그리고 윤옥에게 전수받았으며, 김선봉과의 대담(1974.5~6)을 바탕으로, 김세중(1972)의 「한국민속극 춤사위 연구」를 참고 하였다. 동래야유는 1974.10~1974.12까지 문장항과 양형제에게 전수받았으며, 천제동의 『동래야유연구』(1973)와 『동래야유 연희본』(1974)을 참고 하여, 이동안과의 대담(1974.10)을 통해 춤사위 용어를 정리하였다. 강령탈춤은 1974.6~1974.9까지 양소운에게 전수받았으며, 강령탈춤 팜플렛(1971.7)과 왕석재(1972)의 『강령탈춤 대사』를 활용하여 춤사위 용어를 정리하였다. 수영야유는 1974.10~1974.12까지 정대윤에게 전수받았으며, 그와의 대담(1974.12)을 바탕으로 이두현(1970)의 『수영야유』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송과산대는 1973.3~1974.9까지 이호영에게 전수받았고, 허호영과의 대담(1973.7~9)을 바탕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74)의 『무용용어 심의안』을 근거로 춤사위 용어를 수집 채록하였다.

심우성(1982)의 경우 정재와 마찬가지로 어떤 저서와 논문을 근거로 해석하였다는 기록은 없었으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75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을 재편한 것이라 서술하고 현장 답사를 통한 예능보유자의 구술 자료를 2~3차에 걸쳐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용어를 채록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장사훈(1984)의 경우 해석의 기준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저서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춤사위 용어 중에 일부만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고 서술하고 있다.

유경희(1992)의 경우 김세중(1972)의 「한국민속극 춤사위 연구」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75)의 『전통무용 용어의 연구』, 김백봉(1976)의 『봉산탈춤 무보』, 김은경의 「남부가면무의 미적 연구」(1979), 「원양반춤과 말뚝이 춤사위에 대한 비교연구」(1979), 『한국민속무용 연구』(1982)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정병호(2002)는 자신의 저서인 『춤사위』(1981)를 바탕으로 김선봉·김종화(봉산탈춤), 양종승(강령탈춤), 이종만·이병옥(송과산대놀이), 홍상현(양주별산대놀이), 김은경(동래야유), 태덕수(수영야유), 허판세(고성오광대), 김홍중(통영

오광대)의 시범을 참고 하여 춤사위 용어를 정리하였다.

요약하자면 탈춤의 춤사위는 예능보유자와 전수자에 의해 구전된 춤사위 용어를 바탕으로 이전에 진행되었던 탈춤 관련 논문에 기준을 두고 춤사위 용어를 체계화하였다.

(3) 민속춤

민속춤의 해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애주(1976)의 경우 진주검무는 김수악과 김자진에게 1974.10~11까지 전수받았으며, 김수악(1974.11)과 김자진(1974.11)과의 대담을 통해 춤사위 용어를 정리하였다. 승전무는 정순남에게 1974.11~12까지 전수받았으며, 승무는 한영숙에게 1971.1~1974.9까지 전수받은 내용을 근거로 연구하여 춤사위 용어를 정리하였다.

심우성(1982)의 경우 해석의 기준은 없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5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을 재편한 것이라고 서술하였다.

유경희(1992)는 정병호(1985)의 『한국춤』과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81)의 『한국음악 무용 연극 사전』, 심우성(1975)의 『전통무용용어의 연구』의 자료를 근거로 춤사위 용어를 서술하였다.

정병호(2002)는 자신의 저서인 『무용』(1990)을 근거로 김운선과 양길순(김숙자 춤), 이애주와 정재만(한영숙 춤), 이매방과 김정녀, 임이조(이매방 춤), 강선영, 이현자(강선영 춤), 성계옥(진주검무)의 시범을 통해 춤사위 용어를 서술하였다.

민속춤 역시 탈춤과 마찬가지로 예능보유자와 전수자에 의해 구전된 춤사위 용어를 바탕으로 이전에 진행되었던 민속춤 관련 논문에 기준을 두고 춤사위 용어를 체계화하였다.

(4) 농악춤

농악춤 해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경희(1992)의 경우 정병호(1994) 『농악』을 참고 하였으며,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87)의 『한국의 축제』를 바탕으로 춤사위 용어를 서술하였다.

정병호(2002)는 자신의 저서인 『농악』을 참고하고 김문달(쇠춤), 김병섭(장구춤), 하보경과 박병천(북춤), 백남윤과 김방현(소고춤), 최윤향과 박기향(무동춤), 전경환(잡색춤) 등의 시범을 통해 춤사위를 정리하였다.

농악춤 역시 탈춤, 민속춤과 마찬가지로 예능보유자와 전수자에 의해 구전된 춤사위 용어를 바탕으로 이전에 진행되었던 농악춤 관련 논문에 기준을 두고 춤사위 용어를 체계화하였다.

(5) 무속춤

무속춤 해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경희(1992)의 경우 정병호(1988)의 「제주도의 성주풀이」와 강혜숙(1980)의 「제주도의 성주굿 무무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춤사위 용어를 서술하고 있으며, 정병호(2002)의 경우 자신의 저서인 『무무』(1987)와 이용우과 오정숙, 조한춘(수원 무속춤), 박어진과 이옥경(서울 무속춤), 김금화(용진 무속춤), 김영복과 김순화, 김영숙(함흥 무속춤), 박용녀, 신석남(강릉 무속춤), 이선호와 정대복(평양 무속춤), 송동숙과 김미향(영덕 무속춤), 정모연과 백정자, 박복개, 박복울(통영 무속춤), 박소녀(부안 무속춤), 박병천과 정숙자, 김대례(진도 무속춤), 김석출과 김유선, 김영희(부산 무속춤), 안사인과 양창수, 강도화, 김찬옥(제주 무속춤) 무당들의 시범을 근거로 춤사위 용어를 채록하였다.

무속춤 역시 앞서 설명한 춤과 마찬가지로 예능보유자와 전수자에 의해 구전된 춤사위 용어를 바탕으로 이전에 진행되었던 무속춤 관련 논문에 기준을 두고 춤사위 용어를 체계화하였다.

(6) 불교춤

불교춤 해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정병호 자신의 저서인 『춤사위』(1981)를 참고 하였으며, 임준동, 황은동, 김자은 스님의 시범을 기초로 춤사위 용어를 채록하였다고 기술하였다.

불교춤 역시 앞서 설명한 춤과 마찬가지로 예능보유자와 전수자에 의해 구전된 춤사위 용어를 바탕으로 이전에 진행되었던 불교춤 관련 논문에 기준을 두고 춤사위 용어를 체계화하였다.

2) 무용계의 연구 실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정재의 경우 해석의 기준이 고 무보인 『악학궤범』, 『정재무도홀기』, 『시용무보』로 기준이 명확한 데에 반해, 여타 다른 춤의 경우 해석의 기준을 예능보유자와 전수자에 의해 구전된 춤사위 용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대개 이전에 진행되었던 춤사위 관련 논문에 기준을 두고 춤사위 용어를 체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 연구 모두 199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연구로, 이에주와 심우성은 연구의 범위와 춤사위 용어를 공유하고 유경희는 정병호의 저서에 근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병호는 장사훈의 정재 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것을 통해 학자들 간에 연구 성과물을 공유하고 춤사위 용어를 정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춤사위 용어의 특성상 예능보유자와 전수자에 의해 구전된 춤사위 용어가 실제 사용되는 용어로서 그 현장성을 증명하는 자료이나 이전 연구물을 그대로 답습하는 연구 방법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차용으로 오기가 속출하고 원자료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춤사위 용어의 가치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원의 교수를 역임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제 40호 학연화대합설무 예능보유자인 이흥구는 손선숙의 『궁중정재 용어연구』의 서평에서 다음과 같이 무용계 연구환경의 폐쇄성을 밝히고 있는바 후학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정재를 추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문헌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정확히 왜 다른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다. 아니 왜 다른지에 대한 의문은 갖고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려고 어느 누구도 시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무용은 구전으로 전승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도제식 교육방식이었고 무엇보다 선생님의 가르침에 ‘왜 그렇지’하는 의문을 가지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솔직히 정재 해석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전승자들의 구전에 의한 해석을 인용 또는 수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스승에 대한 기본 도리라 생각하고 올바른 교육이라 여겼던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학문을 위하여 기존의 선행 학자들의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다른 학계와는 달리 무용학계에서는 그런 학문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 것도 이유이다(이흥구, 2009).

이렇듯 춤사위 용어를 연구하기에 앞서 요구되는 연구자의 자세는 춤사위 용어를 인용하고 사용할 때 해석의 기준을 우선 밝히는 태도이며 기존의 선행 학자들의 연구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연구 태도를 바탕으로 해석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논란의 여지를 불식시키고 앞으로의 춤사위 용어 연구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

3. 춤사위 용어의 범주화 특성

춤사위 용어의 범주화 분석은 이애주(1976)가 「춤사위 어휘고」에서 춤사위 용어를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체계화시킨 것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명명한 용어로 춤사위를 수집 채록하여 각 용어의 특성을 8가지 형태로 범주화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춤사위 용어 정리방안에 따라 ① 인간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 ② 신체 부위를 사용한 춤사위, ③ 동작의 움직임에 사용한 춤사위, ㄱ. 몸을 굽히거나 숙임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 ㄴ. 고개(목)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 ㄷ. 팔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 ㄹ. 발의 움직임과 걸음걸이를 사용한 춤사위, ㅁ. 몸 전체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 ④ 감정을 형용하여 사

용한 춤사위, ⑤ 동물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 ㄱ. 짐승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 ㄴ. 조류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 ㄷ. 기타(영물)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 ⑥ 의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춤사위, ㄱ. 의태적인 표현을 사용한 춤사위, 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춤사위, ⑦ 소도구와 의상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 ㄱ. 소도구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 ㄴ. 의상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 ⑧ 춤의 대형을 사용한 춤사위) 춤사위 용어 자료에 기술된 용어 모두를 다음의 <표 8> 과 같이 범주화하였으며, 그 특성을 정리하여 춤사위 용어의 표기 형태를 정리하였다.

<표 8> 춤사위 용어 범주화 분석(자료별)¹⁶⁾

() 합계

범주화	이애주(1976) 춤사위 어휘고	심우성(1982) 전통무용 용어의 연구	장사훈(1984) 한국무용개론	유경희(1992)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에 관한 연구	정병호(2002) 한국의 전통춤	합계	
①	탈춤 3	탈춤 50	없음	탈춤 17	없음	탈춤 (70)	
②	탈춤 16 민속 2 (18)	정재 2 탈춤 23 민속 1 (26)	정재 1 탈춤 1 (2)	탈춤 14 민속 1 (15)	정재 1 탈춤 17 민속 3 (21)	정재 4 탈춤 71 민속 7 (82)	
③	ㄱ	정재 1 탈춤 6 민속 1 (8)	탈춤 2	탈춤 3 민속 2 (5)	정재 2 탈춤 3 민속 2 무속 1 불교 3 (11)	정재 5 탈춤 19 민속 6 무속 1 불교 3 (34)	
	ㄴ	정재 3	정재 2 탈춤 1 (3)	없음	탈춤 1 농악 1 (2)	정재 7 탈춤 3 농악 2 (12)	
	ㄷ	정재 49 탈춤 12 민속 1 (62)	정재 51 탈춤 14 (65)	정재 84 탈춤 9 (93)	탈춤 14 민속 40 농악 11 무속 11 (76)	정재 95 탈춤 17 민속 105 농악 30 무속 77 불교 34 (358)	정재 279 탈춤 66 민속 146 농악 41 무속 88 불교 34 (654)
	ㄹ	정재 4 탈춤 2 민속 1 (7)	정재 11 탈춤 5 (16)	정재 8 탈춤 2 (10)	탈춤 8 민속 5 농악 3 무속 3 (19)	정재 17 탈춤 14 민속 27 농악 9 무속 12 불교 3 (82)	정재 40 탈춤 31 민속 33 농악 12 무속 15 불교 3 (134)

→ 뒤에 계속

16) 구체적 춤사위 용어는 부록. 춤사위 용어의 분석 참고.

③	口	정재 2 탈춤 5 (7)	정재 1 탈춤 8 민속 1 (10)	정재 5	탈춤 4 민속 11 농악 3 무속 8 (26)	정재 14 탈춤 6 민속 23 농악 9 무속 27 불교 17 (103)	정재 22 탈춤 23 민속 35 농악 12 무속 35 불교 17 (151)
④		정재 2	정재 1	정재 1	없음	정재 1	정재 (5)
⑤	ㄱ	탈춤 3	탈춤 7	없음	탈춤 4	탈춤 1	탈춤 (15)
	ㄴ	탈춤 4	정재 1 탈춤 4 민속 1 (6)	탈춤 1	탈춤 3 민속 3 농악 5 (11)	정재 1 탈춤 4 민속 5 농악 7 무속 2 불교 1 (20)	정재 2 탈춤 16 민속 9 농악 12 무속 2 불교 1 (42)
	ㄷ	탈춤 4	탈춤 5	탈춤 1	탈춤 6 민속 1 농악 1 (8)	탈춤 3 민속 1 농악 2 (6)	탈춤 19 민속 2 농악 3 (24)
⑥	ㄱ	탈춤 6 민속 2 (8)	정재 1 탈춤 10 민속 1 (12)	정재 1 탈춤 4 (5)	탈춤 5 민속 2 농악 1 (8)	정재 2 탈춤 18 민속 4 농악 7 무속 1 (32)	정재 4 탈춤 43 민속 9 농악 8 무속 1 (65)
	ㄴ	정재 2 탈춤 2 민속 1 (5)	정재 2 탈춤 33 민속 10 (45)	정재 10 탈춤 9 무속 1 (20)	탈춤 19 민속 9 농악 32 무속 24 (84)	정재 13 탈춤 26 민속 19 농악 52 무속 20 불교 10 (140)	정재 27 탈춤 89 민속 39 농악 84 무속 45 불교 10 (294)
⑦	ㄱ	탈춤 4 민속 1 (5)	탈춤 8	없음	탈춤 1 농악 4 무속 5 (10)	탈춤 2 농악 12 무속 1 불교 7 (22)	탈춤 15 민속 1 농악 16 무속 6 불교 7 (45)
	ㄴ	탈춤 1	탈춤 1	없음	민속 4 무속 1 (5)	무속 1	탈춤 2 민속 4 무속 2 (8)
⑧		정재 3 탈춤 5 민속 6 (14)	정재 10 탈춤 5 민속 2 (17)	정재 9	탈춤 2 민속 4 (6)	정재 21 탈춤 5 민속 5 무속 1 (32)	정재 43 탈춤 17 민속 17 무속 1 (78)
합계		154	280	149	296	834	1713

범주화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인간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는 70개였으며, ② 신체 부위를 사용한 춤사위는 82개였다. ③ 동작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는 총 985개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ㄱ. 몸을 굽히거나 숙임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는 34개, ㄴ. 고개(목)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는 12개, ㄷ. 팔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는 654개, ㄹ. 발의 움직임과 걸음걸이를 사용한 춤사위는 134개, ㅁ. 몸 전체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는 151개였다. ④ 감정을 형용하여 사용한 춤사위는 5개이며, ⑤ 동물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는 총 81개로 ㄱ. 짐승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 15개, ㄴ. 조류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 42개, ㄷ. 기타(영물)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 24개였다. ⑥ 의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춤사위는 총 359개로 ㄱ. 의태적인 표현을 사용한 춤사위는 65개, 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춤사위는 294개였다. ⑦ 소도구와 의상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는 총 53개로 ㄱ. 소도구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는 45개, ㄴ. 의상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는 8개, ⑧ 춤의 대형을 사용한 춤사위는 78개로 범주화되었다.

제일 많이 범주화된 부분은 인간에 관련된 용어로서 범주화된 ①, ②, ③의 1137개 용어로 구성되어 이애주의 연구와 그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중 ③ 동작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가 985개이며 특히 ㄷ. 팔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는 654개로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한국 전통춤이 호흡을 위주로 하여 하체를 강조한 하체 중심의 춤사위가 많을 것 같다는 예상과는 상이한 결과로 팔의 움직임이 더 세부적이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춤의 특성이 발의 움직임 못지않게 팔의 움직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많은 용어가 범주화된 부분은 ⑥ 의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춤사위 359개로 그중 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춤사위는 294개나 되는 것은 단순히 춤사위가 보는 그대로의 몸동작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에서 나아가 비유적인 표현과 의태적인 표현으로 춤사위를 형상화하고 있으며 선조들의 철학과 사상이 깃들여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자료를 통해 춤사위 용어가 춤의 내용을 표상하며 그 표현방식으로서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기존 학자들이 주장하는 한국 전통춤의 특성에 관한 수치화 되고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이론적 근거자료로서의 활용성을 발견하였다.

1) 춤사위 계열별 범주화 특성 분석

춤사위 용어의 범주화 분석을 춤사위 계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9> 와 같다.

<표 9> 춤사위 용어 범주화 분석(계열별)

범주화	정재	탈춤	민속춤	농악춤	무속춤	불교춤	합계	
①	x	탈춤 70	x	x	x	x	70	
②	정재 4	탈춤 71	민속 7	x	x	x	82	
③	ㄱ	정재 5	탈춤 19	민속 6	x	무속 1	불교 3	34
	ㄴ	정재 7	탈춤 3	x	농악 2	x	x	12
	ㄷ	정재 279	탈춤 66	민속 146	농악 41	무속 88	불교 34	654
	ㄹ	정재 40	탈춤 31	민속 33	농악 12	무속 15	불교 3	134
	ㅁ	정재 22	탈춤 23	민속 35	농악 19	무속 35	불교 17	151
④	정재 5	x	x	x	x	x	5	
⑤	ㄱ	x	탈춤 15	x	x	x	x	15
	ㄴ	정재 2	탈춤 16	민속 9	농악 12	무속 2	불교 1	42
	ㄷ	x	탈춤 19	민속 2	농악 3	x	x	24
⑥	ㄱ	정재 4	탈춤 43	민속 9	농악 8	무속 1	x	65
	ㄴ	정재 27	탈춤 89	민속 39	농악 84	무속 45	불교 10	294
⑦	ㄱ	x	탈춤 15	민속 1	농악 16	무속 6	불교 17	45
	ㄴ	x	탈춤 2	민속 4	x	무속 2	x	8
⑧	정재 43	탈춤 17	민속 17	x	무속 1	x	78	
합계	436	500	310	197	195	75	1713	

(1) 정재

춤사위 계열별로는 정재의 경우 ① 인간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는 없었으며, ② 신체 부위를 사용한 춤사위는 4개였다. ③ 동작의 움직임에 사용한 춤사위는 353개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ㄱ. 몸을 굽히거나 숙임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는 5개, ㄴ. 고개(목)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는 7개, ㄷ. 팔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는 279개, ㄹ. 발의 움직임과 걸음걸이를 사용한 춤사위는 40개, ㅁ. 몸 전체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는 22개로 표현하였다. ④ 감정을 형용하여 사용한 춤사위는 5개였으며, ⑤ 동물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는 2개로, ㄴ. 조류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였다. ⑥ 의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춤사위는 29개로 ㄱ. 의태적인 표현을 사용한 춤사위는 2개, 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춤사위는 27개이다. ⑦ 소도구와 의상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는 없으며, ⑧ 춤의 대형을 사용한 춤사위는 42개로 범주화되었다.

정재의 특징으로는 우선 한자어의 사용으로 ③-ㄷ. 팔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의 경우 손수(手)를 사용하였고, ③-ㄹ. 발의 움직임과 걸음걸이를 사용한 춤사위는 발족(足)을 사용하였으며, ④ 감정을 형용하여 사용한 춤사위는 기뻐환(歡)의 한자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① 인간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와 ⑤ 동물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 중 ㄱ. 짐승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와 ㄷ. 기타(영물)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 그리고 ⑦ 소도구와 의상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 용어가 없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정재는 궁중에서 추어진 춤으로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보여주기 위한 요소로서 동물적이고 활달한 움직임을 배제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정재에만 있는 춤사위인 ④ 감정을 형용하여 사용한 춤사위는 기뻐환(歡) 즉 기쁨을 춤으로 표현한 것으로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상의 차원에서 나아가 그 희로애락의 감정을 춤사위 용어로 표상하고 있는 것 역시 정재의 특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③ 동작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 중 ㄷ. 팔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정체가 공중에서 추어지던 춤이기에 발을 사용하여 도무하거나 몸을 놀리는 사위 보다 우아한 팔의 사용이 춤사위 대부분을 구성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⑧ 춤의 대형을 사용한 춤사위가 다른 계열의 춤사위보다 많은 것 역시 정체의 특징으로 독무가 아닌 단체의 군무로서 그 역할을 찾아볼 수 있으며, 각종 무보에 그림으로 기록되어 전승 된 경로를 통해 춤의 대형을 나타내는 춤사위가 많았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 탈춤

탈춤의 경우 ① 인간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는 70개이며, ② 신체 부위를 사용한 춤사위는 71개이다. ③ 동작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는 142개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ㄱ. 몸을 굽히거나 숙임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는 19개, ㄴ. 고개(목)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는 3개, ㄷ. 팔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는 66개, ㄹ. 발의 움직임과 걸음걸이를 사용한 춤사위는 31개, ㅁ. 몸 전체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는 23개로 표현하였다. ④ 감정을 형용하여 사용한 춤사위는 없었으며, ⑤ 동물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는 총 50개로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ㄱ. 짐승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는 15개, ㄴ. 조류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는 16개, ㄷ. 기타(영물)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는 19개였다. ⑥ 의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춤사위는 모두 132개로, ㄱ. 의태적인 표현을 사용한 춤사위는 43개, 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춤사위는 89개였다. ⑦ 소도구와 의상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는 총 17개로 ㄱ. 소도구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는 15개, ㄴ. 의상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는 2개였다. 마지막으로 ⑧ 춤의 대형을 사용한 춤사위는 21개로 범주화되었다.

탈춤은 ④ 감정을 형용하여 사용한 춤사위를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춤사위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여러 춤 계열 중 가장 많은 춤사위 용어가 연구된

이유와 관련이 깊으며 감정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다른 형식으로 표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탈춤만이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① 인간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와 ⑤-ㄱ. 짐승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이다. ① 인간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는 탈춤의 등장인물의 춤을 나타내는 것으로 유일하게 춤 중에 배역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극 형식의 춤을 의미하며 춤, 장면, 놀이, 마당, 춤사위 등으로 그 용어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⑤-ㄱ. 짐승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의 경우 다른 춤에서는 조류나 기타 영물로 춤사위 용어를 표현한 데에 반해 탈춤은 짐승들과의 관계성에 주목하며 원숭이, 범, 사자, 황소, 소 등의 춤사위를 흉내 내고 있다. 이는 농경사회의 특징이 드러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ㄷ. 기타(영물)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가 다른 계열의 춤에 비해 많은 까닭 역시 탈춤의 모방적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가장 많은 춤사위 용어가 드러난 것은 ⑥-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춤사위이며, 이는 탈춤의 비유적 표현이 잘 드러난 예로 직접적 표현과는 다르게 춤사위 형상의 모방적 특성을 보다 자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으로 춤사위 용어가 많은 부분은 ② 신체 부위를 사용한 춤사위로, 신체 부위를 단순히 팔, 다리의 차원에서 나아가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 까지 모든 신체 부위를 사용하는 도약적이고 활동적인 탈춤의 특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3) 민속춤

민속춤의 경우 ① 인간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는 없으며, ② 신체 부위를 사용한 춤사위는 7개이다. ③ 동작의 움직임에 사용한 춤사위는 총 220개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ㄱ. 몸을 굽히거나 숙임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는 6개, ㄴ. 고개(목)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는 없으며, ㄷ. 팔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는 146개, ㄹ. 발의 움직임과 걸음걸이를 사용한 춤사위는 33개, ㅁ. 몸 전체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는 35개로 표현하였다. ④ 감정을 형용하여 사

용한 춤사위는 없으며, ⑤ 동물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는 총 11개로 ㄱ. 짐승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는 없고, ㄴ. 조류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는 9개, ㄷ. 기타(영물)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는 2개이다. ⑥ 의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춤사위는 모두 48개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ㄱ. 의태적인 표현을 사용한 춤사위는 9개, 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춤사위는 39개이다. ⑦ 소도구와 의상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는 5개로 ㄱ. 소도구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는 1개, ㄴ. 의상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는 4개로 나타났다. ⑧ 춤의 대형을 사용한 춤사위는 17개로 범주화되었다.

민속춤은 ① 인간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와 ③-ㄴ. 고개(목)의 움직임에 사용한 춤사위, ④ 감정을 형용하여 사용한 춤사위, ⑤-ㄱ. 짐승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가 없다. 이 중 ③-ㄴ. 고개(목)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고개의 직접적인 움직임보다는 ③-ㄷ. 팔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와 ③-ㄱ. 몸 전체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 즉 전신의 동작으로 춤사위를 표현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⑦-ㄱ. 소도구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는 수건을 들고 추는 춤인 살풀이춤의 춤사위이며, ⑦-ㄴ. 의상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는 장삼을 입고 추는 승무 춤사위 용어의 특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농악춤

농악춤의 경우 ① 인간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는 없고, ② 신체 부위를 사용한 춤사위도 없다. ③ 동작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는 총 74개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ㄱ. 몸을 굽히거나 숙임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는 없고, ㄴ. 고개(목)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는 2개, ㄷ. 팔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는 41개, ㄹ. 발의 움직임과 걸음걸이를 사용한 춤사위는 12개, ㄱ. 몸 전체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는 19개로 표현하였다. ④ 감정을 형용하여 사용한 춤사위는 없으며, ⑤ 동물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는 총 15개로 ㄱ. 짐승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는 없고, ㄴ. 조류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는 12개, ㄷ. 기타(영

물)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는 3개이다. ⑥ 의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춤사위는 모두 92개로 각각 그 내용을 살펴보면 ㄱ. 의태적인 표현을 사용한 춤사위는 8개, 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춤사위는 84개, ⑦ 소도구와 의상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는 모두 16개로, ㄱ. 소도구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가 16개, ㄴ. 의상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 없었다. 그리고 ⑧ 춤의 대형을 사용한 춤사위 역시 없었다.

농악춤의 경우 ① 인간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와 ③-ㄱ. 몸을 굽히거나 숙임의 움직임에 사용한 춤사위, ④ 감정을 형용하여 사용한 춤사위, ⑤-ㄱ. 짐승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 그리고 ⑦-ㄴ. 의상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와 ⑧ 춤의 대형을 사용한 춤사위가 없었다. ③-ㄱ. 몸을 굽히거나 숙임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가 없는 것은 농악이 농경적인 동작 즉 온몸으로 활달하게 뛰고 흥을 돋우기에 절을 드리는 춤사위를 다른 형태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⑥-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춤사위가 많고 ⑦-ㄱ. 소도구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로서 장구와 북, 소고, 팽과리, 무동, 상모, 고깔, 인형 등을 활용한 춤사위가 많은 것이 특징인데 이는 농악춤의 특징상 농업의 고달픈 노동을 악기와 소도구를 통해 흥겹게 만드는 특성이 있으며 유희적 요소로 마을의 굿 형식을 대신하기에 매우 진취적이고 활달한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5) 무속춤

무속춤의 경우 ① 인간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는 없고, ② 신체 부위를 사용한 춤사위도 없다. ③ 동작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는 총 139개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ㄱ. 몸을 굽히거나 숙임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는 1개, ㄴ. 고개(목)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는 없으며, ㄷ. 팔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는 88개, ㄹ. 발의 움직임과 걸음걸이를 사용한 춤사위는 15개, ㅁ. 몸 전체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는 35개였다. ④ 감정을 형용하여 사용한 춤사위는 없었으며, ⑤ 동물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는 모두 2개로 ㄴ. 조류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였다. ⑥ 의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춤사위는 92개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ㄱ. 의태적인 표현을 사용한 춤사위는 8개, 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춤사위는 84개였다. ⑦ 소도구와 의상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는 총 16개로 ㄱ. 소도구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였다. ⑧ 춤의 대형을 사용한 춤사위는 1개로 범주화되었다.

무속춤의 특징은 ① 인간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와 ③-ㄱ. 몸을 굽히거나 숙임의 움직임에 사용한 춤사위, ㄴ. 고개(목)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 ④ 감정을 형용하여 사용한 춤사위, ⑤ 동물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 중 ㄱ. 짐승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와 ㄴ. 기타(영물)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무속춤이 ③-ㄱ. 몸을 굽히거나 숙임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와 ㄴ. 고개(목)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보다는 ㄴ. 팔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 ㄷ. 발의 움직임과 걸음걸이를 사용한 춤사위, ㄹ. 몸 전체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로 격정적으로 움직이고 발로 도무하며 전신의 동작으로 신을 영접하고 놀려 송신하는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⑥-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춤사위가 많은 이유는 무속춤 춤사위 용어 중 ‘~무관’과 같은 용어의 구전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⑦-ㄱ. 소도구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는 소도구로 무구인 바라, 부채, 칼, 신칼 등을 통해 접신하는 무속춤의 특징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6) 불교춤

불교춤의 경우 ① 인간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는 없고, ② 신체 부위를 사용한 춤사위도 없다. ③ 동작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는 모두 57개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ㄱ. 몸을 굽히거나 숙임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는 3개, ㄴ. 고개(목)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는 없으며, ㄷ. 팔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는 34개, ㄷ. 발의 움직임과 걸음걸이를 사용한 춤사위는 3개, ㄹ. 몸 전체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 17개였다. ④ 감정을 형용하여 사용한 춤사위는 없으며, ⑤ 동물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는 1개로 ㄴ. 조류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였다. ⑥ 의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춤사위는 모두 10개로, ㄱ. 의태적인 표현을 사용한 춤사위는 없었으며 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춤사위였다. ⑦ 소도구와 의상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는 17개로 ㄱ. 소도구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였다. ⑧ 춤의 대형을 사용한 춤사위는 없었다.

불교춤의 특징은 우선 정재와 같이 한자어 용어가 많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③-ㄱ. 몸을 굽히거나 숙임의 움직임에 사용한 춤사위는 몸을 숙이고 절을 드리는 절배(拜) 한자어가 자주 사용되었으며, ③-ㄷ. ㄷ. 발의 움직임과 걸음걸이를 사용한 춤사위는 발족(足) 한자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⑦-ㄱ. 소도구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는 소도구인 바라와 관련된 소리를 표현한 소리성(聲)과 바라를 잡는다는 잡을착(捉), 바라를 들고 돈다는 돌잡(匝) 등의 한자가 춤사위 용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그 부분의 용어를 대표하고 있다.

그리고 ① 인간의 명칭을 사용하여 사용한 말(단어)은 없으며, ③-ㄴ. 고개(목)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가 없고, ④ 감정을 형용하여 사용한 춤사위 그리고, ⑤-ㄱ. 짐승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 ⑥-ㄱ. 의태적인 표현을 사용한 춤사위, ⑦-ㄴ. 의상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 ⑧ 춤의 대형을 사용한 춤사위가 것이 특징이다. ③-ㄴ. 고개(목)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가 없는 이유는 고개의 움직임 대신 ③-ㄱ. 몸을 굽히거나 숙임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가 많은 데에 있으며, ③-ㄷ. 발의 움직임과 걸음걸이를 사용한 춤사위 대신 ③-ㄷ. 팔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 ㄹ. 몸 전체의 움직임을 사용한 춤사위가 많은 것이 특징으로 매우 정적이며 불교의식을 진행하기 위해 경건하게 춤을 댄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직접 ④ 감정을 형용하여 사용한 춤사위가 없고, ⑥-ㄱ. 의태적인 표현을 사용한 춤사위 대신 ⑥-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춤사위를 통해 춤의 특징을 드러내고 ⑦-ㄱ. 소도구의 명칭을 사용한 춤사위로 소도구 즉 바라, 법고 등의 소도구를 활용한 춤사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특징이 있다.

2) 춤사위 용어의 표기 형태

춤사위 용어의 범주화 특성을 통해 각 계열의 춤의 특징을 정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춤사위 표기 형태가 ‘관형사 + 범주화 특성(①~⑧) + 동사형 접미사 + 술어’의 형태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춤사위 용어의 표기 형태를 그 특징과 대표적 춤사위 용어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의 <표 10> 과 같다.

〈표 10〉 춤사위 용어의 표기 형태와 특징

범주화	춤사위 표기 형태	특징과 춤사위 용어
①	① + 술어 등장인물 춤, 놀이, 춤사위 장면, 마당,	탈춤의 등장인물 용어 연뇨 눈꺼메기 춤 장면,음과 상좌, 목중 마당, 팔목중 춤사위
②	② + 동사형 접미사 + 술어 신체부위 맞추기, 놀림, 잡이, 째이, 치기, 재기, 풀기, 혼듬, 사위, 춤, 세,	팔뚝잡이, 어깨 혼듬세, 배꼽춤, 팔뚝잡이, 무릎치기, 허리재기, 허리풀기, 발혼듬사위, 배맞추기 손목놀림사위,
③	ㄱ 동사형 접미사 + 술어 구불, 기는 뒤집, 숙은 엮드림	엮드림(伏免), 절拜 면복, 복무, 구불춤, 뒤집사위, 기는춤, 숙은사위
	ㄴ 특별한 형태가 존재하지 않음	고개를 돌리는 형태 끄덕이, 면돌이, 거수, 부, 앙
	ㄷ 관형사 + ③ + 동사형 접미사 + 술어 외, 곱, 접, 양, 만, 민 손모양 여미는, 올리맨, 어르는, 메는, 퍼는, 펼, 줌	종묘제례악 용어 전체 함장재베, 활개퍼기, 줌춤, 모음, 메는가락, 올리맨사위, 평사위, 퍼넘기, 좌우치기, 상하치기
	ㄹ ③ + 동사형 접미사 + 술어 발 움직임 쌍발, 다리, 경중, 모듬, 발, 걸, 옆, 허정거리, 뒷걸음질, 빗사위, 짐거리, 제자리, 잣은발, 언단는, 걸이, 치기, 풀기, 들기, 뛰기, 밟기 사위	발문 거내족, 거외족, 족도, 쌍발치기, 디딤, 비디딤, 안가랑, 완자걸이, 다리들기, 다리풀기, 지신밟기, 잉어걸이, 겹걸음, 경중걸음 사위, 울력걸음 사위, 빗사위 걸음, 짐거리 걸음, 허정거리걸음 사위, 잣은발, 뒷걸음치기사위, 모듬뛰기,
ㅁ 특별한 형태가 존재하지 않음	진신, 회무, 누름세, 덧배기춤, 돌돌이무관, 배김사위,	
④	특별한 형태가 존재하지 않음	정재에서만 사용됨 기뿔歡이 반복됨

→ 뒤에 계속

⑤	ㄱ	⑤ 원숭이, 범, 사자, 황소,	+	동사형 접미사 걸음, 치기	+	술어 사위, 춤,	황소걸음 사위, 소꼬리치기사위, 원숭이걸음, 사자춤, 범춤,		
	ㄴ	⑤ 까치, 황새, 닭, 학, 기러기	+	동사형 접미사 걸음, 이똥, 딛기	+	술어 사위, 춤, 체	닭이똥사위, 학체, 전조시, 기러기춤		
	ㄷ	⑤ 거북이, 용, 비비, 새우, 나비, 게,	+	동사형 접미사 트름, 걸음, 꼬리	+	술어 사위, 춤, 체, 상	새우걸음 사위, 거북이걸음 사위, 자리춤, 용트름, 비비, 나비춤, 게걸음 사위, 가재걸음 사위,		
⑥	ㄱ	⑥ 길로래비훤훤, 엮어매기, 여닫이, 명석말이, 건드렁, 비빔무관, 년출무관, 연풍대, 너울질,			+	술어 사위, 가락, 무,	여닫이, 명석말이, 화장, 어르기, 엮어매기, 비빔무관, 년출무관, 연풍대, 연풍대, 너울질, 건드렁, 길로래비훤훤		
	ㄴ	특별한 형태가 존재하지 않음						숙바더듬, 해바라기, 이슬털이, 활사위, 염불가락, 엇새기깨끼, 배미르기, 낙화유수무, 비리, 도리깨무관, 산치기, 외사,	
⑦	ㄱ	관형사 외, 양	+	⑦ 법고, 상모, 고깔, 부채, 바라, 신칼, 북,채,	+	동사형 접미사 튀기는, 걸치기, 돌리기, 던지는, 뿌리는, 보듬는, 치기	+	술어 놀음, 놀이, 장면, 놀음, 사위, 판, 춤, 무	바라치기, 상모놀음, 신칼돌림, 수건뿌림사위, 외상모, 양상모, 접시돌리기, 소고치기, 통돌림, 채바꿈치기, 태돌림, 고깔더듬, 법고놀이, 부채놀이, 검무, 곤장놀이 장면, 채찍놀림, 탈놀음, 탈판, 한삼쌍우리
	ㄴ	⑦ 쾌자자락, 장삼,	+	동사형 접미사 제끼기, 얼르기	+	술어 춤	장삼춤, 장삼제끼기. 쾌자자락얼리기,		
⑧		⑧ 진퇴, 오방, 삼진삼퇴,사 방, 맞, 대,	+	동사형 접미사 치기, 돌이	+	술어 무, 춤, 사위	사방치기, 삼진삼퇴, 맞춤, 대무, 구승돌이춤사위, 오방신선, 돌담, 입춤, 도령돌기, 기둥돌이춤사위,		

4. 춤사위 용어의 서술상 특성

춤사위 용어 자료의 서술상의 특성은 춤사위 계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특성을 정리하여 춤사위 용어의 해설 형태를 정리하였다.

1) 춤사위 계열별 서술 특성 분석

(1) 정재

정재에서 이해주(1976)는 춤사위 의미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동작의 형상과 춤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심우성(1982)의 경우도 이해주의 춤사위 서술과 상이하지 않게 춤사위의 의미 설명과 동작의 형상, 춤사위 과정을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는 반면, 처용무의 설명은 이해주의 연구보다 자세한 편이다. 그 내용은 다른 춤사위와의 관계와 과정을 설명하고 춤사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으며 ‘홍정도돔무’(처용무춤사위)의 경우 수법과 보법, 대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장사훈(1986)의 경우 춤사위의 의미 설명은 없으며 동작의 형상과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일반 정재 춤사위의 설명에서는 ‘~춤사위와 같음’의 설명이 많으며, 다른 정재의 춤사위에서도 사용된다고 기술하고 그 춤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춘앵전, 혹은 가인전목단 등에 나오는 춤사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춤사위 용어로는 춘앵전 28동작, 향령무 7동작, 그 뒤로 처용무 5동작, 가인전목단 4동작, 검무 2동작, 침수무 2동작의 설명을 하였다.

정병호(2002)의 경우 정재를 문헌에 나오는 춤 160개와 임의상용어 7개로 춤사위 용어를 구분하고 있으며, 춤사위의 의미, 동작의 형상과 춤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처용무의 경우 동일한 춤사위를 장단에 따라 숫자를 붙여가며 여러 형태로 설명하고 있으며, 그 예들은 다음과 같다. 발바딿춤(2), 산작화무(4), 좌선회무(3), 수양수오방무(7), 낙화유수(2) 등이다.

요약해 보자면 정재의 서술상 특성은 춤사위의 의미 설명보다는 간단한 동작의 형상과 춤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서술상

의 특징이 비교적 일치하고 있는 데에 반해 해석의 기준이 존재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춤사위 용어의 가치문제를 유발하는 임의상용어가 존재하였다.

(2) 탈춤

탈춤에서 이애주(1976)는 춤사위 의미 설명보다 장면에 대해 설명하였고 간단한 동작의 형상 설명과 함께 춤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특징적인 내용으로는 양주별산대놀이에서 거드름춤과 깨끼춤을 모아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심우성(1982)은 간단하게 춤사위 의미와 동작의 형상, 춤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양주별산대에서는 춤구성과 등장인물 등을 해설하고 거드름춤과 깨끼춤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깨끼춤(거드름춤보다 좁게 내디딘다)’과 ‘검무(현재는 전하고 있지 않은 춤사위이다)’ 등의 설명이 특징적이다. 통영오광대에서는 ‘~탈 마당’의 용어 사용하였으며, 고성오광대에서는 ‘~춤, ~가락, ~놀음’의 용어로 춤사위를 표현하였고, 동래야유에서는 ‘웅박캉캉장단’이라는 용어를 춤사위 용어로 사용하였다. 강령탈춤에서는 등장인물의 춤과 ‘~마당’을 설명하였으며, 수영야유에서도 역시 ‘~장면’을 춤사위로 나타내었고, ‘시박(원로들에게 심사받는 일)’ 등을 춤사위 용어로 제시하였다.

장사훈(1986)은 춤사위의 의미와 과정 설명보다는 동작의 형상 위주로 춤사위를 설명하였으며, 여러 탈춤과 야유 오광대 그리고 진도 무속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춤사위를 모아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유경희(1992)는 간단하게 춤사위의 의미와 동작의 형상, 춤의 과정을 설명하였지만 대개 춤사위의 형상과 과정 설명 위주였다.

정병호(2002)의 경우 구전된 춤사위 용어를 117개 사용하여 다른 계열의 춤과는 다르게 임의상용어의 사용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저서보다 춤사위 의미 설명이 구체적이고 동작의 형상 설명보다는 춤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룬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양주별산대는 팔뚝잡이, 사방치기, 용트림, 꺼득이, 활개펴기 춤사위 설명이 구체적이고, 1동작, 2동작, 3동작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봉산탈춤은 동작의 형상 설명보다는 1박, 2박, 3박

의 흐름에 따라 춤의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요약해 보자면 탈춤의 서술상의 특성 역시 정재와 동일하게 간단한 춤사위의 의미와 동작의 형상, 과정 설명이나 춤사위 용어라고 보기에 그 범위에서 문제가 되는 용어가 존재하며 자료들 안에서 서술상의 차이 즉 간단하게 설명한 용어와 자세하게 설명한 용어의 해설이 혼재하여 서술상의 편차가 크다.

(3) 민속춤

민속춤에서 이에주(1976)는 춤사위의 의미 설명 대신 동작의 형상과 춤의 과정으로 춤사위를 설명하였다. 춤의 과정으로 박에 따른 춤사위 설명이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진주검무의 '상대무' 춤사위를 '1박에 좌족 딛고 우수 옆으로 내리며'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승무에서 어깨춤을 단순히 어깨의 움직임에서 나아가 몸 전체의 움직임으로 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심우성(1982)은 춤사위 의미 설명은 하고 있지 않았으나, 간단한 동작의 형상 설명과 함께 춤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진주검무에서는 연풍대 가락의 춤사위를 4가지 경우로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승무에서는 춤의 장단에 따라 춤사위를 엮불가락, 타령가락 등으로 표현하였다.

유경희(1992)는 간단하게 춤사위 의미와 동작의 형상, 춤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 예로 승무계열 춤사위 용어 '모음'을 '정신을 한곳으로 모으는 정적인 동작'으로 표현하였다.

정병호(2002)의 경우 구전 용어를 24개, 임의상용어를 167개 서술하였으며, 간단하게 춤사위의 의미와 동작의 형상, 춤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춤사위 용어 명명의 특징은 수건을 들고 추는 춤인 살풀이와 장삼을 입고 추는 춤인 승무의 영향으로 팔사위와 수건, 장삼의 단어 사용이 많았으며, 신체와 동작의 움직임을 소도구와 함께 표현한 단어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요약해 보자면 민속춤의 서술상의 특징은 간단한 동작의 형상과 춤의 과정에 대한 설명 위주였으며 다른 춤보다 춤사위 용어의 의미 설명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춤사위의 가치문제가 드러나는 임의상용어의 사용이 다

른 계열의 춤보다 많았으며 춤사위 용어의 범위문제를 유발하는 용어 역시 발견되어 표준화의 필요성을 드러내었다.

(4) 농악춤

농악춤에서 유경희(1992)는 춤사위 의미 설명보다는 춤의 형상과 과정만을 설명하였고 간혹 주를 달아 주로 쓰이는 농악지역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춤사위 용어 설명 뒤에 ‘사위’라는 술어를 붙이는 특징이 있다.

정병호(2002)의 경우 구전상의 용어 85개와 임의상용어 51개를 서술하고 있으며 춤사위의 의미 설명보다는 형상과 과정을 근거로 자주 행해지고 있는 지역 혹은 각 지역에서의 다른 명칭 등을 기술하여 다른 지역의 춤사위의 특징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춤사위 설명 뒤에 ‘전국 각 지역에서 한다’, ‘호남 농악에서 볼 수 있다’, ‘전남 여천 광양 지방의 농악에서 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진주농악에서는 퍼넘기기를 우물놀이라 부르고 강릉농악에서는 꼭두상모라 부르기도 한다’ 등이 있다. 또한, 같은 춤사위 용어가 다른 지역의 춤에서도 동시에 발견되는 특징이 있었으며, 춤사위의 비유적인 표현과 함께 활달한 발사위와 몸 전체를 이용한 춤사위가 많았다.

요약해 보자면 농악춤의 서술상의 특징은 춤사위 용어의 의미 설명보다는 형상과 과정을 근거로 다른 지역 혹은 각 지역에서 사용하는 춤사위 용어를 서술한 데에 있으며, 같은 춤사위 용어가 다른 지역에서 반복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무속춤

무속춤에서 유경희(1992)는 춤사위를 설명함에 있어 춤사위의 의미와 과정 설명보다는 동작의 형상 설명에 치중하고 있으며, 장단을 활용한 춤과 굿의 거리를 활용한 춤, 소도구의 춤, ‘~도령’의 춤사위가 많으며 뛰는 사위 즉 도무의 춤사위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정병호(2002)의 경우 구전상의 용어를 22개 설명하고 임의상용어를 121개

서술하고 있다. 춤사위 용어의 설명은 춤사위의 의미, 동작의 형상과 춤의 과정 모두를 구체적이게 서술하고 있으나, 농악춤과 동일하게 같은 지역 혹은 다른 지역의 춤에서도 반복되는 춤사위 용어가 발견된다.

요약해 보자면 무속춤의 서술상의 특징은 간단한 춤사위 의미 설명과 형상, 과정 설명이며 민속춤과 동일하게 구전된 용어보다 임의상용어 사용이 많아 표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농악춤과 마찬가지로 같은 지역과 다른 지역의 춤 모두에서 동일한 춤사위 용어가 반복되는 특징이 있다.

(6) 불교춤

불교춤에서 정병호(2002)는 구전상 용어를 40개 설명하고 임의상용어를 35개 사용하며, 다른 계열의 춤에 비해 춤사위의 의미 설명을 강조하고 동작의 형상과 춤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나비춤의 ‘합장착’ 춤사위를 ‘공으로 들어가는 일념으로 정신을 집중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비나비상’이라는 춤사위 용어를 ‘나비를 상상하여 부처님께 법을 배우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불교춤의 춤사위 용어가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며 춤사위 용어 설명이 용어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특징과 함께 불교적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2) 춤사위 용어의 해설 형태

춤사위 용어의 서술상 특성을 통해 각 계열 춤의 특징을 정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춤사위 해설 형태가 크게 춤사위의 형상과 춤의 과정, 춤사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춤사위 용어 자료의 서술상의 특성을 구체적인 춤사위 해설을 통해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11> 과 같다.

〈표 11〉 춤사위 용어의 서술상의 특징

춤사위 자료	춤사위 용어	춤사위 해설	특징
이애주 (1976) 춤사위 어휘고	어깨춤 (승부)	몸의 중심 부분에서 흉을 어깨로 전달하여 이것을 "절도 있게 원심적으로 사지에 발전시키는것"으로 외형적으로는 어깨만을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나 이 움직임은 체내에서부터 출발하여 몸전체가 움직여지는 동작이다.	춤사위 의미 설명 X 춤사위 형상 설명 O 춤사위 과정 설명 X
심우성 (1982) 전통무용 용어의 연구	흥경도동무 (처용무)	수법: 소매를 들어 안으로 끼는 동작이다. 여기서 안으로 낄다는 것은 한쪽 소매 만을 드는 것을 뜻한다. 청·홍 처용과 흑·백 처용은 모두 소매를 들어 안으로 끼고 황처용은 짝이 없으므로 손춤을 추면서 왼쪽으로 낄다. 그리고 반대로 반복한다. 즉 청·홍·흑·백처용은 외협을 하고 황처용은 좌협을 한다. 보법: 발기꿈치를 높이어 발돋음을 하는 동작이다. 대형: 발돋음을 하며 제자리에서 하게 된다. 즉 무릎 디피무를 한 대형과 같다.	춤사위 의미 설명 X 춤사위 형상 설명 O 춤사위 과정 설명 O
장사훈 (1984) 한국무용 개론	발검 (종묘제례악)	허리를 굽히고 칼을 든 오른손을 내리되, 칼이 뒤를 향하도록 한다.	춤사위 의미 설명 X 춤사위 형상 설명 O 춤사위 과정 설명 O
유경희 (1992)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에 관한 연구	수박치기 (농악계열)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삼색띠를 손에 잡고 좌우로 흔들며 어깨춤을 춘다. 양손으로 자기 무릎을 두 번 치고 손뼉을 한 번 친다. 전북 임실 필봉농악과 경북 금릉 빗내농악에서 추는 사위	춤사위 의미 설명 X 춤사위 형상 설명 O 춤사위 과정 설명 O
정병호 (2002) 한국의 전통춤	허리재기 (봉산탈춤)	1박에 오른발을 들어 올리고 두 손은 녹음 가지를 쥐어 얼굴 앞으로 들어 올린다. 2박에 오른발을 앞으로 밀듯이 나아가고 2박 끝에 땅을 딛고 3박에 왼발을 들어 올린다. 4박에 허리를 물결치듯 밀듯이 길게 퍼서 발을 내딛는다.	춤사위 의미 설명 X 춤사위 형상 설명 O 춤사위 과정 설명 O
	선자선좌 (불교춤)	선자선좌란 선량하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예배를 하고 일어난다는 뜻으로, 절을 하고 난후 몸을 일으키는 것이다.	춤사위 의미 설명 O 춤사위 형상 설명 X 춤사위 과정 설명 O

IV. 춤사위 용어의 표준화

춤사위 용어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춤사위 용어의 범위, 표기, 해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그 기준을 설정하고 각각의 문제에 근거하여 춤사위 용어의 범위 분류, 표기 체계, 해설 체계의 표준화 방안을 탐색하였다.

1. 춤사위 용어의 문제점

춤사위 용어 자료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범위, 표기, 해설의 부분에서 논의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춤사위 용어의 범위

춤사위 용어의 범위에서는 춤사위의 가치로 인한 문제와 춤사위의 구성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춤사위의 가치로 인한 문제는 춤사위의 보존을 위해 임의상 사용한 용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춤사위 용어 자료 중 정병호(2002)의 『한국의 전통춤』 저서에서 발견된다. 또한, 구전된 춤사위 용어 가운데 에서도 오기로 인하여, 해설은 임의상 춤사위 용어로 서술하였으나 구전된 춤사위 용어로 표기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 춤을 교육할 때 사용되지 않는 춤사위 용어가 존재하는 등(한영숙류 살풀이춤 춤사위 용어의 ‘잉어걸이’) 많은 문제점이 산재해있다. 더불어 이러한 임의상 사용된 춤사위 용어를 유경희(1992)가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에 관한 연구」에서 실제 춤사위 용어로 인용하여 논문에 제시하는 등 그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¹⁷⁾

우선 정병호(2002)는 해석의 기준이 명확히 존재하는 정제에서도 임의상용어를 7개나 제시하였으며, 민속춤에서는 임의상 춤사위 용어로 167개를 제시하여 구전된 춤사위 용어 24개보다 훨씬 많은 용어를 춤사위 용어로 표기하였다.

17) 정병호의 『한국의 전통춤』(2002)은 자신의 저서인 『춤사위』(1981), 『무무』(1987), 『무용』(1990), 『농악』(1994), 『한국 전통춤』(1999)등을 참고하여 정리한 저서이다.

농악춤에서도 역시 임의상용어 51개를 제시하고 무속춤에서도 구전된 용어 22개를 제외한 121개의 용어를 임의상용어로 제시하였으며, 불교춤에서도 임의상용어를 35개나 제시하였다. 특히 이러한 보존상의 명목으로 제시된 임의상의 용어는 다른 계열의 춤보다 민속춤과 무속춤에서 시급히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구전된 춤사위 용어 가운데 에서도 해설은 임의상용어이나 오기로 인하여 구전된 용어라 기록한 춤사위가 존재하며, 실제 춤을 교육할 때 사용되지 않는 춤사위 용어는 한영숙류 살풀이춤의 잉어걸이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이는 이매방류 승무와 살풀이춤에서 사용되었던 춤사위를 한영숙류의 춤사위 용어로 인용하여 서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춤사위의 차용이 가능한 이유는 정병호(2002)의 임의상용어의 구성형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는 우선 같은 계열 혹은 다른 계열의 춤에서 비슷한 춤사위 용어를 인용하여 임의상용어로 표기하였으며, 둘째 보이는 그대로 즉 몸의 움직임에 근거하여 팔, 다리, 소도구를 활용하여 그 형상을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에 제시한 두 가지 방법을 결합하여 춤사위 용어로 서술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춤사위 용어의 임의상사용이 춤사위를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교체, 통합되어 춤사위 용어로 고착, 수용되어 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 춤사위 용어로 사용되지 않고 차용되어¹⁹⁾ 학술상의 용어로만 전락해 버린다면 춤사위 용어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례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춤사위의 구성으로 인한 문제는 춤의 구성용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춤사위 용어 자료 중 심우성(1982)의 『전통무용 용어의 연구』에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다.

탈춤의 춤사위 용어의 경우 등장인물의 설명과 함께 ‘~마당, ~놀음, ~장면, ~춤사위’를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형식적 절차를 춤사위 용어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민속춤 중에서는 승무에서 이러한 경우가 발견되며 ‘~장단’을

18) 연구자가 춤을 배우는 과정에서 잉어걸이라는 춤사위는 이매방류 춤(승무와 살풀이춤)에서만 배웠고 한영숙류 춤에서는 접해 보지 못하였다.

19) 정병호(2002)가 임의상 사용한 춤사위 용어를 유경희(1992)가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에 관한 연구」에서 실제 춤사위 용어로 인용.

‘~가락’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춤사위 용어가 단순히 한 동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춤사위의 연결 혹은 그 과정 전체로서 춤사위를 표현하는 데에 있으며, 그 결과 용어의 사용 범위가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춤사위 용어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어느 부분까지를 춤사위 용어로 바라볼 것인지 하는 문제가 제기되며 그 분류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2) 춤사위 용어의 표기

춤사위 용어 자료 중 해석의 기준이 존재하는 정제에서도 춤사위 용어 표기에 차이가 있고, 탈춤과 민속춤 그 외의 춤에서도 같은 동작을 다른 용어로(방언과 같은 특이 사항 포함) 표현하고 있으며 그 술어 표기(~춤, ~사위, ~체, ~세) 역시 일치되어 있지 않아 매우 혼란스럽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2> 와 같다.

<표 12> 춤사위 용어의 표기문제

	이애주 (1976)	심우성 (1982)	장사훈 (1984)	유경희 (1992)	정병호 (2002)	춤사위 용어 설명 (이)(심)(장)(유)(정)-각 저자의 춤사위 설명
종묘 제례악 (정제)	兩手引膝	양수인슬 (兩手引膝)	양수인협 (兩手引脇)		양수인슬 (兩手引膝)	두 팔을 높이 들어 옆으로 넘기며, 한 발은 앞으로 약 다섯치 가량 내딛고 허리를 뒤로 재친다(심)
	번권	번권 (翻拳)	번거 (翻擧)		번권 (翻拳)	칼 안든 손을 굽혀 어깨까지 올리며 주먹이 위를 향한다(심)
	할권	할권 (割拳)	할권 (割拳)		할검 (割劍)	왼손이 위로 간 할협 자세와 같다(장)
	타견	타견 (打肩)	타선 (打扇)		타견 (打肩)	권 칼을 들어 어깨를 치는 동작이다(심)
	좌좌슬	좌좌슬 (跪左膝)	좌좌슬 (跪左膝)		좌좌슬 (跪左膝)	왼발을 세우고 오른발을 꿇고 앉되, 두 손을 왼편 무릎에 놓는다(이)

→ 뒤에 계속

학무 (정제)	俯	앙(俛)			면(俛)	고개를 숙이는 동작(정)
		내안(顏) 외안(顏)			내고(顧) 외고(顧)	안을 보는 동작(정) 고개를 들어 밖을 향하는 동작(정)
	驚躍	약이퇴 (躍而退)			약이퇴 (躍而退)	뛰어서 나가는 동작이다(실)
정제의 춤사위 (정제)			산작화무 산화작무 (설명이 동일)			장생보연지무에 나오는 춤사위의 하나 협무가 삼지화를 들고 추는 춤사위 (장)-산작화무의 설명
양주 별산대 (탈춤)	팔뚝잡이	팔뚝잡이		팔뚝잡이 사위	팔뚝잡이 (깨끼춤) 팔뚝잡이 (움중의 거드름춤)	오른편 다리를 내딛고 바른손을 내 뻗어서 구부리고 왼손은 오른쪽 팔꿈치를 쥐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 주춤주춤 뒤로 3,4보 간다. 또 반대로 원다리를 내 놓고 이와 같이 한다(실)
고성 오광대 (탈춤)	뗏배기춤	뗏배기춤				어깨춤에서 오른손 왼손을 번갈아 올리며 뛰는춤이다(이)
동래야유 (탈춤)	배김사위	배김세				뗏배기춤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몸을 이르다가 갑자기 위로 뛰어 거리 앉으며 추는 것을 말한다(실)
	기느춤				길사위	영금영금 기면서 추는 춤(정)
봉산탈춤 (탈춤)		등장사위			등장	등장하면서 추는 춤이다(실)
진주검무 (민속춤)	숙은사위	숙은사위			숙인사위	한삼을 손에 끼고 무릎을 굽히는 사위이다(이)
농악춤				뗏배기 춤사위	뗏배기춤	복을 왼쪽 허리에 갖다댄 다음 오른손을 옆으로 올려 복체를 밑으로 늘어 뜨리며 힘을 빼고 갖거리 장단에 느린춤을 춘다(유)
				자반 뒤지기	자반뛰기	왼발을 왼쪽으로 돌려 던을 때 몸을 완전히 뒤로 젖혔다가 곧 오른발을 왼쪽으로 돌려 던으면서 훌쩍뛰어 몸을 뒤로 젖히고 왼쪽으로 돈다(유)
				엎어배기	엎어매기	진라도 자반뛰기 처럼 두 번 공중에서 돌고 무릎을 굽혀 앉는다(유)
				쌍방아 짚기	외방아 짚기	소고를 어깨위에서 비껴 사선으로 올리고 오른쪽으로만 소고를 내리는 동작이다(유)
무속춤				쾌자자락 얼르기	쾌자자락 어르기	양손으로 쾌자자락을 잡고 손을 모아 같이 상하, 좌우, 옆위로 흔들거나 양손 팔꿈치를 굽혀 옆으로 펴고 좌우측으로 휘젓는다(유)
				상대무관	배맞추기	두사람이 서로 마주보면서 우쭐거리는 춤사위(유)
				깨끔질	깨끔사위	오른발, 왼발을 비껴 던어 가면서 한발씩 뛰며 양팔을 앞으로 뿌린다(유)
				돌머리 무관	돌몰이 무관	부채나 수건 등을 들고 오른쪽 왼쪽으로 느리거나 빠르게 돈다(정)

3) 춤사위 용어의 해설

춤사위 용어 자료 중 정재의 경우 춤사위 용어 해설에 있어 춤사위의 과정 상 손의 위치, 각도, 거리, 진행절차 등의 차이가 존재하며, 그 외의 다른 춤역시 해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그 용어 자체의 뜻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또한, 동작을 설명하는 형식이 서로 달라²⁰⁾ 소통이 단절되고 용어 사용이 제한되는 등 그 문제점이 드러난다.

우선 춤사위 용어 자체의 뜻을 알기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다. 탈춤 춤사위 용어(모걸음치기 사위, 모대치기 사위, 길로래비훅훅사위, 요꽃뿔사위), 민속춤 춤사위 용어(다루치기), 무속춤 춤사위 용어(~무관, 느름손치기) 이다.

이 외의 해설상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3> 과 같다.

<표 13> 춤사위 용어의 해설문제

종목	춤사위 용어	이애주(1976) 춤사위 어휘고	심우성(1982) 전통무용 용어의 연구	장사훈(1984) 한국무용개론	유경희(1992)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에 관한 연구	정병호(2002) 한국의 전통춤
종묘 제례악 (정재춤)	환비	신견자세에 이름	신비로 돌아간다	신비로 돌아간다		신비로 돌아간다
	합총	40도	40도	45도		40도
	하수	40도	40도	45도		40도
	복과	45도	한자가량	30도		한자가량
	점북	뒤편 가슴에	뒤편 가슴에	들어 배부분에		들어 배부분에
	발검	전면 옆으로 내린다	비껴 앞으로 든다	든다 내린다 말없음		비껴 옆으로 든다
	양수인슬	5치	5치	10cm (양수인협)		5치
	번권	주먹을 뒤로	주먹 위로	주먹을 뒤로 (번거)		주먹 위로
	번검	칼이 위로	칼이 위로	주먹이 위로		칼이 위로
	절번	한치	한치	2cm		한치
	인슬	손을 무릎에서 때고	손을 무릎에서 3-4치 때고	손을 무릎에서 3-4치 때고		손을 무릎에서 4.5cm 때고

→ 뒤에 계속

20) 춤사위 용어의 해설 모두를 통일하여 연구자만의 특징을 제한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대부분의 춤사위 용어가 기준이 없이 서술되어 있어 용어를 이해하고 춤사위로 재현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정리하고자 하는 의미이다.

일반정재 (정재춤)	소수수			반수반불과 같음		반수수불과 같음
	이수 고저			진퇴하면서 한 팔씩 오렸다 내리는 동작		두 손을 오른쪽으로 들어, 왼쪽으로 뿌리고, 오른손은 가슴 앞, 왼손은 어깨 높이로 든다
농악춤	쟁방아 짚기				소고를 어깨위에서 비껴 사선으로 올리고 오른쪽으로만 소고를 내리는 동작	어깨위에서 비껴 사선으로 허리 부위까지 좌우로 변갈아 가면서 내리는 동작
무속춤	안유 짜기				춤을 추다가 제자리에 서서 한 팔은 뒤로 하고 또 한 팔은 앞으로 하여 허리를 감고서 발을 약간 꼬아서 지석거리는 춤사위	오른쪽, 왼쪽 아무 방향으로 돌다가 왼발을 오른쪽 옆으로 디디며 무릎을 굽힌다

2. 춤사위 용어의 기준 설정

춤사위 용어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범위, 표기, 해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1) 춤사위 용어의 범위 기준

춤사위의 범위 기준에 있어 춤사위 가치로 인한 문제는 우선 구전된 춤사위 용어를 표준화된 춤사위 용어로 확립하는 데에 그 방안이 존재하며, 춤사위 보존상 임의로 사용된 용어의 분류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앞으로 이루어질 연구를 위해 임의상용어를 표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춤사위 용어 재조사를 통해 기존에 채록되었던 춤사위 용어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새롭게 발견되거나 변형된 춤사위 용어의 역사적 근원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춤사위 구성으로 인한 문제는 춤사위 용어에 대한 인식 전환 즉 춤사위 용어가 단순히 춤사위만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그 분류 체계를 춤의

구성용어와 춤사위 용어로 나누어 보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춤사위 용어가 가진 범위의 모호성을 해결하고 분별성을 갖춘 용어로서 앞으로 이루어질 연구의 기초작업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2) 춤사위 용어의 표기 기준

춤사위의 표기 기준에 있어서는 우선 원자료를 참고하여 오기를 바로 잡아야 하며, 춤사위 표기 형태를 고려하여 춤사위 용어의 술어를 ‘사위’라는 표기로 통일하여야 한다. 즉 춤사위 용어의 혼란을 불식시키고 춤사위 용어의 방언과 특이 표기를 병기하여 그 특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춤사위 용어의 술어는 ‘~춤, ~사위, ~체, ~세’ 등과 같이 다양하나 몇 개의 용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춤사위 용어가 ‘~춤, ~사위’로 표기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그 술어가 서로 다른 표현이 아니었다.²¹⁾ 따라서 그 술어를 ‘~춤’ 보다 작은 단위이자 춤사위 즉 동작을 의미하는 ‘~사위’의 술어로 표기를 통일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춤사위 용어에 이 방안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함으로 한자어 춤사위와 ~장면, ~과장 등의 춤의 구성 용어를 제외한 춤사위 용어에 ‘사위’라는 술어를 사용하여 그 표기 체계를 표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춤사위 용어의 해설 기준

춤사위의 해설 기준에 있어서는 표기 기준과 마찬가지로 우선 원자료를 참고하여 오기를 바로 잡아야 하며, 춤사위 해설 형태를 근거로 춤사위 용어 자체의 뜻을 밝히고, 동작의 형상을 설명하며, 그 과정을 장단에 따른 순서상의 움직임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징적 소도구, 의미, 내용, 분위기 등을 부연 설명하는 체계를 제시하여 춤사위 용어의 해설 체계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21) 탈춤(동래야유: 배김사위=배김세, 기는춤=길사위), (봉산탈춤: 등장사위=등장농악춤(뒷배기춤=뒷뵈기 춤사위), 무속춤(깨끔질=깨끔사위)

해설의 기준이 없이 서술되어 있는 춤사위 용어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가중시키며 그 의미와 형상, 그리고 과정을 확인하지 못한 채 실제 춤사위 용어로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린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 해설 기준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3. 춤사위 용어의 표준화 탐색

춤사위 용어의 표준화 탐색은 기존 춤사위 용어 자료의 특성에서 밝혀졌던 문제점들을 기반으로 춤사위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통합적인 이해 즉 춤사위의 종합적 체계를 바탕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춤사위 용어의 기준에 근거하여 그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춤사위 용어의 범위 분류

춤사위 용어의 범위 분류를 위해서는 앞서 춤사위 범위의 가치 기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춤사위 보존을 위해 사용된 정병호(2002)의 임의상 춤사위 용어 381개²²⁾(오기로 인한 임의상 춤사위 용어 포함)와 이것을 차용한 유경희(1992)의 춤사위 용어 92개를 임의상 춤사위 용어로 분류하고 나머지 1240개의 용어를 구전된 춤사위 용어로 제시하여 춤사위 용어를 분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병호(2002)의 춤사위 용어 중 오기로 인하여 해설은 임의상용어나 구전된 용어라 기록한 용어는 농악춤 춤사위 11개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악춤 춤사위 용어(긱거리춤, 발벌리고 북치기, 사모잡이, 꽃봉오리, 소고 돌리기. 소고 올렸다 내리기, 소고를 사선으로 올려 내리기, 소고 잡고 발 옆으로 올리기, 소고차고 돌리기, 앉아서 상모돌리기, 한 발 든 소고놀이)

22) 정병호(2002)는 저서에서 '구전으로 내려온 춤사위는 (구전)으로 표기하고 문헌으로 기록된 춤사위는 (문헌)으로 표기 하며, 아무런 설명이 없는 것은 임의상 명칭이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유경희가 차용한 정병호의 임의상용어는 승무계열 용어 28개, 기방계열 용어 25개, 농악계열 용어 14개, 무속계열 용어 25개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무계열 용어(감고푸는뿌림, 감기, 감아서뿌림, 걸치기, 꼬리치기, 던져서뿌림, 던지는뿌림, 꼬아서뿌림, 돌려서뿌림, 뒤로젓혀뿌림, 뛰어서뿌림, 모음, 몸돌리기, 몸통비틀기, 무동작, 비스듬히펴기, 상하로뿌림, 앞으로뿌림, 옆뿌림, 위로뿌림, 젓는뿌림, 지숫기, 팔내리기, 팔올리기. 팔일자펴기, 한발들기, 활개펴기)

기방계열 용어(걸어도는사위, 걸치기, 꼬리치기. 뒤로회무, 맺는사위, 뱅글도는사위, 비껴든사위, 빙글도는사위, 수건돌리기. 수건휘날리기, 숙은사위(2), 어르는사위, 얻던는사위, 완자걸이, 용꼬리사위, 지숫는사위, 짚는사위, 채는사위, 펴는사위, 평사위, 학사위, 활사위, 훑는사위, 휘젓는사위)

농악계열 용어(긋거리춤, 까치걸음, 다듬이질하기, 발벌리고 북치기, 북치고 양손들기, 사모잡이, 삼진삼퇴, 소고 앞뒷면치기, 제자리에서 뛰기, 좌우치기, 지자뛰기, 짝꿈놀이, 팔벌리기, 휘돌리기)

무속계열 용어(가세질(가위질), 걸치기와 뿌림, 깨꿈질, 꽃봉오리, 느름손치기, 다듬이질, 등맞추기, 맴돌이, 모듬뿍사위, 밀치기, 바라 상하로내리기, 바라옆으로 올리기, 바람막이, 상모놀음, 신맞이, 신칼돌림, 안유짜기, 앓아배김, 양손 벌려회무, 양손 어깨에 매고 회무, 좌우치기, 쾌자자락얼르기, 태극무늬, 한손어깨에 매고 회무, 회오리바람)

더불어 춤사위의 구성으로 인한 문제는 앞서 범위의 구성 기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춤의 구성용어로 85개의 용어를 제시하고 나머지 1628개의 용어를 춤사위 용어로 분류하여 체계화하고자 한다. 구체적 춤사위는 심우성(1982)의 탈춤 춤사위 용어 77개, 민속춤 춤사위 용어 8개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탈춤의 춤사위 용어(양주별산대)길놀이, 고사, 상좌춤, 음과 상좌, 떡중과 음, 연잎과 눈끔적이, 염불놀이, 침놀이, 애사당 북놀이, 떡중놀이, 신장수 놀이, 취발이 놀이, 샌님, 신할아버지와 미알할미, (통영오광대)문둥이춤, 법고탈마당, 풍자탈마당, 영노탈마당, 포수탈 마당, (고성오광대)말뚝이춤, 북춤, 승무, 문둥춤, 문둥북춤, 오광대, 비비, 제밀주, (봉산탈춤)사상좌춤, 팔떡중춤, 사당춤, 노장춤, 사자춤, 양반춤, 미알춤, (동래 들놀이)길놀이, 탈판, 군무, 문둥이춤, 웅박캐깅장단, 할미춤, 제대각시춤, 도령춤, (강령탈춤)사자춤, 원숭이춤, 말뚝이춤, 목중춤, 상좌춤, 양반마당, 목중마당, 소무마당, 노장마당, (수영 들놀이)지신밟기, 시박, 사자춤, 말뚝이춤, 농악무, 범춤, 투무, 양반춤 장면, 영노춤 장면, 할미·영감춤 장면, 사자춤 장면, (송파산대)상좌춤 장면, 움중춤 장면, 연잎 눈끔제기춤 장면, 북놀이 장면, 곤장놀이 장면, 참모놀이 장면, 신장사, 원숭이춤 장면, 취발이춤 장면, 말뚝이춤 장면, 샌님 미알할미춤 장면, 포도부장, 샌님춤 장면, 신할아버, 신할멈춤 장면)

승무의 춤사위 용어(염불가락, 염불 도드리가락, 타령가락, 타령 도드리가락, 굿거리가락, 굿거리 도드리가락, 북치는 가락, 당악가락)

2) 춤사위 용어의 표기 체계

춤사위 용어의 표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표기문제에서 제시되었던 오기들은 원자료²³⁾를 근거로 수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의 <표 14> 와 같다.

<표 14> 춤사위 용어의 표기 표준화 사례

종목	이애주 (1976)	심우성 (1982)	장사훈 (1984)	유경희 (1992)	정병호 (2002)	표준화 방안
종묘 제례악 (정제)	兩手引膝	양수인슬 (兩手引膝)	양수인협 (兩手引脇)		양수인슬 (兩手引膝)	양수인슬 (兩手引膝) 시용무보에 양수인협 용어 없음
	鬮券	번권 (鬮券)	번거 (鬮擧)		번권 (鬮券)	번권 (鬮券) 시용무보에 번거 용어 없음
	割拳	할권 (割拳)	할권 (割拳)		할검 (割劍)	할권 (割拳) 시용무보를 살펴본 결과 할검 용어가 오기로 드러났음
	打肩	타견 (打肩)	타선 (打扇)		타견 (打肩)	타견 (打肩) 시용무보에 타선 용어 없음
	跪左膝	괴좌슬 (跪左膝)	괘좌슬 (跪左膝)		괘좌슬 (跪左膝)	괘좌슬 (跪左膝) 시용무보에 괴좌슬 용어 없음
학무 (정제)	俯	앙(俛)			면(俛)	면(俛) 악학궤범에 俯, 앙 용어 없음
		내안(顏) 외안(顏)			내고(顚) 외고(顚)	내고(顚) 외고(顚) 악학궤범에 내안, 외안 용어 없음
	驚躍	약이퇴 (躍而退)			약이퇴 (躍而退)	경약이퇴 (驚躍而退) 악학궤범에 경약이퇴로 용어 설명
정제의 춤사위 (정제)			산작화무 산화작무 (설명이 동일)			산작화무 (散作花舞) 장생보연지무에 산화작무 설명 없음

→ 뒤에 계속

23) 종묘제례악(종묘제례악보준회(2012). **종묘제례악**. 민속원) 참고
학무, 정제의 춤사위(손선숙(2005). **궁중정제용어사전**. 민속원) 참고
농악춤(정병호(1994). **농악**. 열화당) 참고
무속춤(정병호(1987). **무무**. 문화재관리국 문화재 연구소) 참고

양주 별산대 (탈춤)	팔뚝잡이	팔뚝잡이		팔뚝잡이 사위	팔뚝잡이 (깨끼춤) 팔뚝잡이 (옴중의 거드름춤)	팔뚝잡이 (팔뚝잡이, 팔뚝잡이 사위) 춤사위 용어의 다양성 인정
고성 오광대 (탈춤)	덧배기춤	덧배기춤				덧배기춤(덧배기춤) 춤사위 용어의 다양성 인정
동래야유 (탈춤)	배김사위	배김세				배김세(배김사위) 춤사위 용어의 다양성 인정
	기느춤				길사위	기느춤(길사위) 춤사위 용어의 다양성 인정
봉산탈춤 (탈춤)		등장사위			등장	등장사위(등장) 춤사위 용어의 다양성 인정
진주검무 (민속춤)	숙은사위	숙은사위			숙은사위	숙은사위(숙은사위) 춤사위 용어의 다양성 인정
농악춤				덧뵈기 춤사위	덧배기춤	덧배기춤(덧뵈기 춤사위) 춤사위 용어의 다양성 인정
				자반 뒤지기	자반뛰기	자반뛰기(자반 뒤지기) 춤사위 용어의 다양성 인정
				엮어배기	엮어매기	엮어배기 원자료 농악을 살펴본 결과 엮어매기가 오기로 드러났음
				쌍방아 짚기	외방아 짚기	외방아 짚기 원자료 농악을 살핀 결과 쌍방아 짚기가 오기로 드러났음
무속춤				쾌자자락 얼르기	쾌자자락 어르기	쾌자자락 얼르기 원자료 무무를 살핀 결과 쾌자자락 어르기가 오기로 드러났음
				상대무관	배맞추기	상대무관(배맞추기) 춤사위 용어의 다양성 인정
				깨끔질	깨끔사위	깨끔질(깨끔사위) 춤사위 용어의 다양성 인정
				돌머리 무관	돌몰이 무관	돌머리무관(돌몰이무관) 춤사위 용어의 다양성 인정

또한, 술어들의 번잡한 쓰임을 통일하고자 앞서 춤사위 용어 분석에서 살펴 보았던 춤사위 표기 형태에서 그 특성을 도출하고 앞서 표기 기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자어 춤사위와 ‘~장면’, ‘~과장’ 등의 춤의 구성 용어를 제외한 춤사위 용어를 ‘춤사위 용어 + 사위(술어)’라는 체계로 표준화하여 다음의 <표 15> 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15> 춤사위 용어의 표기 체계 표준화 방안

범주화	춤사위 표기 형태	대표적 춤사위 용어
①	① + 사위(술어)	춤 구성용어라 표준화 방안에 포함되지 않음
②	② + 동사형 접미사 + 사위(술어)	팔뚝잡이→팔뚝잡이 사위 배꼽춤→배꼽춤 사위 무릎치기→무릎치기 사위 허리재기→허리재기 사위
③	ㄱ 동사형 접미사 + 사위(술어)	구불춤→구불춤 사위 기느춤→기느춤 사위
	ㄴ 춤사위 용어 + 사위	끄덕이→끄덕이 사위 면돌이→면돌이 사위
	ㄷ 관형사 + ③ + 동사형 접미사 + 사위(술어)	활개펴기→활개펴기 사위 침춤→침춤 사위 좌우치기→좌우치기 사위
	ㄹ ③ + 동사형 접미사 + 사위(술어)	완자걸이→완자걸이 사위 빗사위걸음→빗사위걸음 사위 жат은발→жат은발 사위
	ㅁ 춤사위 용어 + 사위	누름세→누름세 사위 덧배기춤→덧배기춤 사위 돌돌이무관→돌돌이무관 사위
	④	춤사위 용어 + 사위

→ 뒤에 계속

⑤	ㄱ	⑤ + 동사형 접미사 + 사위(술어)	원숭이걸음→원숭이걸음 사위 사자춤→사자춤 사위 범춤→범춤 사위
	ㄴ	⑤ + 동사형 접미사 + 사위(술어)	학체→학체 사위 기러기춤→기러기춤 사위
	ㄷ	⑤ + 동사형 접미사 + 사위(술어)	자리춤→자리춤 사위 용트름→용트름 사위 나비춤→나비춤 사위
⑥	ㄱ	⑥ + 사위(술어)	길로래비훤훤→길로래비훤훤 사위 명석말이→명석말이 사위 연풍대→연풍대 사위
	ㄴ	춤사위 용어 + 사위	숙바더듬→숙바더듬 사위 이슬털이→이슬털이 사위 엇새기깨끼→엇새기깨끼 사위
⑦	ㄱ	관형사 + ⑦ + 동사형 접미사 + 사위(술어)	채바꿈치기→채바꿈치기 사위 고깔더듬→고깔더듬 사위 통돌림→통돌림 사위
	ㄴ	⑦ + 동사형 접미사 + 사위(술어)	쾌자자락 얼르기→쾌자자락 얼르기 사위 장삼춤→장삼춤사위
⑧		⑧ + 동사형 접미사 + 사위(술어)	사방치기→사방치기사위 도령돌기→도령돌기사위 돌담→돌담사위

3) 춤사위 용어의 해설 체계

춤사위 용어의 해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해설문제에서 제시되었던 오기들은 원자료²⁴⁾를 근거로 수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의 <표 16> 과 같다.

<표 16> 춤사위 용어의 해설 표준화 사례

종목	춤사위 용어	이애주(1976) 춤사위 어휘고	심우성(1982) 전통무용 용어의 연구	장사훈(1984) 한국무용개론	유경희(1992)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에 관한 연구	정병호(2002) 한국의 전통춤
종묘 제례악 (정재)	환비	신건자세에 이름	신비로 들어간다	신비로 들어간다		신비로 들어간다
		팔을 머리 위로 돌려 다시 신비 자세를 만든다				
	합흥	40도	40도	45도		40도
		두손을 가슴 가운데에 붙이되 오른손이 왼손을 덮고 윗몸을 약 40도로 굽힌다.				
	하수	40도	40도	45도		40도
		합흥에서 오른손 또는 왼손을 아래로 내렸다가 몸에서 약 40도 가량 옆으로 뻗는다.				
	복파	45도	한자가량	30도		한자가량
		바로 선 자세에서 두 팔을 좌우로 약 30센티 가량 벌려 하수 한다.				
	점복	덮어 가슴에	덮어 가슴에	들어 배부분에		들어 배부분에
		주먹이 아래를 향하게 하여 오른손으로 왼손을 덮어 배에 붙인다.				
발검	전면 옆으로 내린다	비껴 앞으로 든다	든다 내린다 말없음		비껴 옆으로 든다	
	허리를 숙이고 칼 든 오른손을 아래로 내려 몸에서 약 40도 가량 앞 옆쪽 사선방향으로 뻗는다.					
양수 인슬	5치	5치	10cm (양수인협)		5치	
	양손을 들어오른쪽 또는 왼쪽 옆으로 넘기는데 한 발은 앞으로 약 15센티 가량 내딛고 허리를 재인다.					
번권	주먹을 뒤로	주먹 위로	주먹을 뒤로 (번거)		주먹 위로	
	칼 안든 왼 주먹을 구부려 어깨까지 올리되 주먹이 뒤를 향한다.					

→ 뒤에 계속

24) 종묘제례악(종묘제례악보준회(2012). **종묘제례악**. 민속원) 참고
학무, 정재의 춤사위(손선숙(2005). **궁중정재용어사전**. 민속원) 참고
농악춤(정병호(1994). **농악**. 열화당) 참고
무속춤(정병호(1987). **무무**. 문화재관리국 문화재 연구소) 참고

종묘 계례악 (정재)	번검	칼이 위로	칼이 위로	주먹이 위로		칼이 위로
		칼 든 팔꿈치를 구부려 어깨까지 올리되 칼이 뒤를 향한다.				
	절번	한치	한치	2cm		한치
좌우 팔을 어깨에서 약 3센티 가량 쳐뜨려 팔꿈치를 구부려 들고 주먹은 뒤로 비튼다.						
인슬	손을 무릎에서 때고	손을 무릎에서 3-4 치 때고	손을 무릎에서 3-4 치 때고		손을 무릎에서 4.5cm 때고	
	두 손을 모아 무릎 쪽으로 10센티 가량 떼어 내리되다리는 든다.					
소수수			반수반불과 같음		반수수불과 같음	
	손을 작게 드리운다는 뜻으로 동일한 뜻의 용어로는 반수반불과 반수수불 등이 있다.					
일반 정재 (정재)	이수 고저		진퇴하면서 한 팔씩 오렸다 내리는 동작		두 손을 오른쪽으로 들어, 왼쪽으로 뿌리고, 오른손은 가슴 앞, 왼손은 어깨 높이로 든다	
		양팔을 위로 올려 왼쪽으로 나란히 내리면서 왼팔은 옆으로 펴두고 오른손은 입 가까이 들고 양팔을 높였다 낮추며 춤을 춘다. 이어 양팔을 위로 올려 오른쪽으로 나란히 내리면서 오른팔은 옆으로 펴두고 왼손은 입 가까이 들고 양팔을 높였다 낮추며 춤을 춘다.				
농악춤	쌍방아 짚기			소고를 어깨위에서 비껴 사선으로 올리고 오른쪽으로만 소고를 내리는 동작	어깨위에서 비껴 사선으로 허리 부위까지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내리는 동작	
		어깨위에서 비껴 사선으로 허리 부위까지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내리는 동작				
무속춤	안유 짜기			춤 추다가 제자리에 서서 한팔은 뒤로 하고 또 한팔은 앞으로 하여 허리를 감고서 발을 약간 꼬아서지석거리는 춤사위	오른쪽, 왼쪽 아무 방향으로 돌다가 왼발을 오른쪽 옆으로 디디며 무릎을 굽힌다	
		춤 추다가 제자리에 서서 한팔은 뒤로 하고 또 한팔은 앞으로 하여 허리를 감고서 발을 약간 꼬아서지석거리는 춤사위				

또한, 춤사위 해설 체계를 통일하고자 각 자료의 해설 형태를 바탕으로 해설 체계를 춤사위 의미 설명, 형상 설명, 과정 설명, 부연 설명의 형태로 재설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의 <표 17> 과 같다.

<표 17> 춤사위 용어의 해설 체계 표준화 방안

특성	이애주(1976) 춤사위 어휘고	심우성(1982) 전통무용 용어의 연구	장사훈(1984) 한국무용개론	유경희(1992)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에 관한 연구	정병호(2002) 한국의 전통춤
춤사위 해설의 특징	춤사위 의미 설명 X 춤사위 형상 설명 O 춤사위 과정 설명 X	춤사위 의미 설명 X 춤사위 형상 설명 O 춤사위 과정 설명 O	춤사위 의미 설명 X 춤사위 형상 설명 O 춤사위 과정 설명 O	춤사위 의미 설명 X 춤사위 형상 설명 O 춤사위 과정 설명 O	춤사위 의미 설명 O 춤사위 형상 설명 X 춤사위 과정 설명 O
춤사위 용어의 해설 체계	<p>1. 춤사위 용어 자체의 뜻을 밝힌다. (춤사위 의미 설명) 선자선좌란 선량하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예배를 하고 일어난다는 뜻으로, (정병호의 불교춤 ‘선자선좌’ 설명 중)</p> <p>2. 동작의 형상을 설명한다. (춤사위의 형상 설명)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삼색띠를 손에 잡고 좌우로 흔들며 어깨춤을 춘다. (유경희의 농악계열 ‘수박치기’ 설명 중)</p> <p>3. 장단에 따라 그 춤의 과정을 기록한다. (춤사위 과정 설명) 청·홍 처용과 흑·백 처용은 모두 소매를 들어 안으로 끼고 황처용은 짝이 없음으로 손춤을 추면서 왼쪽으로 걷다. 그리고 반대로 반복한다. (심우성의 정재 ‘홍정도둠무’ 설명 중)</p> <p>4. 특징적 소도구, 의미, 내용, 분위기 등을 부연 설명한다. 몸의 중심 부분에서 흉을 어깨로 전달하여 이것을 “절도 있게 원심적으로 사지에 발전시키는것”으로 외형적으로는 어깨만을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나 이 움직임은 체내에서부터 출발하여 몸전체가 움직여지는 동작이다. (이애주의 민속춤 ‘어깨춤’ 설명 중)</p>				

앞서 춤사위 용어의 표준화 탐색에서 제시한 춤사위 용어의 범위 분류, 표기 체계, 해설 체계의 표준화 방안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8> 과 같다.

<표 18> 춤사위 용어의 표준화 내용 정리

방안	춤사위 용어 표준화 내용
춤사위 범위 분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춤사위 용어의 가치로 인한 범위문제 구전된 춤사위 용어(1240개)와 임의상 춤사위 용어(473개) 2. 춤사위 용어의 구성으로 인한 범위문제 춤사위 용어(1628개)와 춤의 구성 용어(85개)
춤사위 표기 체계	<p style="text-align: center;">춤사위 표기 형태 (관형사 + 범주화 특성(①~⑧) + 동사형 접미사 + 술어)</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춤사위 표기 체계 (춤사위 용어 + 사위(술어))</p>
춤사위 해설 체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춤사위 용어 자체의 뜻을 밝힌다.(춤사위 의미 설명) 2. 동작의 형상을 설명한다.(춤사위의 형상 설명) 3. 장단에 따라 그 춤의 과정을 기록한다.(춤사위 과정 설명) 4. 특징적 소도구, 의미, 내용, 분위기 등을 부연 설명한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춤사위 용어 자료들을 분석 정리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국 전통춤의 춤사위 용어 표준화 방안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용어 표준화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용어학과 음악학, 체육학 분야의 용어 연구 방법과 내용 및 특성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춤사위 용어 연구의 역사를 춤사위 해설 연구(춤사위를 제시하고 그 해설을 중심으로 서술한 연구)와 분석 연구(해설 연구를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을 피력한 연구)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더불어 춤사위 용어의 개념을 규명하기 위하여 그 분석틀을 춤사위 표기법(춤사위를 기록하기 위해 만들어낸 방법)과 춤사위 분석법(춤사위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방법)의 형태로 정리해 보았으며, 용어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계통 분석과 조어론 분석을 통해 춤사위의 형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들을 바탕으로 춤사위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춤사위 용어의 특성은 연구자별 특성을 바탕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의 연계성을 살펴보았으며, 춤사위 계열을 기준으로 자료의 해석 기준, 범주화 특성, 서술상의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춤사위 용어 연구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 발전의 사료가 되고 해석의 기준을 근거로 무용계의 연구환경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춤사위 용어의 범주화 분석을 통해 계열별 춤사위의 특성과 구성 형태를 정리하였고 춤사위 서술상의 특성을 고찰하여 춤사위 용어의 해설 형태를 살펴볼 수 있었다.

춤사위 용어의 표준화는 춤사위의 범위와 표기, 해설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 기준을 정하여 표준화 방안을 탐색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춤사위 용어의 범위 문제는 춤사위의 가치로 인한 문제와 춤사위 구성으로 인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표기와 해설의 문제는 춤사위 자료 간에 일치하지 않는 용어의 표기와 해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거로 각각의 기준을 마련하여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춤사위의 범위 분류 방안에서는 춤사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국 전통춤 춤사위 용어를 구전된 춤사위 용어와 임의상 사용된 춤사위 용어로 나누었으며, 춤사위의 구성을 기준으로 춤의 구성용어와 춤사위 용어로 분류하였다. 춤사위 표기 체계 방안에서는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던 오기들은 원자료를 근거로 수정하였으며, 춤사위 구성형태를 바탕으로 ‘춤사위 용어 + 사위(술어)’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설 체계 방안에서도 역시 원자료를 근거로 오기를 수정하였으며, 춤사위 해설 형태를 바탕으로 춤사위 용어의 의미 설명과 춤사위의 형태 설명, 그리고 장단에 따른 춤사위의 과정을 설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춤사위 관련 소도구, 의미, 내용, 분위기 등을 부연 설명하여 그 해설 체계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표준화된 춤사위 용어를 위해서는 정확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하며, 그 범위를 구전된 춤사위 용어와 임의상 춤사위 용어, 춤의 구성용어와 춤사위 용어로 구분하여야 한다. 또한, 표기에서는 ‘춤사위 용어 + 사위(술어)’의 형태를 근간으로 하고, 해설은 춤사위 의미, 동작의 형상과 춤의 과정, 부연 설명의 체계에 따라 기술하여야 한다.

2. 제언

본 연구는 춤사위 표준화의 기초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춤사위 용어 자료의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그 해결 방안으로써 기준을 마련하여 표준화 방안을 탐색하였다.

춤사위 용어를 분석하던 중 같은 계열 혹은 다른 계열 사이에서 반복되는 춤사위를 발견하였으며, 각각의 특징을 분석하고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연구 자료가 한국 전통춤 전반에 걸쳐 춤사위를 개괄적으로 서술한 내용이기에 지금까지 연구됐던 각 종목의 춤사위 용어와의 연계성을 살펴보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다.

따라서 연구결과 도출된 표준화 용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

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연구된 각 계열 혹은 다른 계열의 용어 중, 반복되는 춤사위 용어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밝혀야 하고 그 쓰임을 정리하여 표준화된 해설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개괄적으로 춤사위 용어를 서술한 자료에서 나아가 각 종목의 춤이 구체적으로 연구된 논문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표기와 해설을 표준화하고 춤사위를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실제 현장 조사로서 그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춤사위 용어를 재조사하고 체계화시켜 ‘춤사위 용어집’을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근본적으로 용어에 대한 인식 교육을 바탕으로, 용어 표준화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표준화된 ‘춤사위 용어 사전’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연구물 등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춤사위 용어의 사용을 교육과 저술 나아가 학제간의 소통에 활용하고자 실제 교과서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 용어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춤사위 용어 교육, 강습, 세미나, 학회 등)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남북한의 교류활동 작업으로써 ‘춤사위 용어 통일안’을 만들어 국가적인 차원의 연구 형태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기원(2010). **태권도 기술용어집**. 서울 : 국기원.
- 국립부산국악원(2013). **영남춤사위 용어 편람**. 부산 : 국립부산국악원.
- 곽택용(2007). 태권도 경기기술 용어 변천과 사용실태. **대한무도학회지**, 9(2), 113-126.
- 김경숙(2006). 전통춤의 구조 이해와 그 가르침을 위한 시론. **대한무용학회지**, 49, 1-18.
- 김세중(1973). **한국민속극 춤사위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지원(2006). 한국민속춤의 동작 코드와 의미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지**, 46, 1-35.
- 김한샘(2008). 전문용어 표준화의 현황과 과제. 제28회 한말연구학회 학술대회. **국립국어원**, 73-89.
- 박금슬(1982). **춤동작**. 서울 : 일지사.
- 박수찬·박세진·김철중·이순원·정인혁(1989). 인체 측정용어의 표준화에 관한연구 (I). **대한가정학회지**, 27(1), 43-52.
- 박영란(2002). 자모식 무용 표기법. **한국무용기록학회지**, 2, 214-223.
- 박영석(2005). 애견학 용어 제정 : 문제점과 해결방안. 수의학용어 표준화 2차 공청회. **대한수의학회**, 41-44.
- 브리태니커(2002). **브리태니커 세계백과사전**. 서울 : 브리태니커 동아일보 공동 출판.
- 배정혜(2004). **배정혜의 7일간의 춤 여행 1**. 서울 : 청아출판사.
- 백아리(1986). **음악 용어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강문(2005). 중북 수의학 용어 제정과정. 수의학용어 표준화 2차 공청회. **대한수의학회**, 35-39.

- 서희주(2003). **한국무용 호흡법과 용어 해설**. 서울 : 일지사.
- 손선숙(2003). 궁중정재용어 해석에 대한 재검토. **한국무용사학회 논문집 1**, 39-74.
- 손선숙(2005). **궁중정재 용어 사전**. 서울 : 민속원.
- 손선숙(2008). **궁중정재 용어 연구**, 서울 : 민속원.
- 손용석(2005). 축산용어사전 편찬과정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수의학용어 표준화 2차 공청회. 대한수의학회**, 13-16.
- 송성아(2010). 전통춤 기술의 논리와 체계적 범주. **한국무용기록학회**, 20, 19-50.
- 신상미(1998). 무용학적 관점에서의 한국춤 움직임 분석 및 방법론 연구. **무용예술학 연구**, 1, 19-45.
- 신순애(2006). **제7차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서의 국악용어 고찰**.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심우성(1982). **전통무용 용어의 연구**. 서울 : 예니·나래출판사.
- 심우성(2001). **한국전통예술개론**. 서울 : 동문선.
- 유경희(1992).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양종승(2002). 민족무용과 예술. **비교민속학 23**, 83-93.
- 유시현(2002). 라바노테이션을 이용한 한국 전통춤 기록의 문제. **한국무용기록학회지**, 2, 178-189.
- 이금남(1990). **한국탈춤, 춤사위의 구조와 의미**.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이순지(2014).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 체계화 방안**.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이유진(2009). 한국무용 교육을 위한 디딤 용어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0(3), 65-80.
- 이은주(1996). 한국무용 용어에 관한 연구. **인천전문대학논문집 24**, 315-332.

- 이은주(1997). 한국무용 춤사위용어의 표준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 25, 187-219.
- 이애주(1976). 춤사위 어휘고. **관악어문연구** 1, 247-272.
- 이현주·조동성(2011). 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의 특징 및 과제. **한국어 의미학**, 35, 245-283.
- 이흥식(2005). 수의학 용어 사업개요 2차 보고. 수의학용어 표준화 2차 공청회. **대한수의학회**, 25-33.
- 이흥구(2009). 궁중정재 용어연구(손선숙 저)-서평. **한국무용사학** 10, 411-420.
- 임학선(1998). 춤표기법에 관한 연구 1 : 호흡표기법을 중심으로. **대한무용학회지**, 23, 109-139.
- 장사훈(1984). **한국무용개론**. 서울 : 대광문화사.
- 정병호(1984). 춤사위 고. **한국민속학** 18, 155-190.
- 정병호(1985). **한국춤**. 서울 : 열화당.
- 정병호(1987). **무무**. 서울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 연구소.
- 정병호(1991). **한국의 민속춤**. 서울 : 삼성출판사.
- 정병호(1994). **농악**. 서울 : 열화당.
- 정병호(1997). 박금슬의 생애와 예술. **한국미래춤학회 연구논문집** 4, 209-221.
- 정병호(2002). **한국의 전통춤**. 서울 : 집문당.
- 정병호(2004). **한국무용의 미학**. 서울 : 집문당.
- 조남호(2005). 학술 용어집 발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 국어 정책에서 본 전문용어 정비와 문제점. 수의학용어 표준화 2차 공청회. **대한수의학회**, 1, 17-23.
- 조은경(2000). **전문용어의 어휘 형태적 특성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조정신(1994). **무용 개념 정의에 관한 고찰**.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종묘제례악보존회(2012). **종묘제례악**. 서울 : 민속원.

- 지제근(2005). 의학용어사전 편찬과정. 수의학용어 표준화 2차 공청회. **대한수
의학회**, 1-6.
- 채희완(2012). 영남예술의 미적세계 탐구를 위한 방법론의 모색. **한국학논집**
46, 7-47.
- 하남길, 박재현(2012). 골프 용어의 유래와 역사적 의미. **한국체육학회지**,
51(2), 21-34
- 허순선(1997). 박금슬 춤사위 용어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미래춤학회 연구논
문집 4**, 223-254.
- 허순선(2004). **한국춤의 새로운 무보틀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허순선(2005). **한국의 춤사위와 무보틀**. 서울 : 형설출판사.
- 허연희(1986). **궁중무용의 춤사위 연구 및 전승 문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 황경숙(2004). 한국전통무용가의 무용의 의미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3(1)**,
99-107.
- 황지영·조민정·박영남·임순연·황수정·오상환(2010). 치위생 용어 표준화를 위한
방안 연구. **한국치위생학회지 10(4)**, 627-633.
- 앤허친슨(2004). 신상미 전유오 역. **라바노테이션 · 키네토그래피 라반**. 서울
: 대한미디어.
- 경향신문(1974년 4월 4일 5면). 개발위원회 등 구성 올 무용 예술 진흥 계획.
- 표준국어대사전(2014).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014).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encykorea.aks.ac.kr/>
- 문화재청 홈페이지(2014). <http://www.cha.go.kr/>

부록. 춤사위 용어의 분석(25)

범주화 분석	이애주(1976) 춤사위 어휘고	심우성(1982) 전통무용 용어의 연구	장사훈(1984) 한국무용개론	유경희(1992)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에 관한 연구	정병호(2002) 한국의 전통춤
①	<p>탈춤 춤사위(3) (통영)문둥춤 (고성)말뚝이춤 (봉산)먹중춤</p>	<p>탈춤 춤사위(50) (양주)먹중과 읍, 上佐춤, 읍과 上佐, 蓮잎과 눈꺼꺼이, 신할아버지와 미알 할미, 신장수놀이, 애사당 복놀이, 먹중놀이, 취발이 놀이, 샌님(단), 僧舞</p>	없음	<p>탈춤 춤사위(17) 四上佐춤, 老長춤, 말뚝이춤, 취발이춤, 미알춤, 첫목중춤사위, 二목중춤사위, 三목중춤사위, 四목중춤사위, 五목중춤사위, 六목중춤사위, 七목중춤사위, 八목중춤사위, 祠堂춤사위, 舞童춤, 居士춤, 翫시춤</p>	없음
<p>심우성 - 탈춤 춤사위(연속) (송파)上佐춤 場面, 翁중춤 場面, 蓮잎 눈꺼꺼기춤 場面, 參謀놀이 場面, 老長 小巫춤 場面, 신장사 원숭이춤 場面, 취발이춤 場面, 말뚝이춤 場面, 샌님 미알할미춤 場面, 捕盜頭將 샌님춤 場面, 신할아버지 신할멈 춤 場面 (통영)문둥춤 (고성)말뚝이춤, 僧舞(2), 문둥춤, 문둥복춤, 五광대, 제밀주(小巫) (봉산)四上佐춤, 八먹중춤, 祠堂춤, 老長춤, 兩班춤, 미알춤 (동래)문둥이춤, 巫舞, 할미춤, 제대각시춤, 道승춤 (강령)말뚝이춤, 목중마당, 老長마당, 목중춤, 上佐춤, 兩班마당, (수영)할미 승監춤 場面, 양민춤 場面, 말뚝이춤</p>					
②	<p>탈춤 춤사위(16) (양주)허리잡이, 팔뚝잡이, 어깨춤, 엉덩이춤 (송파)무릎치기, 배치기, 팔뚝잡이, (동래)배춤, 곱추춤, 어깨춤, 궁둥이춤, 엉덩이춤 (고성)어깨춤, 궁둥이춤 (봉산)궁둥이춤, 발흔듬사위</p> <p>민속 춤사위(2) (진주)손사위 (승무)어깨춤</p>	<p>정재 춤사위(2) (차용무) 垂揚手무릎디퍼춤, 무릎디퍼춤</p> <p>탈춤 춤사위(23) (양주)허리잡이, 목잡이, 고개잡이, 팔뚝잡이, 배꼽춤, 팔뚝잡이, 어깨춤, 엉덩이춤, (송파)무릎치기, 배치기, 팔뚝잡이, 엉덩춤 (동래)배춤, 곱추춤, 엉덩이춤, 어깨춤, 궁둥이춤, 엉덩이춤사위, 어깨 흔듬세 (고성)어깨춤, 궁둥춤 (봉산)발흔듬사위 궁둥이춤</p> <p>민속 춤사위(1) (진주)손사위</p>	<p>정재 춤사위(1) (정재)背舞</p> <p>탈춤 춤사위(1) 배치기</p>	<p>탈춤 춤사위(14) 어깨춤사위, 배꼽춤, 고개잡이, 팔뚝잡이사위, 목잡이사위, 고개흔듬세, 엉덩이춤, 겨드랑이사위, 머리쳐들기사위, 머리흔들기사위, 허리잡이사위, 어깨흔듬사위, 팔뚝고개잡이, 발오금사위,</p> <p>민속 춤사위(1) (기방)손사위</p>	<p>정재 춤사위(1) (정재)背舞</p> <p>탈춤 춤사위(17) (양주)허리잡이, 목잡이, 고개잡이, 팔뚝잡이, 팔뚝잡이 (송파)무릎치기, 배치기, 팔뚝잡이, 팔뚝잡이, 엉덩춤 (봉산)고개잡이, 허리제기, 허리 풀기 (강령)이마치기, 고개잡이 (야유 오광대)엉덩이춤사위 (남사당)팔뚝 고개잡이</p> <p>민속 춤사위(3) (한살)손벌리기 (강태)손목놀림사위 (진주)손목떨구기</p>

→ 뒤에 계속

ㄱ	<p>정재 춤사위(2) (학무)鼓囀 俯</p> <p>탈춤 춤사위(5) (양주)伏舞 (동래)엎드림사위, 구불춤, 기는춤, 뒤집사위</p> <p>민속 춤사위(1) (진주) 숙은사위</p>	<p>정재 춤사위(1) (학무)鼓囀</p> <p>탈춤 춤사위(6) (양주)伏舞 (동래)엎드림사위, 구불춤, 기는춤, 뒤집사위, 길사위</p> <p>민속 춤사위(1) (진주) 숙은사위</p>	<p>탈춤 춤사위(2) 구불사위, 길사위</p>	<p>탈춤 춤사위(3) 伏舞, 구불춤, 길사위</p> <p>민속 춤사위(2) (기방)숙은사위(2)</p>	<p>정재 춤사위(2) (학무)鼓囀(차용무)俯伏</p> <p>탈춤 춤사위(3) (야유 오광대)구불춤, 길사위 (양주)伏舞</p> <p>민속 춤사위(2) (강태)숙이는사위 (진주)숙은사위</p> <p>무속 춤사위(1) (서)四方으로 절하기</p> <p>불교 춤사위(3) (나)拜禮況, 險身拜禮 (마)穢想況</p>
	<p>정재 춤사위(3) (차용무)回顧相面 (학무)擧首</p>	<p>정재 춤사위(2) (학무)擧首, 俛</p> <p>탈춤 춤사위(1) (양주)끄덕이</p>	<p>없음</p>	<p>탈춤 춤사위(1) 끄덕이(단)</p> <p>농악 춤사위(1) 面돌이</p>	<p>정재 춤사위(2) (학무)擧首, 俛</p> <p>탈춤 춤사위(1) (양주)끄덕이(단)</p> <p>농악 춤사위(1) (쇠)面돌이</p>
㉓	<p>정재 춤사위(49) (종묘제례악) 合胸 斜直指 黠腹 下垂, 黠胸 外擧 擧肩, 垂復 還擧, 外揮 引胸 黠乳, 兩手擧肩, 黠腹, 兩手下垂, 腹把 折肩, 肩把 荷肩, 割挾 兩手引膝, 片直指 推前 推後, 拔劍 推臂, 伸臂, 還臂, 翻劍 翻券, 點膝 割劍 割拳, 折鬚 外把 擧揮, 兩手荷肩, 覆臂, 膝上內揮, 打肩, 刺空 引膝, 覆劍 膝把 跪左膝, 起立, 下膝, 黠挾 (차용무) 垂手舞</p>	<p>정재 춤사위(51) (종묘제례악) 合胸 斜直指 黠腹 下垂, 黠胸 外擧 擧肩, 垂復 還擧, 外揮 引胸 黠乳, 兩手擧肩, 兩手下垂, 腹把 折肩, 肩把 荷肩, 點腹 割挾 兩手引膝, 片直指 推前 推後, 拔劍 推臂, 伸臂, 還臂, 翻劍 翻券, 點膝 割劍 割拳, 折鬚 外把 後拂, 擧揮, 兩手荷肩, 膝上內揮, 折肩, 打肩, 覆臂, 刺空 引膝, 覆劍 膝把 跪左膝, 起立, 下膝, 黠挾 還置</p>	<p>정재 춤사위(84) (종묘제례악) 合胸 斜直指 黠腹 下垂, 黠胸 外擧 擧肩, 垂復 還擧, 外揮 引胸 黠乳, 兩手擧肩, 兩手下垂, 腹把 折肩, 肩把 荷肩, 點腹 割挾 兩手引膝, 片直指 推前 推後, 拔劍 推臂, 伸臂, 還臂, 翻劍 翻券, 點膝 割劍 割拳, 折鬚 外把 後拂, 擧揮, 兩手荷肩, 膝上內揮, 折肩下, 打肩, 覆臂, 刺空 引膝, 覆劍 膝把 跪左膝, 起立, 下膝, 還置, 兩手點膝 前垂 (정재)回頭 半袖半拂, 後拂袖 人舞, 低昂袖 外袖 搖袖 右呈手, 左打場, 尖斂 合蟬, 右打場, 以袖高低, 折腰理腰, 左呈手, 廣袖 內袖 擡袖 大閃袖 掉袖兒 半垂手拂, 翻袖 小垂手, 小閃手, 垂手雙拂, 斂手, 拂花簾 乍翻 合呈手, 垂手舞, 斜曳裾</p>	<p>정재 춤사위(95) (종묘제례악) 合胸 斜直指 黠腹 下垂, 黠胸 外擧 擧肩, 垂復 還擧, 外揮 引胸 黠乳, 兩手擧肩, 兩手下垂, 腹把 折肩, 肩把 荷肩, 點腹 割挾 兩手引膝, 片直指 推前 推後, 拔劍 推臂, 伸臂, 還臂, 翻劍 翻券, 點膝 割劍 割拳, 折鬚 外把 後拂, 擧揮, 兩手荷肩, 膝上內揮, 折肩, 打肩, 覆臂, 刺空 引膝, 覆劍 膝把 跪左膝, 起立, 下膝, 黠挾 還置 (차용무)右學手, 左學手, 斜曳裾 一佛, 左手擡頭, 外袖擧, 內袖擧, 小垂手, 飛覆, 拱揖, 擡袖 垂手舞 (정재)廣袖 內袖 大閃袖 掉袖兒, 折腰理腰, 左呈手, 人舞, 垂手雙拂, 外袖 後拂袖 搖袖 右呈手, 左打場, 尖斂 合蟬, 半袖半拂, 半垂手拂, 翻袖 小垂手, 小閃手, 右打場, 以袖高低, 低昂袖 斂手, 拂花簾 乍翻 合呈手, 回頭 後佛, 八手舞, 舞作, 斜曳裾</p>	

<p>탈춤 춤사위(12) (양주)合掌再拜, 활개펴기, 활개꺾기(고성)메는가락(봉산)외사위, 곱사위, 사위팔엮기, 兩사위 (동래)양팔든어름사위, 울러맨사위 (송파)곱사위, 짚춤</p>	<p>탈춤 춤사위(14) (양주)合掌再拜, 활개펴기, 활개꺾기, 곱사위 (고성)메는가락 (봉산)외사위, 곱사위, 兩사위, 滿사위, 민사위 (동래)양팔든어름사위, 울러맨사위 (송파)곱사위, 짚춤</p>	<p>탈춤 춤사위(9) 겹사위, 곡사위, 곱사위, 滿사위, 민사위, 兩사위, 外사위, 활개꺾기, 활개펴기</p>	<p>탈춤 춤사위(14) 사위팔엮기, 사위돌리기, 外사위, 곱사위, 兩사위, 滿사위, 돌림사위, 合掌再拜, 활개 꺾기사위, 활개 꺾기사위, 울러맨사위, 빠른 휘두름사위, 느린 휘두름사위, 좌우활개사위</p>	<p>탈춤 춤사위(17) (양주)合掌再拜, 활개펴기, 곱사위 (봉산)외사위, 곱(겹)사위, 兩사위, 돌림사위 (강령)곱사위 (송파)활개펴기, 곱사위, 合掌再拜, 짚춤 (아유 오광대)左右활개사위, 울러맨사위, 느린 휘두름사위, 빠른 휘두름사위, 겨드랑사위</p>
<p>이애주 - 민속 춤사위(1) (승전무)모듬사위</p>				
<p>유경희 - 민속 춤사위(40) (승무)모음(단), 감기(단), 활개펴기, 팔올리기, 팔내리기, 팔一字펴기, 비스듬히펴기, 걸치기(단), 퍼넘기기, 비껴밀기로 뿌림, 뒤로젓혀 뿌림, 감고푸는 뿌림, 던지는 뿌림, 꼬아서 뿌림, 던져서 뿌림, 옆 뿌림, 앞으로 뿌림, 위로 뿌림, 젓는 뿌림, 돌려서 뿌림, 上下로 뿌림, 감아서 뿌림, 짚는 사위, 획긋는 사위 (기방)짜사위, 걸치기(단), 휘젓는 사위, 채는 사위, 퍼는 사위, 비껴든 사위, 手巾 휘날리기, 手巾 돌리기, 맺는 사위, 훑는 사위, 활사위, 手巾튀기는사위, 흠뿌림 사위, 手巾모듬사위, 手巾제질사위, 手巾풀림사위</p>				
<p>정병호 - 민속 춤사위(105) (김산)짜사위, 비껴든사위, 얹는사위, 끼는사위, 활사위, 여미는사위, 옆어뿌리는 사위, 던져뿌리는 사위, 퍼는사위, 왼을그리는 사위, 모으는 사위, 훑는사위, 어르는 사위, 감는 사위 (한살)휘젓는사위, 뿌리는 사위, 여미는사위, 모으는사위, 手巾튀기는 사위, 手巾어깨걸치기, 돌리는 사위 (이살)짜사위, 휘젓는 사위, 맺는사위, 채는사위, 퍼는 사위, 비껴든사위, 걸치기(단), 지긋는사위, 手巾휘날리기, 手巾돌리기, 어르는사위, 앞으로 뿌리는 동작, 뒤로 젓혀 뿌리는 동작 (한살)모음(단), 팔올리기, 팔내리기, 팔一字펴기, 비스듬히펴기, 활개펴기, 퍼넘기기, 걸치기(단), 여미는사위, 팔휘 돌리기, 옆으로 뿌림, 비껴옆으로 뿌림, 上下로 뿌림, 위로 뿌림, 꼬아서 뿌림, 뒤로젓혀 뿌림, 앞으로 뿌림, 감고푸는 뿌림, 던지는 뿌림, 감아서 뿌림 (이승)모음(단), 팔올리기, 팔내리기, 팔一字펴기, 비스듬히펴기, 활개펴기, 감기(단), 퍼넘기기, 걸치기(단), 꼬아서 뿌림, 던져서 뿌림, 옆뿌림, 젓는 뿌림, 돌려서 뿌림, 감아서 뿌림, 뛰어서 뿌림, 앞으로 뿌림, 위로 뿌림, 뒤로 뿌림 (강태)一字펴기, 뿌림사위, 끼고감는 사위, 체치는 사위, 얹는 사위, 엮는 사위, 걸치는 사위, 여미는 사위, 엮는 사위, 끼고드는 사위, 감는 사위, 감고푸는 사위, 들사위, 올림사위, 끼는사위, 치마잡는사위, 휘젓는사위, 내릴 사위, 양팔꿰다 모으는사위, 퍼는사위 (진주)팔어르기, 뿌림사위, 걸기(단), 돌림사위, 윗사위, 옆사위, 한삼 던질사위, 한삼 쌍우리, 맨손 쌍우리, 한삼 뿌림사위(오), 한삼 뿌림사위(왼), 팔一字펴기</p>				
<p>유경희 - 농악 춤사위(11) 左右차기, 휘돌리기, 上下차기, 숙바더듬, 고깔더듬, 통돌림, 채바꿈치기, 궁글채던지기, 태돌림, 북치고 양손들기, 팔벌리기</p>				
<p>정병호 - 농악 춤사위(30) (쇠)左右차기, 휘돌리기, 上下차기, 얹은 左右차기, 팽가리채 던지기 (장)숙바더듬, 고깔 더듬, 통돌림, 채바꿈치기, 궁글채던지기, 태돌림, 左右차기 (북)북태치기, 북돌리기, 어깨춤, 북치고 양손들기 (소)小鼓 올렸다 내리기, 팔걸이, 左右로 올리기, 팔벌리기 (무)어르기(단), 上下차기, 한손어르기, 左右로 흔들기, 겨드랑 사위, 앞으로 손짓하는 춤, 左右차기(3), 어깨左右로 틀기</p>				

	<p>유경희 - 무속 춤사위(11) 左右치기, 비빔무관, 년출무관, 걸치기와 뿌림, 어깨메고 뿌림, 哮囉 상하로 내리기, 哮囉 옆으로 올리기, 神강돌림, 밀치기, 느름손치기, 팔자사위</p> <p>정병호 - 무속 춤사위(77) (수)上下치기, 쳐 올려 뿌리고 어깨에 엮기, 겨드랑이 밑에서 옆위로 올리기, 어깨춤, 哮囉치고 올리기 (서)左右치기, 앞옆위로 휘돌리기 (응)앞에서 옆으로 휘젓기, 神강돌림(2), 옆치기, 칼 앞으로 휘돌리기, 겨드랑사위, 哮囉 상하로 내리기, 哮囉 옆으로 올리기, 옆치기, 칼휘돌리기, 上下치기, 8자로 휘돌리기 (함)左右치기, 양손8자로 돌리기, 哮囉치고 한손 번갈아 올리기, 哮囉치고 위로 올리기 (강)左右치기, 겨드랑무관, 몸앞에서 옆으로 뿌리는 사위, 돌리는 사위, 느름손 치기, 비빔무관 (평)左右로 휘젓기, 팔엮었다 뒤집기, 양팔돌리면서 칼휘돌리기, 칼옆으로 휘젓기, 칼돌리기, 左右치기, 哮囉들어올리기, 양팔을 8자로 휘돌리기, 겨드랑 사위, 두번잡기, 어깨돌리기, 양손뿌리기와 한손 반대쪽 어깨에 메기 (영)비빔무관, 뒤집고 앞사위, 左右치기, 양사위 무관, 겨드랑사위, 몸앞뒤로 뿌리기, 모았다 뿌리기 (통)左右치기, 몸앞에서 옆으로 벌레내기, 겨드랑사위, 上下치기사위, 뿌리는사위 (부안)양손쳐올리기, 겨드랑사위, 어깨엮은사위, 左右치기, 손목돌리기, 팔벌리는 사위, 앞에서 옆 위로 뿌리기, 양손 옆으로 뿌리기 (부산)비빔무관, 뒤로돌려뿌리기, 밀치기, 엮은사위, 한손던지기, 느름손치기, 비빔무관, 겨드랑무관, 양사우치기무관 (제)팔에 걸치기, 옆에서 뿌려 어깨에 메기, 뿌려 어깨에 메고뿌려 내리기, 어깨메고 뿌림, 걸치기와 뿌림 (진)左右치기, 쳐올리기</p> <p>정병호 - 불교 춤사위(34) (나)合掌捉 八手捉 險學手拜, 非나비想 座나래想 昂手宣者, 左手宜學傳, 左右宜學手, 손모으기, 팔 벌리기(2), 東쪽보고 손모으기, 西쪽 보고 蓮꽃치기, 北쪽보고 蓮꽃 치기, 손 모아 上下로 어르기, 손목 돌리기, 앉아서 蓮꽃치기, 앉아서 손흔들기, 앉아서 팔 흔들기, 앉아서 西쪽 보고 蓮꽃치기, 앉아서 北쪽보고 蓮꽃 치기, 앉아서 東쪽 보고 蓮꽃치기, 앉아서 南쪽보고 蓮꽃 치기, 꽃치기, 앉아서 팔 벌리기, 좌우로 蓮꽃치기, 손모으기 (법)옆치기, 북돌려치기, 북어르기, 북어르면서 回轉, 뒷북치기, 合掌, 북가락치기 (바)頭後上換提</p>										
③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43 1176 534 1467"> <p>정재 춤사위(4) (학무)踏進 舞 (처용무)擧足</p> </td> <td data-bbox="534 1176 710 1467"> <p>정재 춤사위(11) (학무)踏進 舞 進二步, 擧內足, 擧外足, 躍而退 (처용무)발바딿舞, 발바디作隊舞, 舞退, 舞進, 齊行而舞</p> </td> <td data-bbox="710 1176 885 1467"> <p>정재 춤사위(8) (정재) 발바딿舞, 발바딿 作隊舞, 內足, 舞退, 外足, 足踏, 尺腰, 塔塔高</p> </td> <td data-bbox="885 1176 1093 1467"></td> <td data-bbox="1093 1176 1308 1467"> <p>정재 춤사위(17) (학무)踏進 舞, 進二步, 擧內足, 躍而退 (처용무)平進, 발바딿춤(2), 折腰理腰 (정재)발바딿舞, 발바딿 作隊舞, 內足, 舞退, 外足, 足踏, 尺腰, 塔塔高</p> </td> </tr> <tr> <td data-bbox="343 1467 534 1825"> <p>탈춤 춤사위(2) (양주)짐거리 걸음 (봉산)제자리 걸음</p> </td> <td data-bbox="534 1467 710 1825"> <p>탈춤 춤사위(5) (양주)쌍발치기, 곧은치기 (봉산)제자리 걸음 (수영)地神밧기 (송파)갈지자</p> </td> <td data-bbox="710 1467 885 1825"> <p>탈춤 춤사위(2) 걸음 사위, 쌍발깨기</p> </td> <td data-bbox="885 1467 1093 1825"> <p>탈춤 춤사위(8) 두루치기걸음 사위, 뒷걸음걸치기사위, 허장거리걸음 사위, 짐거리걸음 사위, 모걸음치기사위, 경중걸음 사위, 울력걸음 사위, 쌍발치기사위,</p> </td> <td data-bbox="1093 1467 1308 1825"> <p>탈춤 춤사위(14) (봉산)다리들기, 제자리 걸음, 간기(단), 발뛰기, 다리 풀기, 다리들기, (강령)외발뛰기, 앞이뛰기, 외돌사위 (북청)모걸음치기, 뒷걸음치기 (양주)쌍발치기, 곧은치기 (송파)갈지자</p> </td> </tr> </table>	<p>정재 춤사위(4) (학무)踏進 舞 (처용무)擧足</p>	<p>정재 춤사위(11) (학무)踏進 舞 進二步, 擧內足, 擧外足, 躍而退 (처용무)발바딿舞, 발바디作隊舞, 舞退, 舞進, 齊行而舞</p>	<p>정재 춤사위(8) (정재) 발바딿舞, 발바딿 作隊舞, 內足, 舞退, 外足, 足踏, 尺腰, 塔塔高</p>		<p>정재 춤사위(17) (학무)踏進 舞, 進二步, 擧內足, 躍而退 (처용무)平進, 발바딿춤(2), 折腰理腰 (정재)발바딿舞, 발바딿 作隊舞, 內足, 舞退, 外足, 足踏, 尺腰, 塔塔高</p>	<p>탈춤 춤사위(2) (양주)짐거리 걸음 (봉산)제자리 걸음</p>	<p>탈춤 춤사위(5) (양주)쌍발치기, 곧은치기 (봉산)제자리 걸음 (수영)地神밧기 (송파)갈지자</p>	<p>탈춤 춤사위(2) 걸음 사위, 쌍발깨기</p>	<p>탈춤 춤사위(8) 두루치기걸음 사위, 뒷걸음걸치기사위, 허장거리걸음 사위, 짐거리걸음 사위, 모걸음치기사위, 경중걸음 사위, 울력걸음 사위, 쌍발치기사위,</p>	<p>탈춤 춤사위(14) (봉산)다리들기, 제자리 걸음, 간기(단), 발뛰기, 다리 풀기, 다리들기, (강령)외발뛰기, 앞이뛰기, 외돌사위 (북청)모걸음치기, 뒷걸음치기 (양주)쌍발치기, 곧은치기 (송파)갈지자</p>
<p>정재 춤사위(4) (학무)踏進 舞 (처용무)擧足</p>	<p>정재 춤사위(11) (학무)踏進 舞 進二步, 擧內足, 擧外足, 躍而退 (처용무)발바딿舞, 발바디作隊舞, 舞退, 舞進, 齊行而舞</p>	<p>정재 춤사위(8) (정재) 발바딿舞, 발바딿 作隊舞, 內足, 舞退, 外足, 足踏, 尺腰, 塔塔高</p>		<p>정재 춤사위(17) (학무)踏進 舞, 進二步, 擧內足, 躍而退 (처용무)平進, 발바딿춤(2), 折腰理腰 (정재)발바딿舞, 발바딿 作隊舞, 內足, 舞退, 外足, 足踏, 尺腰, 塔塔高</p>							
<p>탈춤 춤사위(2) (양주)짐거리 걸음 (봉산)제자리 걸음</p>	<p>탈춤 춤사위(5) (양주)쌍발치기, 곧은치기 (봉산)제자리 걸음 (수영)地神밧기 (송파)갈지자</p>	<p>탈춤 춤사위(2) 걸음 사위, 쌍발깨기</p>	<p>탈춤 춤사위(8) 두루치기걸음 사위, 뒷걸음걸치기사위, 허장거리걸음 사위, 짐거리걸음 사위, 모걸음치기사위, 경중걸음 사위, 울력걸음 사위, 쌍발치기사위,</p>	<p>탈춤 춤사위(14) (봉산)다리들기, 제자리 걸음, 간기(단), 발뛰기, 다리 풀기, 다리들기, (강령)외발뛰기, 앞이뛰기, 외돌사위 (북청)모걸음치기, 뒷걸음치기 (양주)쌍발치기, 곧은치기 (송파)갈지자</p>							

③	ㄴ	<p>이애주 - 민속 춤사위(1) (승무)작은발</p> <p>유경희 - 민속 춤사위(5) (승무)디딤(딤), 한발들기, (기방)엮닫는 사위, 짚는 사위, 안가랑</p> <p>정병호 - 민속 춤사위(27) (김삼)엮닫는 사위, 엮닫는사위, 짚는사위, 옆사위, 한발튼사위 (한삼)발모아서뒤뚱치 올리기, 발벌리기, 발들기, 발옆으로 돌리는 뒷걸음 (이삼)안가랑, 비디딤 (한승)한발들기 (이승)한발들기, 비디딤, 안가랑 (강태)겹걸음, 따라붙이는 걸음, 잔걸음, 무릎들어 간기, 뒷걸음 짚기, 앞걸음 짚고 뒤꿈치 디딤, 뒤꿈치 짚어 돌기, 바른걸음, 느리게 발들기, 발옆으로 밀어주기, 발옆으로 옮겨닫는사위, (진주)進退</p>			
		<p>유경희 - 농악 춤사위(3) 三進三退, 옆치기, 제자리에서 뛰기</p> <p>정병호 - 농악 춤사위(9) (장)엮붙임걸음, 三進三退 (북)三進三退, 제자리에서 뛰기, 옆으로 다리들기 (소)옆걸음치기, 벌려 겹치기 (무)三進三退, 한발뛰기</p> <p>유경희 - 무속 춤사위(3) 기둥돌이춤사위, 구승돌이춤사위, 모듬뿍사위</p> <p>정병호 - 무속 춤사위(12) (서)도령들기, 발뒤로 겹쳐 뛰어 던지기, 모뚱뛰기, 옆으로 발디딤, 두발 돌음 (웅)돌음(단), 한발 돌음 (통)옆걸음치기, (수)부정놀이 디딤 (부산)한발들기, 한발뛰기, 옆걸음</p> <p>정병호 - 불교 춤사위(3) (나)丁尼捉, 八合尼捉 (법)무릎굽혀뛰기</p>			
	ㄹ	<p>정재 춤사위(2) (학무)振身 (처용무)搖身</p>	<p>정재 춤사위(1) (학무)振身</p>	<p>정재 춤사위(5) (정재)左右小轉 打駕褥場 塔袖 廻鸞 廻皮身</p>	<p>정재 춤사위(14) (처용무)前排, 相向, 相背, 左旋回舞(3), 乍轉, 跪 (정재) 左右小轉 打駕褥場 塔袖 廻鸞 廻皮身 (학무)振身</p>
		<p>탈춤 춤사위(5) (통영)누름새, (고성)베기는가락, 땃배기춤 (동래)배김사위 (수영)땃배기춤</p>	<p>탈춤 춤사위(8) (통영)누름새, 땃배 기춤 (고성)베기는 가락, 땃배기춤 (동래)땃배기춤, 배 김새 (수영)땃배기 (송파)돌단이</p>	<p>탈춤 춤사위(4) 얼르기사위, 누름새, 돌아치기사위, 배김사위</p>	<p>탈춤 춤사위(6) (봉산)앉아뛰기 外사위, 앉아뛰기 겹사위 (송파)돌단이, (야유 오광대)배김사위 (북청)요꽃뿍사위, 돌아치기</p>

③ □	<p>심우성 - 민속 춤사위(1) (진주검무)앉은사위</p>
	<p>유경희 - 민속 춤사위(11) (승무)몸통비틀기, 몸돌리기, 지숫기(단), 뛰어서 뿌림 (기방)지숫는사위, 어르는사위, 방글도는사위, 뱅글도는사위, 걸어도는사위, 앉은사위(2)</p>
	<p>정병호 - 민속 춤사위(23) (김살)방글도는사위, 뱅글도는사위, 걸어도는사위, 다루치기 (한살)도는사위, 앉아서 휘젓는사위 (이살)방글도는 사위, 뱅글도는사위 (한승)몸통비틀기, 몸돌리기, 지숫기(단) (이승)몸통비틀기, 몸돌리기 (강태)방글도는사위, 뱅글도는사위, 무릎들어 도는사위, 어르는사위, 몸통트는사위, 앉는사위, (진주)제자리어름, 한발들고한팔뿌림, 어르는사위, 제자리어름,</p>
	<p>유경희 - 농악 춤사위(3) 발벌리고 북치기, 앉은狀, 옆어매기</p>
	<p>정병호 - 농악 춤사위(16) (쇠)앉은걸음, 발 사이로 손 모으기, 앉은사위, 한발 들고 앞걸음, 左右치기로 앞걸음 (북)제자리 回轉, 발벌리고 북치기, 한발 들어 북치기, 빠른 걸음으로 回轉 (소)앞뒤로 젖히는 사위, 앉은狀, 차고 앉은 狀, 옆어매기, 몸틀기, 가랑이 밑으로 小鼓치기 (무)앉은 춤</p>
	<p>유경희 - 무속 춤사위(8) 돌머리 무관, 등맞추기, 앉음무관, 맬들이, 앉아 배깁, 양손 벌려 回舞, 한손 어깨에 메고 回舞, 양손 어깨에 메고 回舞</p>
	<p>정병호 - 무속 춤사위(27) (함)回舞, 뛰면서 양손 上下치기, 뛰면서 양손 옆으로 뿌림, 한발 앞으로 내딛고 어깨춤, 한발 들고 팔을 위 옆으로 휘젓기 (수)回舞, 돌아가는 춤 (사)돌아가는 사위 (강)돌머리 무관, 도리깨 무관, 까불무관 (평)擘羅치고 回轉, 뛰면서 長衫안으로 돌리기 (통)양손 벌려 回舞, 한손어깨에 메고 回舞, 양 손어깨에 메고 回舞 (부안)左右로 돌아가기 (부산)돌몰이무관, 등맞추기, 배맞추기, 어름새, 앉아배깁, 돌림사위 (제)감장도는춤, 맬들이 (웅)回舞 (영)回舞</p>
	<p>정병호 - 불교 춤사위(17) (나)險足拜禮, 宣者宣座, 翁手拜, 굽힘깨끼, 팔벌리고 발내리기, 앉으면서 어르기, 일어서 손 모으기, 回舞, 꽃들고 回舞 (바)磑是捉, 宣者宣座, 右纏匝, 左纏匝, 內明作, 平纏匝 (법) 양손발사이로 마주치기, 팔벌리고 回舞</p>

④	정재 춤사위(2) (처용무)尺座歡舞, 權場舞	정재 춤사위(1) (처용무)權場舞	정재 춤사위(1) (정재)歡花舞	없음	정재 춤사위(1) (정재)歡花舞
	탈춤 춤사위(3) (양주)원숭이걸음 (강령)원숭이춤 (수영)범춤	탈춤 춤사위(7) (양주)원숭이걸음 (봉산)獅子춤 (강령)원숭이춤, 獅子춤(수영)범춤, 獅子춤장면, 獅子춤	없음	탈춤 춤사위(4) 황소걸음 사위, 獅子춤, 원숭이걸음 사위, 소꼬리치기사위	탈춤 춤사위(1) (양주)원숭이걸음
	탈춤 춤사위(4) (양주)까치걸음 (봉산)까치걸음, 황새걸음 (송파)까치걸음	정재 춤사위(1) (학무)啄 탈춤 춤사위(4) (양주)까치걸음 (봉산)까치걸음 (송파)까치걸음 (동래)鶴춤 민속 춤사위(1) (승전무)쌍오리사위	탈춤 춤사위(1) 까치걸음,	탈춤 춤사위(3) 까치걸음 사위, 황새걸음 사위, 닭이똥사위, 민속 춤사위(3) (기방)까치걸음, 鶴사위 (승무)鶴體 농악 춤사위(5) 피꼬리 象毛, 前조시, 鶴걸음, 까치걸음, 기러기춤	정재 춤사위(1) (학무)啄 탈춤 춤사위(4) (양주)까치걸음 (봉산)까치걸음 (송파)까치걸음 (남사당)닭이똥사위 민속 춤사위(5) (김산)鶴사위 (이삼)까치걸음 (이승)까치걸음 (한승)鶴體 (강태)鶴사위 농악 춤사위(7) (쇠)피꼬리 象毛, 前조시, (장)까치걸음, 鶴걸음 (북)까치걸음 (소)기러기춤, 까치걸음 무속 춤사위(2) (강)까치걸음 (부산)까치달기 불교 춤사위(1) 鶴體
탈춤 춤사위(4) (양주)자리춤, 龍트름 (송파)자리춤, 龍트름	탈춤 춤사위(5) (양주)자리춤, 龍트름 (송파)자리춤, 龍트름 (고성)獅獅(단)	탈춤 춤사위(1) 자리춤	탈춤 춤사위(6) 자리춤사위, 나비춤사위, 龍트름, 계걸음 사위, 가재걸음 사위, 새우걸음 사위, 민속 춤사위(1) (기방)龍꼬리사위 농악 춤사위(1) 거북이채	탈춤 춤사위(3) (양주)龍트름 (송파)자리춤, 龍트름 민속 춤사위(1) (김산)龍꼬리사위 농악 춤사위(2) (소)거북이채, 나비狀	

⑥	ㄱ	<p>탈춤 춤사위(6) (송파)명석말이, 화장舞, 염풍덩이, 건드렁 (양주)너울질, 여단이</p> <p>민속 춤사위(2) (진주)燕風臺가락 (승무)燕風臺</p>	<p>정재 춤사위(1) (학무)嘯式地</p> <p>탈춤 춤사위(10) (송파)명석말이, 화장舞, 잣은 화장, 염풍덩이, 건드렁, 여다지(단), (양주)너울질, 여단이, 명석말이, 화장舞</p> <p>민속 춤사위(1) (진주)燕風臺가락</p>	<p>정재 춤사위(1) (정재)筵風臺</p> <p>탈춤 춤사위(4) 蓮풍덩이, 화장舞, 명석말이, 여다지(단),</p> <p>민속 춤사위(2) (승무)燕風臺 (기방)燕風臺</p> <p>농악 춤사위(1) 燕風臺</p>	<p>정재 춤사위(2) (학무)嘯式地 (정재)筵風臺</p> <p>탈춤 춤사위(18) (양주)너울질, 여단이, 명석말이, 화장舞, 너울질, (봉산)燕風臺, 너울질(2) (송파)어르기(단), 명석말이, 화장舞, 잣은 여다지(단), 염풍덩이, 건드렁, 잣은 화장 (북청)어르기(단), 꽃꽂이 서기</p> <p>민속 춤사위(4) (진주)외팔 양팔 燕風臺, 양팔 뒷사위 燕風臺, 燕風臺 (이승)燕風臺</p> <p>농악 춤사위(7) (쇠)燕風臺(장)명석말이, 燕風臺(북)燕風臺(2) (소)燕風臺(2)</p> <p>무속 춤사위(1) (평)筵風臺</p>	
		<p>정재 춤사위(2) (처용무)散作花舞, 落花流水舞</p> <p>탈춤 춤사위(2) (동래)홍두깨춤, 평개춤</p>	<p>정재 춤사위(2) (처용무)井扞舞, 落花流水舞</p> <p>탈춤 춤사위(33) (양주)길놀이, 念佛놀이, 鍼놀이, 깨끼리(단), 갈지자걸음, 갈지자춤, 빗사위 걸음, 노랑개끼, 엇새기 깨끼, 제자리 깨끼, 돌담, 告祀 (통영)法鼓탈마당, 謔제탈마당, 영노탈마당, 농장탈마당, 砲手탈마당 (봉산)깨끼춤, 登場사위, 두어춤 (동래)直線사위, 群舞, 길놀이, 홍두깨춤, 끝놀이, 평개춤, 搖動춤(수영)영노춤 장면, 鬪舞, 農樂舞, 試박(단) (송파)발님(단), 깨끼리(단)</p>	<p>정재 춤사위(10) (정재)落花流水, 散作花舞, 散花作舞, 過橋山, 飛金沙, 飛霞, 燕歸巢, 轉花持, 風流枝, 花前態</p> <p>탈춤 춤사위(9) 갈지자걸음, 갈지자춤, 곱은개끼, 깨끼리(단), 빗사위걸음, 멧새끼깨끼, 제자리깨끼, 홍두깨춤, 돌담</p>	<p>탈춤 춤사위(19) 갈짓자 걸음 사위, 좌우옆사리사위, 登場사위, 제자리깨끼춤사위, 엇새기깨끼사위, 곱은치기사위, 老長개끼사위, 깨끼리춤사위, 돌단춤사위, 여다지(단), 빗사위걸음, 요꿇춤사위, 모대치기사위, 꽃꽂이서기, 哀愴춤, 풀이사위, 一字사위, 깨끔질사위, 홍두깨춤사위</p>	<p>정재 춤사위(13) (처용무)散作花舞(4), 落花流水(2) (정재)落花流水, 過橋山, 飛金沙, 燕歸巢, 轉花持, 風流枝, 花前態</p> <p>탈춤 춤사위(26) (양주)갈지자걸음, 빗사위걸음, 노랑개끼, 엇새기 깨끼, 제자리 깨끼, 돌담 (봉산)불림(단), 트림사위, 近境, 登場 (강령)곤장치기, 코차기, 세위뛰기, 싸움사위 (송파)발님(단), 깨끼리(단), 거울보기, 물이치기, 달미잡이, 거울보기, 깨끼리(단) (야유오광대)一字사위, 풀이사위 (남사당)나비춤, 파조리춤 (북청)모대치기</p>
⑦	ㄴ	<p>정재 춤사위(2) (처용무)散作花舞, 落花流水舞</p> <p>탈춤 춤사위(2) (동래)홍두깨춤, 평개춤</p>	<p>정재 춤사위(2) (처용무)井扞舞, 落花流水舞</p> <p>탈춤 춤사위(33) (양주)길놀이, 念佛놀이, 鍼놀이, 깨끼리(단), 갈지자걸음, 갈지자춤, 빗사위 걸음, 노랑개끼, 엇새기 깨끼, 제자리 깨끼, 돌담, 告祀 (통영)法鼓탈마당, 謔제탈마당, 영노탈마당, 농장탈마당, 砲手탈마당 (봉산)깨끼춤, 登場사위, 두어춤 (동래)直線사위, 群舞, 길놀이, 홍두깨춤, 끝놀이, 평개춤, 搖動춤(수영)영노춤 장면, 鬪舞, 農樂舞, 試박(단) (송파)발님(단), 깨끼리(단)</p>	<p>정재 춤사위(10) (정재)落花流水, 散作花舞, 散花作舞, 過橋山, 飛金沙, 飛霞, 燕歸巢, 轉花持, 風流枝, 花前態</p> <p>탈춤 춤사위(9) 갈지자걸음, 갈지자춤, 곱은개끼, 깨끼리(단), 빗사위걸음, 멧새끼깨끼, 제자리깨끼, 홍두깨춤, 돌담</p>	<p>탈춤 춤사위(19) 갈짓자 걸음 사위, 좌우옆사리사위, 登場사위, 제자리깨끼춤사위, 엇새기깨끼사위, 곱은치기사위, 老長개끼사위, 깨끼리춤사위, 돌단춤사위, 여다지(단), 빗사위걸음, 요꿇춤사위, 모대치기사위, 꽃꽂이서기, 哀愴춤, 풀이사위, 一字사위, 깨끔질사위, 홍두깨춤사위</p>	<p>정재 춤사위(13) (처용무)散作花舞(4), 落花流水(2) (정재)落花流水, 過橋山, 飛金沙, 燕歸巢, 轉花持, 風流枝, 花前態</p> <p>탈춤 춤사위(26) (양주)갈지자걸음, 빗사위걸음, 노랑개끼, 엇새기 깨끼, 제자리 깨끼, 돌담 (봉산)불림(단), 트림사위, 近境, 登場 (강령)곤장치기, 코차기, 세위뛰기, 싸움사위 (송파)발님(단), 깨끼리(단), 거울보기, 물이치기, 달미잡이, 거울보기, 깨끼리(단) (야유오광대)一字사위, 풀이사위 (남사당)나비춤, 파조리춤 (북청)모대치기</p>

<p>민속 춤사위(1) (승전무)엇사위</p>	<p>민속 춤사위(10) (승전무)元舞, 挾舞 (승무)念佛가락, 念佛도드리가락, 타령가락, 타령도드리가락, 굿거리가락, 굿거리도드리가락, 복치는가락, 唐樂가락</p>		<p>민속 춤사위(9) (승무)꼬리치기, 無動作 (기방)꼬리치기, 잉어걸이, 완자걸이, 다루치기, 方席돌이, 쌍오리사위, 공그르는 사위</p>	<p>민속 춤사위(19) (김살)꼬리치기, 잉어걸이, 완자걸이 (한살)잉어걸이 (이살)꼬리치기, 잉어걸이, 완자걸이 (이승)無動作, 比丁比八 꼬리치기, 완자걸이, 잉어걸이 (강태)해엄하는사위, 엇불입사위 (진주)方席돌이, 움칠사위, 埋香舞 背맞추기 (한승)꼬리치기</p>
<p>⑥ L</p>	<p>유경희 - 농악 춤사위(32) 외사, 兩사, 사사, 피넛기, 空+매기, 해바라기(단), 이슬털이, 엇불입, 마상개(단), 반드름, 蓮꽃놀이, 산치기, 접시 돌리기, 발림(단), 미지기굿, 바꿈질굿, 자반뒤지기, 두루걸이, 之자뛰기, 다듬이질하기, 덧비기춤사위, 사채(단), 지계북, 쌍방아짱기, 말법鼓, 삼채法鼓, 手搏치기, 사모쟁이, 제기法鼓, 굿거리춤, 짝꿈놀이, 짝찍이춤</p>			
	<p>정병호 - 농악 춤사위(52) (쇠)외사, 兩사, 사사, 피넛기, 空+매기, 해바라기(단), 이슬털이, 엇불입, 마상개(단), 반드름, 蓮꽃놀이, 산치기, 배미르기, 돛대치기, 용개象毛, 빠른象毛 (장)접시 돌리기, 발림(단), 미지기굿, 바꿈질굿, 사채(단) (북)덧배기춤, 굿거리춤, 두루걸이, 之자뛰기, 다듬이질하기 (소)사사, 사채(단), 맺는狀, 지계북, 마상개(단), 자반뛰기, 쌍방아짱기, 外방아짱기, 말법鼓, 三채法鼓, 七채法鼓, 꽃봉오리, 발림(단), 手搏치기, 물푸기, 사모쟁이, 제기法鼓, 굿거리춤, 자반 뒤집기, 땅치기 (무)깨끼춤(3), 짝꿈놀이, 짝찍이춤, 발림(단)</p>			
	<p>장사훈 - 무속 춤사위(1) (진)가위질사위</p>			
	<p>유경희 - 무속 춤사위(24) 거드름춤사위, 날뛰기, 방이뛰기, 돌림뛰기, 나비도령, 진쇠춤, 帝釋춤, 티벌림춤, 손님굿춤, 軍雄님춤, 바람막이, 회오리바람, 가세질(가위질), 太極무늬, 다듬이질, 꽃봉오리, 갈매무관, 손神무관, 뽕산무관, 相對무관, 神맛이, 안유짜기, 깨꿈질, 달남기무관</p>			
	<p>정병호 - 무속 춤사위(20) (진)바람막이, 外바람막이, 가위질, 太極무늬, 회오리바람, 다듬이질, 꽃봉오리 (제)神맛이(2), 陣쌓기 (강)손神무관, 깨꿈사위, 완자걸음 (부산)갈매무관, 손新무관, 도리깨무관, 안유짜기 (사)도드림(2)(단) (부안)꽃봉오리</p>			
<p>정병호 - 불교 춤사위(10) (나)五方神宣, 參傳呪, 比呂傳, 婆身身呪, 꽃봉오리 (바)번개繩瓦, 歡喜想拜, 呪術呪 (법)木魚堂象初三通, 木魚堂象後五通</p>				

⑦	<p>탈춤 춤사위(4) (양주)法鼓놀이, 부채놀이 (고성)탈놀음, 북춤</p> <p>탈춤 춤사위(8) (양주)劍舞, 法鼓놀이, 부채놀이 (고성)탈놀음, 북춤 (동래)탈관 (송파)북놀이 場面 끈장놀이 場面</p> <p>이애주 - 민속 춤사위(1) (진주)쌍갈질</p> <p>유경희 - 농악 춤사위(4) 外象毛, 兩象毛, 小鼓 앞뒀면 치기, 兩象전치기</p> <p>정병호 - 농악 춤사위(12) (소)外象毛, 兩象毛, 가래들고 앉은 狀, 小鼓 돌리기, 앉아서 象毛 돌리기, 小鼓차고 돌리기, 小鼓를 사선으로 올려 내리기, 小鼓잡고 발 옆으로 올리기, 한발 든 小鼓놀이, 小鼓 앞뒀면 치기, 앉아서 小鼓치기 (무)인형으로 하는 무동춤</p> <p>유경희 - 무속 춤사위(5) 汗衫도령, 부채도령, 칼도령, 哼囉치기, 象毛놀음</p> <p>정병호 - 불교 춤사위(7) (바)聲磬知呪, 聲頭上拜, 聲頭上換提, 因明呪, 聲頭聲磬呪, 聲磬是拜, 聲明呪</p>	<p>탈춤 춤사위(1) (강령)長衫춤</p>	<p>탈춤 춤사위(1) (강령)長衫춤</p>	<p>민속 춤사위(4) (승무)長衫섭 제끼기, 長衫섭 퍼기, 長衫소매 감기, 長衫소매 짚어지기,</p> <p>무속 춤사위(1) 快子자락 얼리기</p>	<p>무속 춤사위(1) (웅)快子자락 어르기</p>
	<p>정재 춤사위(3) (처용무)回舞, 周旋, 相對舞</p> <p>탈춤 춤사위(5) (수영)맞춤 (양주)四方치기, 三進三退, 맞춤, 對舞</p> <p>민속 춤사위(6) (진주)立춤, 分立向內舞, 四方分隊舞, 向外舞, 相對舞 (승전무)三進三退</p>	<p>정재 춤사위(10) (학무)見蓮筒, 內旋, 向池塘, 內顏, 外顏 (처용무)回舞, 周旋, 垂揚手五方舞, 入舞, 紅程도둑춤</p> <p>탈춤 춤사위(5) (수영)맞춤 (양주)四方치기, 三進三退, 맞춤, 對舞</p> <p>민속 춤사위(2) (진주)立춤, (승전무)三進三退</p>	<p>정재 춤사위(9) (정재)對舞, 相對舞, 垂揚手五方舞, 紅程도둑춤, 回舞, 回旋舞, 交旋舞, 相背舞, 圓花舞</p>	<p>탈춤 춤사위(2) 四方치기, 三進三退</p> <p>민속 춤사위(4) (가방)뒤로回舞, 三進三退, 立춤사위(2)</p>	<p>정재 춤사위(21) (학무)內顧, 外顧, 見蓮筒, 內旋, 向池塘 (처용무)垂揚手五方舞(7) (정재)對舞, 相對舞, 垂揚手五方舞, 紅程도둑춤, 回舞, 回旋舞, 交旋舞, 相背舞, 圓花舞</p> <p>탈춤 춤사위(5) (양주)四方치기, 三進三退 (강령)右方陣, 左方陣, 回右方陣, 回左方陣 (송파)四方再拜</p> <p>민속 춤사위(5) (이삼)뒤로回舞, (진주)交叉舞, 內向舞, 上元舞, 井字舞, 맨손立춤(오원)</p> <p>무속 춤사위(1) (수)四方치기</p>

※ 범례의 구성

정재 춤사위

(종묘제례악) → 종묘제례악 춤사위 (학무) → 학무 춤사위
(처용무) → 처용무 춤사위 (정재) → 일반 정재의 춤사위

탈춤 춤사위

(양주) → 양주별산대 춤사위 (송파) → 송파산대놀이 춤사위
(봉산) → 봉산탈춤 춤사위 (강령) → 강령탈춤 춤사위
(통영) → 통영오광대 춤사위 (고성) → 고성오광대 춤사위
(동래) → 동래야유 춤사위 (수영) → 수영야유 춤사위
(북청) → 북청사자놀이 춤사위 (남사당) → 남사당 덧뛰기 춤사위
(야유 오광대) → 야유 오광대 춤사위

민속 춤사위

(승무) → 승무계열 춤사위 (한승) → 한영숙 승무 춤사위
(이승) → 이매방 승무 춤사위 (김살) → 김숙자 살풀이 춤사위
(한살) → 한영숙 살풀이 춤사위 (이살) → 이매방 살풀이 춤사위
(강태) → 강선영 태평무 춤사위 (승전무) → 승전무 춤사위
(진주) → 진주검무 춤사위 (기방) → 기방계열 춤사위

농악 춤사위

(쇠) → 쇠꾼춤 춤사위 (장) → 장구춤 춤사위 (북) → 북춤 춤사위
(소) → 소고춤 춤사위 (무) → 무동춤 춤사위

무속 춤사위

(수) → 수원 무속춤 춤사위 (서) → 서울 무속춤 춤사위
(용) → 용진 무속춤 춤사위 (함) → 함흥 무속춤 춤사위
(강) → 강릉 무속춤 춤사위 (평) → 평양 무속춤 춤사위
(영) → 영덕 무속춤 춤사위 (통) → 통영 무속춤 춤사위
(진) → 진도 무속춤 춤사위 (부안) → 부안 무속춤 춤사위
(제) → 제주 무속춤 춤사위 (부산) → 부산 무속춤 춤사위

불교 춤사위

(나) → 나비춤 춤사위 (바) → 바라춤 춤사위 (법) → 법고춤 춤사위

25) 춤사위 용어의 계통 분석 (한자어는 한자로 표기, 혼합어 내의 한자어는 한자로 표기, 고유어는 별도로 표기하지 않음)
춤사위 용어의 조어론 분석(단일어는 (단)이라 표기, 파생어는 (파)라 표기, 합성어는 별도로 표기하지 않음)
춤사위 용어의 범주화 분석(8가지 기준에 의해 춤사위 용어 분류)

Abstract

Explor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 Dance Movement Terminology and Its Standardization Method

- Focused on Traditional Dance as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

Chung, In ho
Depf.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standardiz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erminology for Korean traditional Dancing through literature research since the terms used in this area is not unified.

In order to find the trend of research done in standardizing terminology, research methods and contents used in music and sports were reviewed, along with looking in depth of the history of terminology through commentary research and analysis research.

To examine the notion of the terminology of traditional dancing, the framework was divided into dancing notation and analysis. The form of dancing was defined through system and grammatical analysis, and based on the analysis, the definition of dancing was considered.

Analysis was done on the data characteristics, interpretive source, categorization characteristics, and descriptive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standard of the researcher's characteristics and dancing affiliation.

The results have shown that dancing terminology is the foundation for

designating an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and based on the interpretation, it showed the research environment in the dancing world. Through the categorization analysis of dancing terminology, the characteristics and composition for each affiliation was organized. Through the study of description of dancing, the form of commentary was examined.

The standardization of terminology in traditional Korean dancing was done by revealing the problems in limits, marking, and interpretation, and then proposing a standardization method.

The plan for establishing the limits of terminology for dancing was suggested through using the traditional terms in traditional Korean dancing excluding random terms. Classification of terminology was divided into the composition terms of dancing and dancing terms.

Suggestions have been made for the standardization marking system based on the composition of the dancing by using 'Dancing term + Sa-wi(predicate)'. The standardization interpretation system was based on the explan.

The use for standardizing the terminologies of Korean traditional dancing should suggest an accurate standard for interpretation. Defining the terminology of dancing should be marked as 'Dancing term + Sa-wi(predicate)', along with the meaning, shape, process, and additional explanation being described.

A standard dictionary for traditional dancing should be produced based on various dances and from the real world. An effective method to apply these terms from the study should be found along with exchange activities with North Korea to develop an unification for terminology in traditional Korean dancing to develop it into a national study.

Keywords : Korean Traditional Dance Movement Terminology, Characteristics and Standardization of Korean Traditional Dance Terminology,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Student Number : 2010-23598